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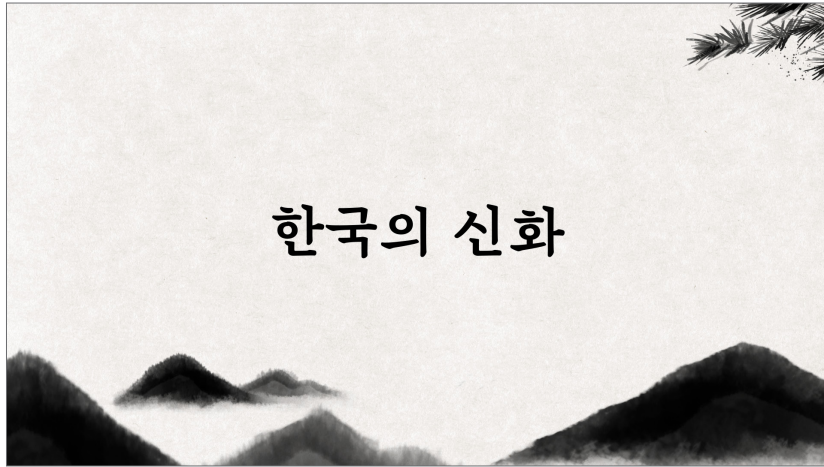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가이드북

한국의 신화

조현설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이 영상은 2021년 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AKS-2021-KDA-1250006)



강의 계획서

과목명: 한국의 신화
수준: 깊이 보기(중급)

강사명: 조현설
특징: 권역형

구성: 총 10강
수업 방식: 강의형

분과: 고전문학

강의 목표

한국 근대문학이 성립해 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한국신화의 전반적인 면모를 개괄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 한국신화가 과거의 텍스트 안에 박제되어있는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인의 삶 속에 살아 있는 신화임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제1강	한국 신화의 개념과 유형	제1차시: 한국 신화의 개념 제2차시: 한국 신화의 분류 제3차시: 한국 문헌신화 제4차시: 한국 구전신화 제5차시: 오늘날의 한국 신화
제2강	한국의 창세신화	제1차시: 한국 창세신화의 모습 제2차시: 김쌍돌이본 <창세가>의 발견 제3차시: <창세가>의 내용 제4차시: 미륵님과 석가님의 대결과 그 의미 제5차시: 창세신들의 대결의 유래

제3강	한국의 홍수신화	제1차시: 한국 홍수신화의 유형 제2차시: 홍수신화의 주제 제3차시: 남매혼 홍수신화의 문제의식 제4차시: 근친혼 금기와 텍스트의 변형 제5차시: 목도령형 홍수신화의 특성 제6차시: 창세신화와 홍수신화의 관계 제7차시: 한국 홍수신화의 주제의식
제4강	천지단절신화의 상상력	제1차시: 줄의 상징 제2차시: 한국신화의 줄들 제3차시: 천지단절신화의 개념 제4차시: 경덕왕이 끊은 하늘줄 제5차시: 티베트의 천지단절신화와의 비교 제6차시: 구전 천지단절신화와 문헌 천지단절신화의 비교 제7차시: 천지단절신화가 말하는 인간
제5강	시조신화와 한국의 건국신화	제1차시: 시조신화와 건국신화의 개념 제2차시: 두 가지 사냥 형식과 신화 제3차시: 건국신화의 구조 제4차시: 한국의 건국신화들 제5차시: 한국 건국신화의 원형화소들
제6강	단군신화, 그 천의 얼굴	제1차시: 단군신화와 한국사회 제2차시: 고려시대의 단군신화 제3차시: 단군신화의 형성과 우데게이 시조신화 제4차시: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그 이후 제5차시: 조선시대의 단군신화 제6차시: 근대계몽기의 단군신화 제7차시: 현대의 단군신화와 한국사회
제7강	바리데기, 한국의 무속신화	제1차시: 한국 무속신화의 대표 <바리데기> 제2차시: 바리데기 신화의 지역별 차이 제3차시: 바리데기 신화의 줄거리 제4차시: 바리데기 신화의 문제해결방식과 의미 제5차시: 함흥본 - 이상한 바리데기 제6차시: 바리데기 신화의 역사적 변모와 의미
제8강	오늘이, 제주의 바리데기	제1차시: 제주, 한국 신화의 보물창고 제2차시: 두 종류의 <원천강본풀이> 제3차시: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 제4차시: 오늘이의 문제해결방식과 심방의 운명 제5차시: 오늘이, 제주의 바리데기
제9강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의 싸움	제1차시: 제주, 만팔천 신들의 섬 제2차시: 제주의 큰굿과 불도맞이제 제3차시: <삼승할망본풀이>의 줄거리 제4차시: 두 할망의 싸움 제5차시: 두 할망의 화해의 의미 제6차시: 제주 창세신화와 <삼승할망본풀이>의 관계 제7차시: 이승의 소별왕과 삼승할망의 꽃피우기
제10강	한국신화와 유라시아신화의 관계	제1차시: 한국신화와 유라시아신화의 관계 제2차시: 사례(1) 백조처녀 - 선녀와 나무꾼 네트워크 제3차시: 사례(2) 명궁 메르겐 - 예 - 주몽 - 작제건 - 왕장군 네트워크 제4차시: 사례(3) 신데렐라 - 콩쥐팥쥐 네트워크 제5차시: 한국신화 이해와 유라시아 네트워크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강의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해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제1강〉

한국 신화의 개념과 유형

학습 목표

1.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핀다.
2. 한국 신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3. 문헌 신화와 구전 신화라는 한국 신화의 두 유형을 알아본다.

강의 핵심 요약

한국 신화의 개념과 유형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우선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화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신화라는 것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신화의 강의에서는 기존에 정의된 개념을 통해 신화를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한국 신화라고 부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귀납적으로 신화란 것, 한국 신화란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겠다.

다음으로 무엇이 한국의 신화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한국 신화는 국가적인 개념일 수도, 언어 종족적 개념일 수도, 지리 문화적 개념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일단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현재 한국인과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한국어로 표현되고 전승되는 신화가 한국 신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한국 신화의 유형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와 구전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신화로 나눌 수 있다. 문헌 신화는 역사서, 중국 문헌, 지리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 건국신화, 성모 신화, 시조

신화가 이에 속한다. 구전 신화에는 민간에 전승되지만 신화의 흔적을 간직한 민담과 굿에서 불리는 무교의 신화가 있다. 민간 구전 신화에는 창세신에 관한 신화, 일월성신에 관한 신화, 당신에 관한 신화 등이 있다. 무교의 신화는 아주 다양하며 특히 제주도의 굿 문화가 여전히 풍성하게 살아 있다.

한국 신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살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굿이 살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 신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와 의식을 살펴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 강의 내용 전문 ◆

학습 목표

안녕하세요. 한국의 신화 강의를 담당한 서울대학교 국문과 조현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한국 신화의 개념과 유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신화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순서

1. 한국 신화의 개념
2. 한국 신화의 분류
3. 한국 문헌신화
4. 한국 구전신화
5. 오늘의 한국 신화

1. 한국 신화의 개념

먼저 한국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신화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또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 혹은 신성시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이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죠. 그리고 신화에는 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신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화들이 해와 달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기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를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신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과거에는 그 신들에 관한 이야기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성시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정의도 있습니다.

이런 붉은색으로 정의된 신화에 관한 설명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화에 관한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신화에 대한 정의들은 지난 백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신화를 정의한 것들입니다. 일찍이 막스 뮐러에서부터 무수한 학자들이 신화에 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신화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 여기에 정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정의들이 있다. 가장 최근에 신화를 “오래된 철학이다”. “서사 형식의 이데올로기다” 이런 정의들까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신화에 대한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신화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시카고 대학 종교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브루스 링컨이라고 하는 학자는 “신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명확한 정의도 허락하지 않는 극히 모호하고 복잡적이며 유동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정말 모호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대단히 다양한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어 있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신화라는 강의를 통해서 신화를 먼저 정의하지 말고 그리고 기존에 신화라는 건 이런 것이라든 정의된 개념을 통해서 신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한국 신화다라고 부르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만나면서 그 속에서 귀납적으로 신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신화란 이런 것이고 한국 신화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신화인가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한국 신화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라는 것은 근대에 탄생한 국가죠. 한국 신화는 그러면 국가적인 개념인가 아니면 한국어라는 언어를 쓰고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민족의 민족에 기반한 신화인가 다시 말하면 언어 종족적 개념인가 아니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섬들 주변 도서라고 하는 이런 지리적 공간에 근거한 지리 문화적 개념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인가 이런 복잡한 질문들이 무엇이 한국 신화인가라는 질문에 뒤따라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참고삼아서 중국 신화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중국 신화입니까? 중국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 국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신화 하면은 그 개념이 아주 내포가 복잡합니다. 그 56개 각각의 민족들은 자기의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신화 하면 중국의 문헌 역사적 문헌들 속에 등장하는 신화들을 중국 신화, 문자 없이 구전으로 전승되는 소수민족들의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신화를 중국 소수민족 신화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좁게 말하면 중국 신화는 문헌 속에 있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 넓게 말하면 중국의 모든 민족들의 문헌 기록과 구전된 자료들을 다 포괄하는 신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신화가 뭐냐라고 해도 그 내포가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오늘날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어떤 언어권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 사회로 이주해서 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한국사회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단일 민족 국가라는 개념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신화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거나 기록한 그런 신화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화라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라고 하는 국가 요 어떤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화라는 것은 대단히 오랜 역사적 시간을 두고 형성되고 전승되었기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어떤 조건들을 좀 고려하면서 한국 신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신화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현재 한국인과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한국어로 표현되고 전승되는 신화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2. 한국 신화의 분류

자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한국 신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그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신화의 존재 양상 범주 유형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신화의 중요한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 신화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 두 번째는 구전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 이 두 가지를 모두 골고루 갖추고 있는 신화가 한국 신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한국 문헌신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신화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는 문헌 자료입니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헌 신화입니다. 한국의 문헌들은 생각보다 많이 오랜 어떤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는 바람에 풍부하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시기에 형성된 <삼국유사>, <제왕운기> 또는 조선 초에 만들어진 고려사 등과 같은 역사서 또는 문학서에 신화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군신화>와 같은 신화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같은 고려시대 문헌에 기

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을 우리가 건국신화라고 하죠. 건국신화는 국가의 건국에 관한 역사적인 신화이기 때문에 모두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중국 쪽 책입니다. 중국은 역사를 기술하는 태도가 중국을 중심에 놓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중국에서는 그걸 이족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민족의 역사까지도 기록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문헌들은 한반도와 그 북부 지역에 있었던 한국의 고대 국가들에 관한 역사 문화적인 사실들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기>나 <삼국지> 이런 어떤 역사서들 속에 한국 신화 자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문헌 자료로서 참고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서입니다.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자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야산 지역을 얘기하면서 가야산에 정견모주라고 하는 여신이 있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야산의 정견모주라는 여신은 산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민들이 말하자면 성스러운 어머니 홀리 마더라고 부르는 그런 여신이었죠. 따라서 이 여신에 관한 신화를 성모 신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신이 가야의 건국주를 낳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이 <동국여지승람>에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정견모주는 원래 가야 산신으로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과 금관가야의 왕 뇌질청예를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요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락국 옛 기록의 여섯 알의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말하자면 유가적 지식인들이 이 신화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지리서에 그 기록을 남겨두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아 과거에 이런 신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신화 자료들은 시조 신화들인데요. 이 자료들은 특정 성씨 집안의 족보라든가 집안에서 집안에서만 대대로 전승되는 기록들 속에 자기 시조 어떤 성씨의 조상에 관한 신화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조 신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관을 창녕이라고 하죠. 경상남도 에 있는 창녕 과거에 가야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조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시조에 관한 자료들이 전승되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시조모가 예향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배가 아픈 병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창녕에 가면 화왕산이라는 산의 중턱에 연못이 있는데 그 못이 매우 영험하다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정성껏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효험을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잡아서 그 화왕산 연못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솟아오르더니 주변이 캄캄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안개가 걷히면서 예향이라는 이 여성은 그 못 속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 뒤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그와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화왕산 연못의 신룡의 아들 옥결인데 내가 아이의 아버지다. 아이를 잘 기르면 나중에 큰 벼슬에 올라갈 것이고 자손만대가 번창할 것이다.” 이런 말

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 예향과 접촉을 했던 남성은 용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당시의 왕이 듣고 용의 뒤를 이었다라고 해서 계룡 조계룡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창녕조씨의 시조다. 뭐 이런 식의 시조 신화가 족보나 집안 문헌들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신화를 한국 신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유형을 분류해보면 첫 번째 문헌에 기록된 신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종류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성모 신화라고 해서 주로 여신에 관한, 여산신에 관한 신화인데 이 성모들이 한 고대 국가의 왕들을 낳았다. 그리고 후대에도 그 지역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의 대상이 되고 숭앙의 대상이 되었던 여신. 그 여신에 관한 성모 신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가야산의 정견모주를 비롯해서 경주의 선도산에 가면 선도산 성모가 있고요. 박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하는 선도산 성모가 있고 운제산에 가면 운제산 신모 그다음에 강원도 치슬령에 가면 치슬령 신모 또 북한 지역에 개성에 가면 구룡산에 있는 구룡산 여신 등등의 이런 여신들이 자신들의 이야기, 신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조 어떤 성씨 집안의 시조에 관한 신화들이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신라의 왕들 가운데 하나인 석탈해, 김알지 뭐 이런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창녕 조씨의 시조에 관한 신화, 다양한 성씨의 시조에 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면 그분한테 당신의 시조는 누구냐 그 시조에 관한 신화가 혹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건국 신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국 신화는 나라를 세운 건국자, 파운더(founder)에 관한 신화이고 한국에는 다양한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고대 국가의 건국자들에 관한 신화들이 <삼국유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헌들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들만 잠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단군, 북부여의 해모수, 동부여의 금와, 고구려의 고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 가락국의 수로, 제주 탐라국의 삼성 세 성씨들, 그다음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등등 모두 이들이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이고 자신들의 신화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고대, 중세, 근대 건국 신화라고 써두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고대 국가의 건국 신화들이 중세시기를 거치고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문헌들 또는 구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신화들을 중세 신화, 근대 건국 신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 구전신화

그다음에 한국 신화 자료 유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신화입니다. 구전 신화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에 구전되는 신화입니다. 민간에 구전된다는 것은 과거에 한국 사회에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그 마을에 사랑방이나 우물터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고받는 옛날이야기 속에 이 구전 신화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한국 학자들이 우리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해놓은 자료를 정리한 책입니다. 80권이 넘는 책인데요. 지금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를 쳐서 들어가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텍스트로 그다음에 녹음된 음원으로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료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천태산 마고선녀가 살았다. 근데 이 마고선녀가 힘이 장사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 시집 온 며느리가 점점 말라가고 얼굴이 노랗게 되니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 마고선녀라고 하는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제가 방귀를 못 끼어서 참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참느냐 마음껏 방귀를 끼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더니 이 마고선녀가 방귀를 끼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세던지 집이 무너질 정도로 바위에 구멍이 파일 정도로 힘세게 방귀를 끼었다라는 그냥 우스갯거리로 듣고 넘길 옛날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한국의 민담이라고 하죠. 민담 가운데 〈방귀쟁이 며느리〉라고 하는 유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것은 그 〈방귀쟁이 며느리〉라고 하는 그 민담과 신화의 주인공이 결합되었다는 거죠. 한국의 구전 신화 가운데 마고라는 신화 마고할미라는 여성이 있어요. 여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제주도에서는 설문대 할망이라고 하고 서해안에서는 수성당 할미라고 하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마고라는 여신은 한반도의 땅을 만든 창조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말하자면 신성성이 사라지고, 제사의 주체로서 존재하다가 그 제사에서 밀려나고 하면서 이런 민담과 결합해서 그냥 우스갯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자료 역시 민담화되었지만 민간에 전승되는 구전 신화. 신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신화의 연장선에 있는 민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교의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구전되는 신화인데요. 다른 말로 무가라고 합니다. 이걸 무교의 신화, 무가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에는 무당이라고 하는 무당을 중심으로 한 특이한 형태의 종교,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그 의례 리추얼(ritual)을 굿이라고 부릅니다. 굿. 그 굿을 할 때 신들을 부르는데 그 불러 들어오는 신들이 어떤 신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굿을 하는 동안 무당의 입을 통해서 구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가라고 노래의 형태로 불리기 때문에 무가라고 부르

기도 하고 무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화, 무속이라고 하는 민속의 신화이기 때문에 무교 신화, 무속 신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무속의 여신이 바리데기, 바리공주, 프린세스 바리라고 하죠. 이런 어떤 여신에 관한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요 화면에 보는 것은 서울 새남굿의 <바리데기>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굿하는 장면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무당의 옷차림은 바리공주, 바리데기가 공주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공주의 복색을 가지고 굿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교의 신화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과 같은 진성기 선생의 자료 그다음에 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이라고 그래서 현용준 선생의 자료 그리고 또 <한국 무가집>이라고 해서 뭐 김태곤 선생님의 자료 이런 자료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이 무교 무속 신화에 관한 자료들이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구전되는 굿의 현장에서 지금도 불리는 구전 신화이지만 100여 년 전부터 이 자료를 문자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이 구전 신화들은 이제 문자화, 문헌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한국 신화의 유형 두 번째 유형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구전 신화가 있는데 구전 신화에는 첫째 민간 구전 신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신에 관한 신화, 일월성신에 관한 신화, 홍수에 관한 신화, 당신에 관한 신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신에 관한 민간의 구전 신화는 거기 있는 대로 설문대 할망, 마고할미, 장길산, 갱구 할머니, 단군 할아버지 등등의 신화들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구전 신화는 말하자면 어떤 일반적인 무속의 신화나 문헌에 기록된 그런 신화가 보여주고 있는 신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아우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와 달의 기원에 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게 가장 유명한 민간의 구전 신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는 한국 신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시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사실은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 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태성이라든가 북두칠성이라든가 다양한 별자리의 유래에 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 신화.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홍수 신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 오누이가 결혼하는 형태의 홍수 신화 그다음에 목신의 아들인 목도령의 홍수 신화 이 두 가지 형태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당신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마을마다 가면은 과거에 신당이 있었습다. 마을이나 산속에 가면 신을 모시는 집이죠. 영어로는 슈라인(shrin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모셔지는 신의 이름이 신이 당신입니다. 그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 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해안에 가면 수성당이라고 하는 당신이 당이 있는데 거기에 개양할미이라고 하는 당신 또는

영동 할머니, 다자구 할머니, 안인당 안인 해랑당 해랑당신, 은산별신당 뉘 경상도의 일월산의 황씨 부인당 유명한 대관령 산신당 뉘 이런 다양한 제주도의 아이, 아기업개당 이런 등등의 당신들이 있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구전 신화 가운데 두 번째 무교의 구전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신화 강의의 50%, 50% 이상이 이 한국 구전 신화, 무교의 구전 신화에 대한 강의로 채워질 정도로 한국 신화에서 무교의 구전 신화는 대단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창세신에 관한 신화, 일월신 신화, 가신 신화, 산육신, 산육신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거나 그 아이가 어릴 때 병들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신 그게 산육신인데 제주도의 대표적인 생불할망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 그와 관한 이야기가 산육신 신화라고 분류됩니다. 그다음에 농경 목축신에 관한 신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승신에 관한 신화들도 여러 유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뉘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바리공주는 바로 저승신 가운데 한 분이죠.

이런 다양한 무교의 구전 신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신화 강의를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작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질병신에 관한 신화, 운명신에 관한 신화, 무조신 다시 말해서 무당의 조상에 관한 그런 신화 그다음에 당신, 아까도 말했듯이 민간 구전 신화에도 당신이 있는데 무교의 구전 신화에도 당신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신화, 조상신 신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당신 신화 또는 조상신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의 유형은 제주도 사회에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굿 문화가 아주 풍부하게 풍성하게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500개의 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을에 있는 당에서는 당곳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곳에서 모시는 신이 당신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당이 송당이라고 하고 그 송당이 있는 마을을 송당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주도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송당리 송당에 가보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당들이 있고 그 당들에는 당의 주인이 있고 그와 관련된 신화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조상신에 관한 신화입니다. 이 역시 제주도에서만 특별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아니라 다른 한반도 지역 한국에 있는 한반도 지역의 여러 성씨들도 역시 조상이 있죠. 그러나 그 조상에 관한 신화가 오늘날까지 의례 속에 전해지거나 살아있진 않습니다. 다 전승, 전승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에는 굿 형태 속에 이 조상신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제주도의 조상신은 실제로 혈통의 조상 혈통의 조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조상이기도 합니다. 혈통과 무관하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조상으로 모시는 신입니다. 이런 조상을 일월조상 일월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라는 뜻인데 일월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특별히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신화의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화면에 제시하는 이 표는 한국 신화 유형 분류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늘의 한국 신화

앞서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한국 신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있는 신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신화의 주인공인 신을 모시는 의례 한국에서 그것을 굿이라고 하는데 굿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화면에 보는 것은 금성당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신당입니다. 그 사진 속의 뒷면에 아파트가 보이시죠? 아파트가 보이는, 과거에는 이 지역이 저런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고 서울의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금성당은 웃당이 있고 아랫당이 있었는데 그 웃당은 산 중턱에 있고 전승에 따르면 그 웃당은 말하자면 이 지역을 오가는 이 지역의 물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신이 수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수신의 정체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후대에 아랫당이 만들어지면서 웃당은 사라지고 아랫당만 남았는데 지금 그림에 보는 사진은 아랫당입니다 금성당 그리고 저 금성당은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불운하게 죽은 그 왕자를 모시는 그런 신당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궁녀들이 저 궁밖에 신당에 와서 굿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로 보호가 되고 있고 여전히 정기적으로 이 당에서는 금성당제라고 하는 굿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런 굿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굿 속에서 신들을 부르고 그 신들의 이야기를 무당이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무당의 말 속에 무당의 이야기 속에 한국 신화는 살아 있는 셈이죠.

두 번째 현장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21세기에는 문화 콘텐츠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오랜 전승 속에 살아 있는 한국 신화는 오늘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금화라고 하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큰 무당이라고 해서 만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김금화 만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여러 편 만들어져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의해서 향유되고 있습니다. 이 필름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필름을 좀 찾아서 보면 알겠지만 저 김금화 만신에게는 유럽인 제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국 신화의 현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오늘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옛 이야기 책으로 <사계절의 신 오늘이> 이런 어떤 그림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성강 감독이 만든 <오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 이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무수한 상을 받은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나중에 오늘이와 관련된 강의를 있습니다마는 그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장면은 이런 한국 신화가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 수출한 일종의 문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웹툰이죠. 한국의 웹툰이 현재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웹툰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웹툰이 있는데 그것은 주호민 작가가 그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웹툰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해지면서 이 <신과 함께>라는 웹툰을 바탕으로 해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두 편이나 제작이 되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편 영화 다 한국 사회에서 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아주 큰 대흥행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곳에서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신화는 오늘날 과거의 신화만이 아니라 한국의 신화는 곳의 현장에서 살아 있으면서 또 동시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그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 신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국의 신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 현장 오늘날 한국인들의 정서와 그다음에 그들의 의식들을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한국 신화에 관한 긴 여행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한국신화'는 한국어로 표현 및 전승되는 신화만을 가리키는 언어적으로 국한된 개념이다. (O/X)

정답: X

2. 신화의 유형 중 구전의 현장에 살아 있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신화를 '문헌신화'라고 한다. (O/X)

정답: X

3. 운제산신모(三國遺事), 치슬령신모(三國遺事), 구룡산(성거산)여신(高麗史) 등의 신화는 '성모신화'로 분류된다. (O/X)

정답: O

4. 마고선녀가 등장하는 '천태산 마고할미 방귀'는 '민간구전신화'로 분류된다. (O/X)

정답: O

5. 오늘날에도 한국신화는 다양한 형태로 재현 및 활용되고 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신화'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과 자연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신화라고 부른다.
- ②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해주는 이야기를 총칭하는 것이다.
- ③ 어떠한 명확한 정의가 허락되지 않는, 극히 모호하고 복잡적이며 유동적인 개념이다.

정답: ③

2. 다음 중 '문헌신화'로 분류되지 않는 유형의 신화는?

- ① 성모신화
- ② 무교신화
- ③ 건국신화

정답: ②

3. 다음 중 '구전신화'로 분류되지 않는 유형의 신화는?

- ① 민간신화
- ② 무가(巫歌)
- ③ 시조신화

정답: ③

4. 다음 중 단군(古朝鮮), 고주몽(高句麗), 이성계(朝鮮) 신화 등이 속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의 유형은 무엇인가?

- ① 창세신화
- ② 조상신화
- ③ 건국신화

정답: ③

5. 다음 중 바리데기, 칠성풀이, 손님굿무가, 생불할망본풀이를 포괄하는 신화의 상위 유형은 무엇인가?

- ① 창세신신화
- ② 무교구전신화
- ③ 문헌신화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현재 한국인과 종족·문화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한국어로 표현되고 전승되는 신화이다.

정답: 한국신화

2. 한국신화의 유형은 ○○에 기록된 신화와 ○○의 현장에 살아 있는 신화로 분류해볼 수 있다.

정답: 문헌, 구전

3. 석탈해, 김알지, 창녕조씨 신화 등 족보(族譜) 등의 가전으로 전하는 신화의 유형을 ○○신화라고 한다.

정답: 시조

나. 토의(30분)

한국 신화와 자기 민족의 신화의 존재 양상을 비교하여 같고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에 대하여 토의한다.

다. 과제(60분)

영화 <신과 함께>를 보고 그것이 어떤 한국 신화와 관계가 있는지, 신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평하는 글을 써 본다.

〈제2강〉

한국의 창세신화

학습 목표

1. 굿의 현장에서 전승된다는 한국 창세신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2. 김쌍돌이본 〈창세가〉의 내용을 알아본다.
3. 〈창세가〉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신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강의 핵심 요약

김쌍돌이본 〈창세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창세신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창세신화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굿의 현장에서 전승된다. 김쌍돌이본 〈창세가〉는 구전된 창세신화 중 하나로, 20세기에 함흥의 무당인 김쌍돌이가 구연한 신화를 손진태가 채록한 것이다.

김쌍돌이본 〈창세가〉의 내용에서 신화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를 확인하려 한다. 세 키워드는 불교의 수용과 전파, 꽃 피우기 내기 신화소, 유라시아 신화의 공통성이다. 이 키워드들을 위주로 보면, 김쌍돌이본 〈창세가〉는 기존에 있던 창세신화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무속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미륵 신앙의 영향을 받아 미륵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꽃 피우기 내기 신화소가 나타나는 다른 신화인 중앙아시아의 〈울젠과 에를릭 신화〉,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와 견주어 보면, 창세신화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양상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중이 바위와 소나무로 변신한 사건은 다른 나라의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 이 두 명의 중은 석가의 무리 내부에 존재하는 석가가 아닌 존재로서 음양론적인 세계관을 표현한다. 이들을 통해 한국 창세신화에서 표면적으로는 대립이 나타나지만, 내면에서는 영속적인 어울림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강의 내용 전문 ◆

도입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 창세 신화입니다. 부제로 김쌍돌이 본 <창세가> 읽기라고 붙였습니다. 김쌍돌이 본 <창세가>가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강의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순서

1. 한국 창세신화의 모습
2. 김쌍돌이본 <창세가>의 발견
3. <창세가>의 내용
4. 미륵님과 석가님의 대결과 그 의미
5. 창세신들의 대결의 유래

1. 한국 창세신화의 모습

영어로는 크리에이션 미스(creation myth)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창조 신화, 창세 신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창세 신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창세라고 할 때 창세는 세는 세상이고 창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 창세 신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헌에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크리에이션 미스들이 <성서>와 같은 또는 각 민족의 어떤 종교서나 역사서와 같은 책들 속에 일찍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 문헌에는 그런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자들이 그런 자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지>라고 하는 이상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도지>에는 아까도 우리 구전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마고라는 이름의 여신이 등장하는데 그 여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도지>라는 책은 20세기 초에 어떤 개인에 의해서 창작되고 편집된 책으로 역사학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 신화의 기록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 신화는 대단히 오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신화를 말하는데 개인에 의해서 창작 편집된 것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한국의 창세 신화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세 신화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곳의 현장에 있다. 곳의 현장에서 전승되어 오는 구전된 창세 신화가 대단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일찍 조사되었고 보고된 자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쌍돌이라고 하는 무당이 구연을 한 <창세가>라는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창세 신화의 실체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김쌍돌이본 <창세가>의 발견

첫 번째 손진태의 조사와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창세 신화는 곳의 현장에서 살아 있었지만 그것을 아무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손진태 선생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젊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손진태 선생은 지금은 부산이죠. 부산 옆에 있는 구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구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부산에 해일이 밀어닥쳐서 어머니를 잃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여기저기 떠돌면서 아주 비탄하게 어렵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뒤늦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것도 물론 경북 성주에 있는 어떤 부자의 후원을 받아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손진태 선생은 당시에 니시무라 신지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학자를 거기서 만납니다. 니시무라 신지는 일본의 역사학 또는 민속학 이런 것들을 창도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문헌에서 역사학과 민속학을 손진태 선생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 교수를 모시고 당시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이제 니시무라 선생은 나중에 부산을 거쳐가지고 안동 지역으로 가서 양반 문화를 연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손진태 선생은 방학 과제 겸 해서 자신의 친구가 있었던 함경도 함흥으로 갑니다. 바로 그 함경도 함흥에서 함경도 함흥에서 24살의 손진태가 그 친구의 주선으로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이었던 김쌍돌

이라고 하는 여성 무당을 만나게 되죠. 그 함흥에서 24살의 손진태는 김쌍돌이라고 하는 함흥을 대표 하는 여성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김쌍돌이는 이 조사의 취지를 잘 몰랐고 그다음에 굿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젊은이 앞에서 무속 신화를 구현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수차례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지한 설득을 통해서 마침내 그 김쌍돌이 무당이 손진태 앞에서 입을 열죠.

그때 손진태는 그 김쌍돌이가 구연하는 신화를 채록하고 열심히 채록을 합니다. 바로 이 손진태의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전승되어 왔으나 발견되지 않았던 한국의 창세 신화가 비로소 물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손진태 선생은 1930년에 일본에서 <조선 신가유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바로 이 책 속에 1930년에 발행된 이 책 속에 김쌍돌이가 구연했던 한국의 창세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 일이죠. 이걸 우리는 김쌍돌이 본 <창세가>의 탄생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있었지만 모르는 것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3. <창세가>의 내용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태 선생은 김쌍돌이의 구연하는 것을 받아 적을 때 가능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었죠. 이것은 당시 민속학의 태도이기도 했고요. 바로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료인데 오늘날 우리가 읽기는 쉽지 않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한즉” 그러니까 천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와 동시에 미륵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같이 태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 미륵님과 천지는 창세신과 이 세상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처음 생긴 하늘과 땅은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열려 있어야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많은 존재들이 살아갈 터인데 하늘과 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전 세계의 많은 창조 신화 속에서 태초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거나 아니면 그냥 큰 바다와 같은 것만 있었다거나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는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를 전 세계 창조 신화는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창세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붙어 있잖아, 붙어 있었어요. 따라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붙어있는 하늘과 땅을 떨어뜨려서 밀어 올려가지고 여는 것 이게 창조의 첫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한국말로 천지개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벽을 하는가 하면 미륵님이 여기에는 이 신화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하늘과 땅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붙지 않도록 다시 붙지 않도록 사방에 기둥을 세우죠. 그게 구리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늘은 북개 꼭지처럼 도드라지고” 하늘은 마치 솔 솔 가마솔의 꼭지처럼 툭 튀어나와 있고 땅에는 사방에 구리 기둥을 세웠다. 이 최초의 창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이 2개씩 등장을 합니다. 이 진술 속에서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두 개씩 있다는 그 상황만 제시할 뿐이죠. 그 과정에서 이 둘 있는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서 창조신인 미륵님이 별로 만드는 단계가 다음 단계입니다. “달 하나 떼어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을 마련하고” 마련했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뜻이니까 크리에이트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해 하나는 떼어내서 큰 별을 만들고 작은 별은 백성들의 별, 큰 별은 임금과 신하들의 별 이미 이 노래 속에 어떤 신분 질서 같은 것들도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륵님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보니까 내가 옷이 없네 옷이 없네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겠네 학자들은 이 대목을 문화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로 옷을 만들까 이산저산 넘어가고 뺏어나가는 칩 칩을 파내어서 칩을 베어내고 삶아내고 익혀서 그다음에 그거를 옷감으로 짜야 옷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전통사회에서 한국 전통사회에서 그것은 베틀로 옷감을 짰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베틀을 걸어놓고 구름 속에다가 잉아를 걸고 베를 짤 때 베틀에 세로로 굵게 걸어놓는 줄이 잉아 줄인데 그거를 구름 속에다가 걸었다고 하니까 그 베틀의 크기가 하늘과 땅만큼 컸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은 그 베를 짜는 장면 “들고 팡팡 놓고 팡팡”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고요.

그래서 베를 짜서 칩으로 장삼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장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드라마 속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길게 코트처럼 롱코트처럼 입는 옷이 장삼인데 바로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저기에 지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개는 옷의 길이를 짤 때 옷의 크기를 짤 때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 사이의 거리를 지개라고 합니다. 그 지개를 전필 전필이면 한 필이라는 뜻인데요. 한 필은 오늘날의 그 길이로 바꾸면 한 28m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이즈 자체 정확한 사이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필로 옷의 지개를 만들 정도로 창세신인 미륵님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는 거죠. 전 세계 창세 신화, 창조 신화들을 보면 창조신의 이미지는 자이언트 거인으로 등장합니다. 한국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옷을 해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고깔을 썼습니다. 고깔. 고깔. 고깔은 한국식 모자인데요. 모자 그 고깔은 보통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시주를 하거나 또는 오늘날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이 고깔입니다. 근데 이 창세신도 고깔을 썼는데 그 고깔의 크기도 엄청나게 컸다. 그게 이제 다음 부분의 진술입니다. 석자 세치를 옷감을 떼어내서 고깔을 만드니까 비로소 이제 턱까지 내려올 정도로 내려올 정도의 크기가 되었다. 미륵님은 엄청나게 큰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륵님의 식성에 대한 얘기가 다음에 진술되고 있습니다. “미륵님의 세월에는 생화식을 잡수시와 불 아니 넣고 생날알 잡수시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생화식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생식이면 생식이고 화식이면 화식이죠 생화식이라는 말은 아주 틀린 표현입니다. 생식은 날것 그대로 먹는 것이고요. 화식은 밥을 불을 피워서 밥을 해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미륵님이 살던 세상 미륵님이 다스리던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 불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 생식을 했다는 것인데 그 무당이 잘못 표현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미륵님이 엄청나게 큰 신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한 섬, 두 섬 섬두리로 먹고 말두리로 먹고 섬이나 말은 전부 다 무게 또는 사이즈의, 크기의 단위 도량형 단위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많은 양이죠. 그래서 생식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생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먹고 살지 못하겠다. 불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하려면 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과 불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다음 단계의 창조 창세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륵님이 세계를 창조한 창세신으로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신은 물과 불을 만든 신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과 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과 불을 그래서 찾아야 되겠는데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동물들의 도움을 얻는 단계가 다음에 펼쳐지죠. 제일 처음에는 메뚜기를 잡습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스승틀이라고 돼 있는데 그 형틀이라고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고 무릎을 때리면서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 거죠. 물과 불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밤이면 이슬을 먹고 낮이면 햇살을 받아먹고 사는 나 같은 짐승이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뭘까 메뚜기를 형틀에 올려놓고 이렇게 신문을 한다는 상황이 흥미로운데요. 이런 장면은 이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뭘가 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요즘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과거에 농촌에 살 때 보면 메뚜기들이 벼밭에 아주 많은데 나락밭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들을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요. 그 노는 과정에서 메뚜기들의 발을 이렇게 메뚜기 다리의 절단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끝만 붙잡고 있으면 메뚜기가 끄떡끄떡하면서 마치 춤을 추거나 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돼요. 그게 이제 재미있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자연에 대한 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런 장면이 이 무가 이 창세 신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메뚜기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한테 묻습니다. 개구리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나보다 이 세상을 더 먼저 본 동물이 있는데 그게 새앙쥐 생쥐 쥐한테 물어봐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미륵님이 쥐를 잡아가지고 다시 신문을 합니다. 물과 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쥐가 미륵님이라고 하는 창세신한테 말하자면 일종의 빅딜이죠 이런 걸 빅딜을 합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미륵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천하의 뒤주를 차지해라. 천하의 뒤주를 차지하라는 말은 뒤주라는 것은 쌀독을 말합니다. 쌀통 쌀을 담아놓는 통. 그거를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뭘가 하면 쌀 창고가 있고 쌀통이 있으면 과거에 이 농촌 사회에서 쥐들이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쌀통이나 그다음에 쌀을 이렇게 담아놓은 자

루 또는 가마니 같은 것을 입으로 잡아내고 그 속에서 쌀을 빼냅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면 이해가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쥐가 무슨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산에 들어가 있죠. 금덩 산은 어떤 산인지 알 수 없는 상상의 산입니다. 내가 들어갔더니 한쪽에 돌 차돌 돌이 있고 한쪽에 쇠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부딪치니까 툭툭 치니까 불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오늘날도 불을 피울 때 야전에서 들에서 불을 피울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또 소하산이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 소하산 샘에서 물이 솔솔 나오는 걸 보니까 저기가 물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쥐가 대답을 합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물과 불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걸 생쥐만 알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문화에서 생쥐는 쥐는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은 뭔가 하면 생쥐는 쥐는 일종의 그 지혜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12개의 띠 동물 띠 동물이 있는데 띠 동물 12개의 동물들이 각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이야기 가운데 보면 옛날에 신이 옥황상제가 그 동물들을 달리기 시합을 해서 그 띠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데 그 달리기를 하면서 이 쥐는 황소 소의 머리 위에 머리뿔을 붙잡고 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선에서 폴짝 뛰어내려 가지고 1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십이간지라고 하는 띠 동물의 맨 앞에 쥐띠가 맨 앞에 옵니다. 바로 이런 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중국의 오행 사상에서 보면 쥐는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륵님은 다른 동물이 아닌 쥐한테서 바로 물과 불의 근원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과 불의 근원을 알아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을 말해보자라고 하면서 인간 창조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창조 과정의 다음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창조 신화 창세 신화를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형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성서> <제네시스>에 나오고 있는 야훼가 태초에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을 만들고 아담으로부터 이브라고 하는 여성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데 한국 <창세가>의 인간 창조 과정은 좀 다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미륵님이 쟁반이죠 쟁반 쟁반은 큰 접시 같은 걸 말하는데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쟁반을 양손에다가 이렇게 받쳐 들고 하늘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집니다. 금쟁반에 5마리, 은쟁반에 5마리 그 쟁반에 떨어진 각각 5마리의 벌레들 모두 10마리의 벌레들이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인간으로 변신을 합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벌레에서 변신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각각 성장해서 그들이 짝을 맺습니다 부부를. 다시 말하면 태초의 다섯 커플이 이 세상에 등장한 거죠. 한국 <창세가>에 따르면 온 세계 사람들은 바로 이 태초의 다섯 커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 세상이 어떠했느냐 하는 부분이 다음의 진술입니다.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미륵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미륵님이 세상

을 다스릴 때는 사람들이 섬두리, 말두리로 잡숫고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대식을 잘 먹고 인간 세상이 아주 태평하고 평화로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태평한 인간 세상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갑작스럽게 낮선 신이 등장을 합니다. 석가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김쌍돌이의 <창세가>에는 그 석가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등장한 석가님이 등장을 해서 미륵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서 이 세상을 인간 세상을 뺏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님이 아니다 아직 네 세상이 아니다 아직은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 사이에 대립이 벌어집니다. 미륵, 석가님은 계속해서 네 세상은 다 갔다 이제 내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어디 동네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또는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여기는 여기는 내가 왕이다 여기는 내가 대장이다 하고 서로 싸우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두 신이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결판을 내기 위해서 두 신이 내기를 합니다 내기. 말하자면 게임을 하는 거죠. 시합을 시합이라고 한국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 김쌍돌이 <창세가>에는 그 경기 시합의 종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종목으로 경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태초의 올림픽 경기 세 가지 종목의 올림픽 경기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뭔가 하면 동해 바다 한국의 동해 바다가 있고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는데 바로 동해 바다 이 <창세가>가 불린 지역이 함경도 북한, 오늘날 북한 지역에 있는 함경도 함흥이죠. 함흥이 바로 해안도시입니다. 바로 그 함흥 앞바다가 동해 바다죠. 그 동해 바다에 금병 금으로 만든 병에 금으로 만든 줄을 달아서 물속으로 드리웁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든 병에 은줄을 달아서 물속으로 드리웁니다. 미륵님은 금병, 석가님은 은병으로 물속에 드리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내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의 줄이 끊어지는가 줄이 끊어지면 지는 겁니다. 먼저 끊어진 줄이 끊어지는 쪽이 지는 거죠. 당연하게도 석가님의 줄이 끊어집니다. 석가님 쪽이 1패 미륵님 쪽이 1승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석가님이 패했으면 당연히 미안하다 하고 물러나야 될 텐데 이 석가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게임을 다시 하자 다른 내기를 하자라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 전에 이 내기의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낯선 문화적 장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함축하고 있는 문화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바다에서 하는 곳 가운데 수망굿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는 당연히 바다고 이 해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민으로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바닷일을 많이 하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배가 파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바다에 빠지면 시신을 건지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에 무당들이 동해안 지역의 무당들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찾는 그런 곳을 합니다. 그 곳을 수망굿이라고 해요. 수망이라는 것은 물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영혼이라도 건져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병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바다 속에 끌어내렸다가 다

시 끌어올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무당들이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창세가>의 첫 번째 내기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렸던 줄이 줄이 올라오는 도중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할 수 없죠.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무당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무당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도 능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죠. 따라서 이 내기에서 줄이 끊어진 쪽이 당연히 지는 것이죠.

두 번째 내기는 뭐냐 성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함흥평야로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여름에 한 여름에 강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느냐 한여름에 강물을 누가 얼어붙게 만드느냐 이런 어떤 내기를 벌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말하자면 주술을 어떤 매직을 두 신이 보여주는가 하면 미륵님은 동지채, 석가님은 입춘채를 하늘에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가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계절 변화 가운데 입춘이라는 것은 봄이 온다는 뜻이고 동지는 이제 아주 겨울이 한겨울에 이르렀다는 거죠. 한국의 동지 때는 대개 팔죽을 먹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동지 때는 물이 팡팡 열고 강물이 팡팡 열고 입춘이 되면 강물이 녹아요. 그런데 강물을 얼리겠다고 석가님이 입춘의 곳을 하늘에 올리면 이것은 얼었던 물도 녹게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물이 얼어붙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륵님처럼 동지 곳을 하늘에 올려야 되는 거죠. 미륵님이 강을 얼어붙게 만들고 따라서 미륵님 승, 석가님 패 두 번째 내기에서도 석가님이 진 거죠.

이 얘기는 미륵님이나 석가님 미륵님은 세계를 만드는 창조신이죠. 창조신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계절을 시간과 공간 계절을 컨트롤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창조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석가님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내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벌써 졌어요. 석가님은 다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 세 번째 내기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내기는 뭐냐 이것은 두 신이 방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꽃을 피워내는 내기입니다. 무릎에서 꽃이 피는 거죠. 석가님이 또 한 번 더 하자 “너와 내가 한 방에 누워서 모란꽃이 모락모락 피어서 내 무릎에 올라오면 내 세월이오 네 무릎에 올라오면 네 세월이라”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고 둘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있는 대로 석가님은 도둑놈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합니다. 미륵님은 쿵쿵 폭 깊은 숙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숙면에 빠진 미륵님의 무릎에서 모란꽃이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그 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석가님이 자는 척하면서 결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모란꽃을 꺾어서 자기 무릎에다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꽃을 피웠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말하자면 이 마지막 게임에서 석가님이 더 이상 이길 수 없으니까 반칙을 저지르는 거죠 반칙을.

그렇다면 이 창세 올림픽에서 진 쪽은 석가님이요 이긴 쪽은 미륵님이에요. 따라서 미륵님이 계속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석가님은 다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자기 무릎에 핀 꽃을 석가님이 꺾은 것을 알아차리고 미륵님이 일어나서 석가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내 무릎에 꽃이 피었는 것을 네 무릎에 꺾어서 꺾었으니 바로 그 꽃은 한 번 피어서 열흘이 못 간다.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리고 심지어 10년을 못 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저주의 말을 미륵님이 퍼붓고 어떻게 선언을 하는가 하면 미륵님이 석가가 너무 싫어서 성화를 받는 것이 너무 성가셔서 아예 그러면 이 세상을 석가님한테 쥐버리자 하고 미륵님은 석가님한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고 떠나버립니다. 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 세상을 한국말로 이승이라고 하죠. 이승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집집마다 숯대가 서고 기생 나고 과부 나고 무당 나고 역적 나고 백정 나. 이런 말을 퍼붓습니다. 숯대라는 것은 그 무당의 집에서 있는 일종의 하늘과 땅의 말하자면 일종의 메신저 같은 그런 깃대 또는 그 위에 오리가 올라와 있는 그런 어떤 나무 어떤 표식인데 그것은 바로 그 숯대가 있는 곳은 무당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창세가> 속에는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천대 받던 문화가 반영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기생, 집에서 무당이 난다는 말은 그 집안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기생이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부가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잡는 백정이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반역하는 역적이 난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륵님이 남기는 이 세상에 남기는 석가님한테 남기는 저주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뒤에 또 네 세월이 되면 합들이, 치들이 나고 이것은 말하자면 신체 불구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네 세월이 되면 3천 명의 중 일천거사가 난다. 네가 다스리는 그 세상 석가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수없이 많은 중들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한다. 그리고 바로 말세가 된다. 아주 이상한 표현이죠. 아주 이상한 표현. 석가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말세인데 그 말세의 말하자면 징후가 중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부, 기생, 역적 이런 존재가 세상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뒤에 이어지는데 그러던 3일 만에 어떤 3일 만인가 하면 미륵님과 석가님이 체인지가 되고 석가님은 이승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남고 미륵님은 이 창세가에는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승으로 떠나버리고 그 떠나버린 지 3일 만에 3천 명의 중과 1천 명의 거사 거사라는 것은 재가 불자라고 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그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그런 신자들을 거사라고 하죠. 그 무수한 그 불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미륵님(*석가님)을 따라나서요. 거기 보면 나와서 “미륵님이 그적에 도망해야 석가님이 중이랑 다리고 찾아 떠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말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맥락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륵님이 도망을 쳤다는 거죠. 저승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석가님이 석가님이 그 도망간 미륵님을 찾으러 가는데 그 석가님 뒤에 3천 명의 중과 1천 명의 거사들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 이승을 버리고 저승으로 미륵님이 갔으면 그만이지 왜 그 미륵님을 석가님은 찾아서 또 쫓아가느냐 이 김쌍돌이가 구연한 이 <창세가>에는 빠진 대목이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김쌍돌이가 그것을 빠뜨렸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빠진 대목은 뭔가 하면 미륵님이 저승으로 갈 때 해와 달을 자기의 품속에 안고 도망을 가버려요. 저승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은 캄캄해졌다는 얘기죠. 석가님이 미륵님으로부터 이승을 넘겨받아서 이승의 통치자로서 폼을 좀 내려고 했는데 해와 달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인간들이 원망하겠죠. 당연히 해와 달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해와 달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저승으로 미륵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3천 명의 중과 1천 명의 거사들이 뒤를 쫓았다는 거죠.

우리들이 많으니까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중에 가니까 노루와 사슴이 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꼬챙이를 꼬지를 만들어서 나무를 꺾어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먹는 장면이 그다음 장면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괴한 장면입니다. 기괴한 장면이에요. 석가님의 뒤를 따라서 중들이 거대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사슴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혹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모독적인 장면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왜 그럴까 그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두 명의 중이 별떡 일어나서 고기를 집어던지면서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성인이 되겠다 세인트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두 명의 중이 죽어서 산마다 있는 바위가 되고 산마다 있는 소나무가 되었다. 이런 진술이 그다음에 벌어집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빠진 장면이 있는데 성인이 되겠다 고기를 버리고 성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니 다른 중들과 거사들은 다 석가님을 따라서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들어갔는데 이 둘만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와 소나무로 변신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에 소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데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봄이 되면 사람들이 “새앵미 녹음에”라는 것은 상향미 녹음이라고 그래서 산에서 굿을 할 때나 제사를 드릴 때 준비해서 가는 음식들을 말합니다. 곡식들 곡물들 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걸 잘 제사 음식을 잘 차려서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화전놀이 꽃을 꽃으로 전을 부쳐 먹으면 놀이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낸다. 이런 내용으로써 갑자기 김쌍돌이 본 <창세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4. 미륵님과 석가님의 대결과 그 의미

이 김쌍돌이 본 <창세가>가 말하고 있는 창세 신화에 숨어 있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쌍돌이 본 <창세가>를 통해서 한국 창세 신화의 내용이 어떤 건지 대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그 <창세가>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신화적 의미 이것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자료에서 읽어봤지만 핵심적인 게 미륵님과 석가님이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 세상을 차지하고 싸움의 결과 미륵님은 이승을 떠나고 석가님이 이승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신화적 대결의 과정으로 인간 창조 이후가 벌어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결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미륵님과 석가님은 과연 누군

가. 이 미륵님과 석가님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가.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나쁜 놈으로 생각이 되는 석가님이 이기는가. 세 번째 왜 미륵님하고 석가님은 누구나 잘 알겠지만 이걸 불교와 관련돼 있죠. 불교의 붓다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붓다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악신 사기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두 명의 중이 그러니까 고기를 땅에 집어 던지면서 성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두 명의 중은 왜 갑자기 바위와 소나무로 변신했다고 <창세가>는 노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석가님과 미륵님의 대결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죠. 불교의 전파와 수용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꽃피우기 내기 신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륵님과 석가님이 세 가지 종목으로 내기를 하죠. 그 내기 가운데 세 번째가 꽃피우기 자면서 꽃 피우기죠 사실은 세 가지 종목 가운데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그 마지막 종목이 꽃피우기 내기인데 그 꽃피우기 내기의 신화소를 의미를 풀어야 미륵님과 석가님의 대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라시아 신화의 공통성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화의 세계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이 대륙 여기에는 무수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죠. 이 지역은 신화나 민담을 이 지역의 신화와 민담을 보면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성이 보편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신화는 유라시아 신화와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공통성의 지반 위에서 이 문제를 살펴야 해석을 적절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가운데서 중앙아시아 지역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문제입니다. 작품 속에 미륵님과 석가님이 등장하니까 이걸 당연히 불교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불교가 한국의 고대 사회에 전파되기 전에 미륵님과 석가님이 싸우는 것 같은 신들의 경쟁과 경쟁을 통한 세계 창조 이런 신화들이 한국 문화 속에 없었을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형되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미륵님과 석가님 뒤에 넘자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미륵과 석가 미륵불 석가모니불은 불교에서 온 것입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의 불상 문화 속에서 미륵님은 보통 대개 머리에 저렇게 모자를 쓰는 형태로 특이하게 표현이 됩니다. 석가님은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종종 자주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런데 뭐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이걸 북진 불교 북쪽으로 전해진 불교라고 하고 불교의 형태 가운데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 가운데서도 특히 불교의 종파 가운데서도 창세 신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미륵 신앙입니다. 미륵신앙. 미륵하생 신앙이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어져 있던 삼국 시대에 대단히 유

행을 했습니다. 그 유행은 고려 시대에도 지속되었고요. 바로 그 미륵하생 신앙의 사회적 유행이 아주 착한 좋은 선한 미륵님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 속에 나오는 한국의 국보인데요. 내셔널 트레저라고 해서 국보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한국의 서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서산 지역의 마애삼존불이라고 하는 불상입니다. 바위에다가 바위를 깎아서 바위 면에다가 세 분의 불상을 새겨놓은 거죠.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의 미학자들은 저 것을 백제의 웃음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 세 분의 부처님 가운데 화면에 보기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저 분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저 불상이 바위에 새겨진 것은 대개 한 6세기경으로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6세기 무렵 5세기, 6세기 무렵에는 백제 지역에 미륵 신앙이 널리 유행했다는 뜻이죠.

백제는 바다 건너 중국으로부터 특히 양나라 지역으로부터 저 미륵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 백제의 것이 신라로 들어갑니다. 신라에 들어가서 저렇게 역시 국보에 해당하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상을 받게 되죠. 저거 역시도 6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신라의 불상입니다. 고구려도 이런 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불상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무덤 속에서 나온 불상입니다. 저 불상이 만들어진 주조된 시기도 대개 6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개 5세기에서 6세기 무렵이 되면 고구려, 신라, 백제 사회의 사회에 미륵 신앙이 다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미륵 신앙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 미륵불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미륵불에 대해서 좀 아세요? 미륵불은 모든 중생들이 다 말하자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내가 중생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륵은 보살이라고 부르지 부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미륵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면 언제 올지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데 사실은 불교적 시간으로는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까마득한 시간이 지난 뒤에 언젠가 이 세상에 미륵님이 하생 내려오면 이 세상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주 태평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세계관이 미륵하생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륵하생경>에 표현된 대로 미륵님이 있는 세상은 기후가 아주 알맞고 사철이 계절이 순조로워서 온갖 질병이 없고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이런 것도 없고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도 다 없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평화롭게 산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런 세상이죠. 바로 그런 세상이 미륵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미륵이 이 땅에 오면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세상인가 하면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몸 크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소변을 똬 볼 때 땅이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땅이 닫혀. 오늘날 자동화된 배변 시스템처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쌀은 심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고 온갖 보석들이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도 않는 그런 태평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미륵하생경>을 좀 더 보면 그런 세상에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데 보면 그때 사람들은 수명이 아주 길어서 병을 앓는 일이 없고 8만 4천 년을 산다 여자들은 500살이 되어야 시집을 간다 우리가 모두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이 미륵이 강림한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교의 미륵 신앙을 기독

교회 예수의 제립 신앙 이런 것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어떤 사람들이 이 미륵이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릴까요? 답은 간단하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립하고 있던 이 시기는 신라가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는 일반 하층민들 백성들이 고생을 하죠. 식량을 빼앗기고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야 되고 수난의 시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륵이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기원했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신라가 안정한 사회가 될 때는 미륵 신앙이 뒤로 후퇴를 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화엄 신앙이 화엄 신앙이 경주의 불국사와 경주의 불국사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화엄 신앙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미륵 신앙은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신라 사회가 끝을 보이고 신라가 망해가면서 다시 후삼국 시대라고 해서 왕건, 궁예, 견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서로 다투는 전쟁의 시기가 다시 도래하죠. 그 시기에 다시 또 미륵 신앙이 주류가 되어서 전면으로 등장을 하죠.

바로 궁예라고 하는 인물 왕건과 경쟁을 했던 궁예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런 어떤 민중들의 이런 하층민들의 신앙을 자기에 대한 지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궁예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내려온 미륵불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 모았던 역사적 과정도 있었을 정도로 미륵 신앙은 삶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기대는 신앙의 체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불교 이전에 불교 이전에 말하자면 무속 샤머니즘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불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불교가 왕권과 결합하면서 삼국 사회의 중심이 되죠. 그러면서 샤머니즘 무속은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샤머니즘도 살아 남기 위해서 불교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신들을 받아들이고 불교의 이야기들도 수용을 하고 불교의 여러 가지 불교적인 의례 의례 과정들도 배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 과정에서 미륵님이나 석가님과 같은 불교의 신들도 샤머니즘 속으로 들어오죠. 그 과정에서 김쌍돌이가 불렀던 <창세가>와 같은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무당이 무당이 미륵님하고 석가님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명의 신들을 받아들일 때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하층 백성들 고통에 빠진 백성들과 가까운 미륵님 바로 그 미륵님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삼국 사회 고려 사회가 되면 상층은 다 불교 쪽으로 가고 그야말로 하층 백성들은 샤머니즘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신 미륵님과 석가님 가운데 더 좋아하는 신인 미륵님을 샤머니즘이 끌어들이면서 그 미륵님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불교의 창시인 석가님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 부디즘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집단적인 의식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꽃 피우기 내기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피우기 내기가 문제적인 것은 이 꽃피우기 내기라는 신화소 신화소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화학에서 씁니다. 신화

소가 지금 함경도에서 조사된 김쌍돌이의 <창세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같은 신화소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의미가 뭔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함경도 그다음에 제주도 제주도 그 다음에 일본의 과거에 류큐 왕국이 있었던 오키나와 지역 그다음에 몽골 지역 그 다음에 몽골과 가까운 중국의 북부 지역 그다음에 중국과 접경인 베트남 지역 이런 쪽에서 이 꽃 피우기 내기 신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륵님과 석가님이라고 하는 불교의 신들이 나오면서 꽃 피우기 내기를 하는 신화소는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어느 지역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김쌍놀이 본 <창세가>를 살폈으니까 그것과 어떤 비슷한 점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몽골 신화에 이런 몽골 구전 신화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치르바니 보르항, 차강 슈헤르트라고 하는 두 신이 나옵니다. 이 오치르바니 보르항은 바로 금강불이라고 하는 불교의 신입니다. 두 신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시 경쟁을 합니다. 몽골 신화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이 몽골 신화의 후반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오치르바니 보르항과 차강 슈헤르트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둘이 싸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리저 말고 우리 둘이서 그릇에 물을 붓고 누구의 그릇에서 꽃이 피어나는가를 보고 그쪽이 이 세상 주인 노릇을 하도록 하자.” 김쌍돌이 본 <창세가>에 등장하는 내기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은 그 꽃을 그릇에 물을 붓고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차강 슈헤르트가 한쪽 눈만 뜨고 자는 체하다가 오치르바니 보르항의 그릇에 핀 꽃을 자기 그릇에 몰래 옮겨놓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석가님이 미륵님의 무릎에 핀 꽃을 꺾어다가 자기 무릎에다 꽃는 장면하고 아주 유사하죠. 약간씩 변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장면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똑같은데요. 오치르바니 보르항이 사기를 친 차강 슈헤르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치르바니 보르항은 금강불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김쌍돌이 본 <창세가>에서는 저승으로 가렸죠. 여기는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왜 몽골의 이 신화와 함경도의 이 신화가 신화소가 이렇게 유사할까 당연히 그런 질문 그런 의문들이 수밖에 없죠. 몽골 사회의 몽골 지역 그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 몽골 사회의 사회에 불교가 전파되고 확산된 시기는 한반도 지역 삼국사회에 불교가 전파된 시기보다 거의 천 년 정도 떨어져 있는 뒤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화학의 과제 가운데 하나죠.

자 멀리 바다 건너 오키나와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죠. 여기서도 지금 오키나와의 경우는 정말 미륵불 석가불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잠을 잘 때 베개 밑에 꽃병을 두고 꽃병에서 꽃이 빨리 피는 쪽이 이겼다고 하고 이긴 쪽이 세상을 차지하자 이렇게 내기를 하죠. 당연히 한밤중에 석가가 눈을 떠보니 자

기 꽃병에 꽃이 피지 않았는데 미륵의 꽃병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몰래 꽃을 꽃병을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석가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미륵은 할 수 없이 불씨를 가지고 용궁으로 떠나버립니다. 마치 해와 달을 가지고 미륵님이 저승으로 가버린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석가가 꽃병을 훔쳤기 때문에 세상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이 나오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미륵님은 정직했기 때문에 즐겁게 살았다.”

바로 이 떠난 용궁으로 떠난 오키나와의 미륵님이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이 미륵님으로 미루쿠신이라고 분장을 한 이런 신을 맞이하는 이런 축제를 오키나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신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키워드를 해석을 해야 미륵님과 석가님의 대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키워드들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학자들이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바야시 다료우나 요다 치즈코 같은 일본 학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데 이들의 관점은 이걸 불교의 영향이다 누구나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다 치즈코 같은 학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의 꽃 피우기 경쟁 모티프는 확실히 불교 설화 그것도 필시 북전 불교의 영향일 것이다. 본래 두 신에 의해서 우주가 평행 창조되는 토착 신화의 토양 위에 구조가 유사하고 더 흥미로운 불교 설화가 들어와서 기존 신화를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주가 평행 창조된다는 것은 두 명의 신이 대개 두 명은 트윈 쌍둥입니다. 두 명의 신이 세계를 함께 창조하는 과정을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런 어떤 토착적인 신화가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더 흥미로운 불교 설화가 대체했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제시를 한 거죠. 사실은 완전히 대체 대체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부가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데 일본 학자들은 일찍이 이런 견해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조선의 왕권과 신화 전승> 이런 책에서 이런 견해를 보인 바가 있죠.

이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미륵님과 석가님이 경쟁관계 둘이 싸우는 한쪽은 선한 신 한쪽은 착한 신, 악한 신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 미륵님과 석가님의 이런 이미지가 인도나 불경 속에 있는가 하고 인도 학자인 심재관이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미륵과 석가가 형제 간 그다음에 사제 간 또 다양한 관계로 나오지만 이들이 다 우호적인 관계로 나오고 둘이 싸우거나 경쟁하는 관계로 등장하는 인도의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인도의 어떤 경전들 속에 등장하는 미륵과 석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의 토양 위에서 완전히 다른 주제 주제가 바뀌면서 둘이 경쟁하는 주제로 변형되면서 미륵과 석가가 싸우는 이야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심재관 선생은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심재관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명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 이런 책을 나도 참여해서 함께 펼친 펴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자면 이런 견해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김헌선 선생은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이런 미륵과 석가의 경

쟁담과 같은 창세 신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4개 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하자면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이 형성되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 그간의 한국 학자들도 그렇고 주목하지 못한 하나의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화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면 지금 러시아 접경 이 지역에 알타이 산맥,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알타이 산맥 지역에 과거에 알타이 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있었고 지금도 소수의 알타이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알타이 신화 속에 울겐과 에를릭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 신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울겐과 에를릭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겐은 창조신입니다. 에를릭은 울겐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이면서 동시에 아주 시기심이 많은 형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울겐과 에를릭의 관계는 뒤바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두 명은 쌍둥이고 또 한쪽이 먼저 만들고 한쪽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형제로 등장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갈등을 일으켜서 울겐과 갈등을 일으켜서 에를릭은 지하로 추방된 존재이고 그래서 지하에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승 세계죠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악한 신이 바로 에를릭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에를릭은 악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를릭은 울겐이 만든 인간에게 울겐이 이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면 거기다가 영혼을 불어넣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동하는 협업을 하는 또 다른 창조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간에게 쇠를 두드리는 기술 다시 말해서 제련 기술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대장장이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가르쳐준 기술의 신이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악기를 발명해서 전해준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술 즉 샤머니즘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기술이잖아요. 바로 이런 기술들을 인간에게 가르쳐준 존재가 에를릭이기도 합니다. 에를릭은 부정한 신인데 창조에 동참하고 부정한 신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 문화를 전해준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알타이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들 알타이 울겐과 에를릭에 관한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 보니까 이런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울겐과 에를릭은 함께 사람을 만듭니다. 울겐이 주술로 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금과 은그릇에 꽃을 피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금그릇과 은그릇에 파란 꽃을 피게 하는 기술이 사람을 만드는 기술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에를릭이 보고 형인 에를릭이 보고 와 저 꽃을 내가 훔치면 나도 사람을 만들겠네 그래서 꽃을 훔쳐서 다른 사람을 에를릭도 만듭니다. 자 거기에서 화가 난 울겐이 에를릭이 만든 사람은 시커먼 사람이 되어서 너는 서쪽에 살고 자기가 만든 사람은 하얀 사람이 되어서 동쪽에 살 것이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시커먼 사람은 가죽으로 복을 만들어서 인간 세상 땅에 내려와서 무당의 기원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덧붙입니다. 이 이야기 이 신화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꽃이라는 거죠 꽃. 꽃을 통해서 사람을 만든다 꽃을 피운다 꽃을 피워서

뭔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꽃 피우기 모티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 창세 과정 창조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륵님과 석가님의 꽃 피우기 경쟁담하고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에를릭의 측면, 울젠의 측면 둘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울젠이 선신이라면 에를릭은 악신입니다. 울젠이 한국 신화에서 미륵님 쪽이라면 에를릭은 석가님 쪽인 셈이죠. 자 이 알타이 창조 신화의 울젠과 에를릭이라는 쌍둥이 신의 관계와 그들의 신화 신화소가 김쌍돌이 본 <창세가>의 미륵님, 석가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제주도로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별왕 소별왕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대별왕 소별왕 함경도 지역 제주도에 아주 멀리 떨어진 함경도 지역에서 김쌍돌이라는 무당이 <창세가>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 속에 석가님 미륵님이라고 하는 두 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제주도라고 하는 섬에서 전승되고 있는 제주도의 창세 신화 속에 그와 아주 유사한 신화가 등장하는데 그 신화의 주인공들은 이름이 전혀 다릅니다. 대별왕 소별왕입니다. 그 신화의 제목이 <천지왕 본풀이>입니다. 제주도의 <천지왕 본풀이> 알타이 신화의 울젠과 에를릭의 창조 신화 함경도의 미륵님과 석가님의 경쟁담 이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져봅니다.

잠시 고전에 <천지왕 본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태초의 천지는 혼돈으로 뭉쳐져 있었어요. 아직 질서가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이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이 개혁이 되면서 해와 달이 생기고 물과 불이 생기고 일련의 세계 창조의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이 질서가 없어서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왕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어느 날 꿈을 꾸 뒤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총명부인이라는 여성을 배필로 맞이합니다. 이 총명 부인과의 결연을 통해서 두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이 대별왕과 소별왕입니다.

이 대별왕과 소별왕이 성장을 하면서 총명 부인하고 만난 이후에 천지왕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지상에는 총명 부인만 혼자 남아서 대별왕 소별왕을 낳아서 키웁니다. 이 대별왕 소별왕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느냐 하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늘을 떠나면서 하늘로 떠나면서 천지왕이 남겨두었던 박 씨를 심고 그 박씨에서 박 넝쿨이 하룻밤에 하늘로 뻗을 만큼 자라서 그 하늘로 뻗어 올라간 박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소별왕 대별왕 형제는 거기서 아버지인 천지왕을 만납니다.

그때 그 아버지인 천지왕이 두 형제한테 바로 인간 세상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욕심이 많은 동생 아우가 인간 세상 이승을 차지하려고 그랬죠. 서로 이승을 차지하려고 하니깐 결국은 내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기. 미륵님과 석가님이 내기를 하듯이 여기에서도 내기가 펼쳐지는데요. 내기의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기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내기의 마지막 종목은 역시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는 내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마음씨가 나쁜 욕심이 많은 동생 소별왕이 형이 피운 형이 피운 꽃을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바꿔치기를 한 뒤에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형인 대별왕은 소별왕인 동생에게 이승을 주고 자기는 저승으로 갑니다. 제주신화 <천지왕 본풀이>의 세계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천지왕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승을 다스리는 신은 소별왕, 저승을 다스리는 신은 대별왕. 이승과 저승 대별왕 소별왕의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주도 신화를 이야기할 때 이 관계가 다시 한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그렇죠. 소별왕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도덕과 불화와 간음이 성행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표현되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등장할 하죠. 아까 했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바로 제주도의 대별왕 소별왕의 신화, 함경도의 미륵님 석가님의 경쟁 신화, 중앙아시아의 울젠 에를릭의 신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질문은 다시 조금 전에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주도에 대별왕 소별왕이 등장하는 <천지왕 본풀이>라는 창세 신화가 있고 그와 유사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미륵님과 석가님의 대결이 나오는 함경도의 <창세가>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중앙아시아에 유사한 신화소를 간직한 울젠과 에를릭의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질문은 이 3자 사이에 세 가지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학자들도 이미 얘기했듯이 불교가 전승되기 전래되기 이전에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지역에는 쌍둥이 신의 경쟁을 통해서 세계가 창조되고 이승과 저승이 나뉘어지는 이런 창세 신화의 요소 신화소가 공존했다는 거죠 함께 있었다. 그것이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울젠과 에를릭의 이야기, 제주도에서는 대별왕 소별왕과 같은 이야기, 함경도에서는 미륵님과 석가님 관계와 같은 이런 이야기로 각 지역에서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전파되면서 함경도의 경우에 원래 대별왕 소별왕이 경쟁하고 있던 그 자리에 대별왕 소별왕이란 이름 대신 미륵님 석가님이라고 하는 불교의 신들이 그 대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불교의 영향을 통해서 미륵님 석가님으로 대별왕 소별왕과 같은 한반도 지역의 쌍둥이 신이 변형되면서 함경도 지역의 <창세가>는 제주도의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가 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말하게 되었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함경도 지역의 무속 샤머니즘이 불교에 대해서 갖는 태도 미륵님은 가까이 하고 석가님은 멀리하는 이런 태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효과까지 함경도의 <창세가>는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제기했던 미륵님과 석가님의 의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미륵님과 석가님이 누구인가, 왜 두 사람은 두 존재는 싸우는가 그리고 왜 악한 석가님이 승리하는가 그다음에 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붓다는 사기꾼 악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여

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체로 어떤 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왜 두 명의 중이 갑자기 바위 소나무로 변신하는가 그리고 변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한 건가 하면 이게 한국 신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이나 중국, 일본 오키나와, 한국 등등에 이 비슷한 신화소가 전승이 되고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데 몽골, 중국, 일본 자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요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 빨간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미륵의 말세에 대한 예언과 잠적 그리고 석가의 무리 가운데 두 중이 육식을 거부하고 바위와 소나무로 변신한 이 사건입니다. 이 바위와 소나무로 변신했다는 이 이야기는 몽골 자료, 중국 자료, 일본 자료 오키나와의 자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알타이 자료에도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창세 신화를 이해하려면 한국 창세 신화의 특징을 확인하려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위와 소나무로 중이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변신 변형이 된 거죠. 이 바위의 정체를 알려면 바위와 소나무의 정체를 알려면 석가님의 정체도 알아야 된다. 석가는 창세신인가 아닌가 아까 그 <창세가>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김쌍돌이의 <창세가>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약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석가님은 미륵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이지 않다가 미륵님이 창조한 세상을 갑자기 차지하려고 나타난 느닷없이 나타난 존재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석가님은 창조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창조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자 강춘옥이라고 하는 다른 함경도의 그 무당이 구연한 <생긔>이라고 <생긔> <생긔>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저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세인트라는 영어로 세인트(saint)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서인님이요 우리 피기 아이 먹겠소 서인질 하다가 부처님 되겠습니다. 아이 먹으니 석가님이 그것도 다 당신이 잡숫고 지튼 것으로 한 번 물어 수중에 뿌리시니 굶은 피기 자잔 피기 모든 피기 근본이 되어 건너갑니다. 또 한 번 물어 옥황에다가 뿌리시니 나는 짐승 청제비, 구제비, 두루미 날아오고 또 한 번 물어 팔만삼천에 뿌리시니 계는 뛰는 짐승 노루, 사슴, 늑대가 돼 갔습니다.” 뭐 이렇게 굿을 합니다.

함경도 지역 사투리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낯설 텐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까 김쌍돌이의 <창세가>에서 두 명의 중이 고기를 던지면서 성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첫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인 서인질 성인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부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중들도 선언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집어던져서 먹지 않습니다. 그때 그 중들이 던진 고기를 석가님이 그걸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는 먹어서 고기를 씹어서 하늘에 뿌리고 물에 뿌리고 들판에 뿌립니다. 그 뿌려진 것들이 하늘에 있는 새들, 물속에 있는 고기들, 들판에 있는 짐승들로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니까 이거 바로 석가의 석가님의 구체적인 창조 과정이죠. 이렇게 보면 석가님도 미륵님과 더불어 창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세신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알타이 신화에서 에를릭과 올겐이 협동으로 세계를 창조하듯이 미륵님과 석가님도 역시 같은 창조의 과정에 동참했던 두 명의 신, 쌍둥이 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석가님도 창세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 신화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두 중이 바위와 소나무로 변신한 그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제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미륵이 다스리는 세상은 태평한 세상이에요. 석가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말세예요.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해요. 둘은 대립 관계에 있죠. 그런데 둘이 영원히 그렇게 한쪽은 악하고 한쪽은 선한 대립 관계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미륵이 착하지만 착하지만은 않고 석가가 악하지만 석가가 악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이 창세 신화에 표현되어 있어요.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쌍둥이가 승패에 따라서 각각 이승과 저승을 나눠서 다스리죠. 그래서 동생인 소별왕이 다스리는 다스리는 이승은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승은 너무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별왕과 대별왕이 쌍둥이이듯이 미륵과 석가님 역시도 쌍둥이 관계고 한쪽이 완전히 악하고 한쪽이 완전히 악한 것이 선하고 한쪽이 완전히 악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조금씩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 그렇죠.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화 속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올겐과 에를릭의 관계에서도 에를릭은 악신이라고 하지만 악신이 인간들에게 문화를 선사한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석가님과 미륵님의 관계 소별왕과 대별왕의 관계를 보자는 것입니다.

5. 창세신들의 대결의 유래

한국의 태극기 아시죠? 태극기 저게 왜 태극기인가 하면 태극기의 가운데에 있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서로 맞물려서 운동하고 있는 저 형상을 태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 깃발의 이름을 태극기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저 말하자면 아이콘은 도교의 상징 도교의 아이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질베르 뒤랑이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신화학자죠. 이 신화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태극에서 대칭적으로 맞서고 있는 각각의 형상이 다른 쪽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두 개의 힘이 서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극의 형상을 보면 그 점이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의 운동 에너지 속에는 반대편의 운동 에너지가 이미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 한문 문화권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의 음양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바로 이 음양론이 이 한국의 창세 신화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 사실은 음양론이라고 하는 기호 체계는

신화에서 기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상호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양이라는 세계관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창세 신화 신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해석에 따라서 미륵과 석가의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두 명의 중이 육식을 거부하고 바위와 돌이 되는 바위와 소나무가 되는 과정을 거치죠. 자연물이 되는 과정이죠. 바로 그것은 미륵과 석가의 대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최종적 승리가 확정된 이후에 인간 세상은 석가가 차지하고 3천 명의 중과 1천 명의 거사로 상징되는 무수한 불도들이 세상을 차지해요. 말하자면 불교의 세상 석가의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면서 두 명의 중이 고기를 집어던지면서 성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죠. 반발을 하죠. 이탈자가 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왜 이탈했습니까? 왜 이들이 이탈했어요? 석가님이 불도들과 더불어 미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죠. 이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어떤 불교적인 종교관 세계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석가와 그 무리들의 형상은 부정적인 불교의 모습을 샤머니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불교의 오리지널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죠? 고기를 집어던진 두 명의 중이죠. 바로 그 이탈자들이 바로 진짜 불교의 붓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명의 이탈자들은 현실에 아주 부정적인 부정적인 세속화된 불교하고 맞서는 거죠. 그 불교에 역대응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응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거꾸로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중 두 명의 중은 원래 석가 안에 있던 무리였죠. 그러나 석가의 이탈자가 된다는 점에서 석가가 아니죠. 석가의 무리 속에 있었는데 석가가 아닌 존재 이게 바로 두 명의 중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위와 소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이 김쌍돌이 본 <창세가> 마지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두 명의 중이라는 이탈자들은 원래 석가의 무리 속에 존재하는 석가가 아닌 것 석가 무리의 바깥에 있는 외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음양론에서 미륵님을 양, 석가님을 음에 대응시킨다면 바로 두 명의 중은 음 안에 있던 양, 음의 운동 안에 존재하던 양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통해서 이 두 중의 형상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안에 마이너스의 힘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플러스의 힘이 있죠. 바로 이 운동의 양상이 창세 신화의 미륵과 석가님의 관계 나아가서 석가님을 부정하고 고기를 던졌던 두 중의 형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중의 변신인 변형인 바위와 소나무의 정체는 뭐냐 이 최종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몇 번 반복되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한쪽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운악산 미륵바위고요. 하나는 서울 근교에 있는 도봉산의 미륵바위입니다. 이 미륵바위 형상을 좀 보세요. 그냥 자연석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많이 한국 한국산천 어디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위들이 하필이면 미륵바위라고 이름 붙여졌을까

요. 이런 미륵바위들이 한반도에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산마다 아마 미륵바위가 없는 산은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미륵바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륵바위들은 심지어 절 안으로 사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양의 만어사라는 절에 가면 거대한 바위가 미륵바위로 불리면서 미륵바위 위에 불교의 절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을 미륵전이라고 해서 불당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안에 봉서산에 가면 저렇게 미륵바위라고 그래서 저런 숭배되는 바위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 들어오면 불상이 됩니다. 모자를 쓴 미륵불 거대한 바위가 불상으로 조성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 많습니다. 은진의 미륵불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안동 지역의 제비원 미륵불이라고 해서 거대한 바위 위에 머리를 얹어놓고 저거를 미륵불이라고 부르고 미륵 신앙의 의례들이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의 정체 그러면 왜 이 바위들이 미륵바위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위는 그 미륵불 미륵님의 인카네이션 미륵님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쌍돌이 본 <창세가>로 돌아가 보면 미륵님이 저승으로 떠났죠 석가님은 이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에 있는 석가님을 따르던 두 중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두 중이 고기를 잡아던지고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륵님 석가님을 따르지 않고 성인이 되겠다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석가님이 아니라 미륵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 두 중이 바위하고 소나무로 바뀌었다면 바로 그 바위와 소나무는 다름 아닌 미륵불의 미륵불이라는 상징적인 신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바위하고 소나무 가운데 훨씬 더 중요 핵심이 되는 것은 바위입니다. 미륵불로 불리는 한국의 도처에서 미륵바위로 불리는 바로 그 바위입니다. 그 바위 옆에는 소나무가 곁들여 있으니 이 신화 속에서는 바위와 소나무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륵바위라고 부르고 미륵바위 밑에 가서 기원을 하는 것은 어떤 미륵 신앙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 미륵 신앙의 지속이라는 것은 저승으로 떠난 태평한 세상을 상징하고 저승으로 떠난 미륵님이 다시 이 인간 세상에 현현해서 현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석가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 아주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원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위와 소나무로 그 두 중이 변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봄이면 봄이면 제물을 차려서 산에 올라가서 화전놀이를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대목은 바로 미륵불의 화신인 미륵 바위에 기원을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창세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김쌍돌이 본 <창세가>의 창조 과정에 표현되어 있는 신화적 세계 인식은 단순히 석가가 속임수를 써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사악한 것이 가득한 말세가 되었다는 그 신화의 표면적 의미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이야기의 그 심층에 흐르고 있는 논리적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어떤 무의

식적인 구조가 더 중요하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

인류와 세계를 창조한 미륵님이 다스리는 최초의 세상은 태평한 세상이었는데 그 내부에 말세의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바로 그 미륵이 아닌 바로 그런 요소 때문에 말세로 변형이 되었지만 말세의 근원인 석가의 내부에 있는 석가가 아닌 요소에 의해서 언젠가는 다시 태평한 세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 이걸 우리가 우리가 음양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세계관이 이 창세 신화에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대립이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창세 신화의 핵심은 영속적인 균형, 영속적인 어울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신화는 한국 창세 신화 우리가 김쌍돌이 본 <창세가>를 통해서 한국의 창조 신화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한국의 창세 신화는 세 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대립이 있었다. 태초에 협력이 있었다. 대립과 협력을 함께 보면 그 안에 영속적인 균형을 지향하는 태초의 어울림 그 어울림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부도지>의 기록은 책의 성격으로 인해 창세신화의 기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O/X)

O

정답: O

2. 김쌍돌이 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자료를 참조할 때, 한국 창세신화의 석가님은 창세신이라 할 수 있다. (O/X)

정답: O

3. 한국 창세신화에서는 몽골 신화와 같이 '꽃피우기' 경쟁의 신화소가 나타난다. (O/X)

정답: O

4. 한국 창세신화에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붓다(석가님)는 긍정적인 인물로서 묘사된다. (O/X)

정답: X

5. 미륵 형상의 조각 및 불상을 통해 대승불교의 전파와 미륵불생신앙의 유행을 알 수 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한국의 구전 창세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전 창세신화가 대다수지만, 문헌 기록으로 인정되는 창세신화 기록도 존재한다.
- ② 굿의 현장에서 전승되어 온 창세신화가 다수 있다.
- ③ 가장 일찍 조사 및 보고된 대표적 창세신화로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가 있다.

정답: ①

2. 다음 중 한국 창세신화에서 미륵님-석가님의 관계에 따른 두 중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중이 육식을 거부하고 자연물이 되는 과정은 미륵과 석가의 대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 ② 최종 승리의 확정 이후 출현한 두 이탈자의 존재는 현실 불교의 붓다를 상징하다는 점에서 현실 불교와 역대응(逆對應)한다.
- ③ 두 중(이탈자들)은 미륵의 무리였다가 이탈자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非미륵적 무리이면서 미륵 무리의 외부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3. 다음 중 한국 창세신화와 그 신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륵은 태평세(太平世), 석가는 말세(末世)에 대응되며, 양자는 대립 관계를 갖는다.
- ② 미륵과 석가는 이항 대립 상태를 분명히 유지하며, 이는 완전한 분절로서 묘사된다.
- ③ 미륵과 석가의 관계는 제주 <천지왕본풀이>의 소통하는 쌍둥이 신격의 관계와 닮아있다.

정답: ②

4. 다음 중 창세신화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과 오키나와의 창세신화에서는 모두 미륵/석가의 쌍신이 등장한다.
- ②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의 창세신화는 모두 쌍신의 경쟁 목적이 '인간세상의 차지'에 있다.
- ③ 중국과 일본의 창세신화에서는 승자가 석가이나, 한국의 신화에서는 미륵이 승자가 된다.

정답: ③

5. 다음 중 한국 창세신화의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석가가 경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악한 것이 가득한 말세가 되었다는 표면적 의미가 핵심이다.
- ② 음양의 전환과 그 인식에 근거하여, 양자의 지속적 대립이 아니라 영속적인 균형과 어울림을 지향한다는 신화적 세계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③ 서사의 심층에 흐르고 있는 무의식적 구조보다는 논리와 이치에 초점을 맞춰 신화를 대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한국 창세신화(창세가)에서 바위(소나무)의 정체는 ○○○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정답: 미륵님

2. 한국 창세신화에서 미륵과 석가의 관계는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 관계라 할 수 있다.

정답: 상보적

3. 한국 창세신화의 심층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태평세에서 말세(非미륵)로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언젠가는 다시 태평세(非석가)로의 구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적 세계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정답: 음양론

나. 토의(30분)

한국 창세신화의 구조와 의미, 그 기원과 역사적 변형에 대하여 토의한다.

다. 과제(60분)

〈창세가〉 외에 어떤 창세신화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 김쌍돌이 본 〈창세가〉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적인 논문을 써 본다.

〈제3강〉

한국의 홍수신화

학습 목표

1. 한국의 홍수신화의 두 유형인 남매혼 형과 목도령 형의 주제의식을 살펴본다.
2. 근친혼 금기를 중심으로 남매혼 홍수신화에 담긴 창조신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3. 창세신화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목도령 홍수신화를 이해한다.

강의 핵심 요약

한국의 홍수신화를 다루었다. 한국의 홍수신화는 남매혼 형과 목도령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홍수신화는 홍수의 원인에는 무관심하고 홍수 이후의 인류의 재창조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남매혼 형에서는 근친혼을 통해, 목도령 형에서는 인신혼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남매혼 홍수신화의 근친혼을 살펴보려면 <오이디푸스 신화>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오이디푸스는 근친혼 금지를 위반하여 징벌을 받는다. 반면에 남매혼 홍수신화에서는 금지의 위반이 징벌이 아닌 재창조로 이어진다. 근친혼 금지를 깨버린다는 점에서 코스모스로의 이행에 대한 반이행, 앙티오이디푸스의 정치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목도령 홍수신화에는 목도령과 친딸, 소년과 양딸이라는 두 쌍이 존재한다. 또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은혜를 갚는 동물 보은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특성은 목도령 홍수 신화가 미륵-석가에 의한 최초의 창세신화의 변형일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 창세신화에서처럼 음과 양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목도령 홍수신화는 홍수 이후에도 선과 악이 공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목도령 홍수신화가 선악의 유래를 묻는다면 남매혼 홍수신화는 선악의 구분하는 문화를 넘어 구분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 신화의 동질성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으면 재창조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홍수신화는 거부, 역행을 통해, 태초의 창조와 재창조의 대칭적 관계를 통해 세계가 존재한다는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 강의 내용 전문 ◆

도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주제는 한국의 홍수 신화입니다. 먼저 한국의 홍수 신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1. 한국 홍수신화의 유형
2. 홍수신화의 주제
3. 남매혼 홍수신화의 문제의식
4. 근친혼 금기와 텍스트의 변형
5. 목도령형 홍수신화의 특성
6. 창세신화와 홍수신화의 관계
7. 한국 홍수신화의 주제의식

1. 한국 홍수신화의 유형

첫 번째는 남매혼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전에 한국의 홍수 신화는 한국의 신화들은 기본적으로 문헌 신화와 기록된 신화가 아, 구전 신화와 기록된 문헌 신화가 있다고 했고 주로 건국 신화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의 민간에 구전되는 신화들은 민간에 전승되는 신화는 구전의 형식으로 전승된다고 했습니다. 구전의 형식으로 전승되는 신화는 신화가 가지고 있는 신성성, 신이성, 신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된 형태 다시 말하면 민담의 형식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홍수 신화도 그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 첫 번째 남매혼 신화도 사람들의 구전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전승되고 있는데 그 안에 홍수 모티프가 홍수 신화소가 들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홍수 신화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출전이 손진태 선생의 <한국 민족설화 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23년 8월에 함흥부 하동리 김호영 씨가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조사의 후기가 붙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23년은 손진태 선생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던 중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조선에 들어와서 함경도 함흥에 가서 김쌍돌이로부터 <창세가>라고 하는 무속신화를 조사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손진태 선생은 이 지역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열심히 채록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남매혼이라고 하는 홍수 신화입니다.

내용은 이제 옛날에 어떤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바다처럼 변해서 생존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는데 남매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남은 남매가 물이 다 빠진 뒤에 세상 밖으로 나와봤지만 어디에서도 인적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남매는 고민에 빠진 거죠. 우리 둘이 살다 죽으면 더 이상 후손이 끊어질 테고 그러면 인간 세상에는 인류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남매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남매끼리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금기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혼을 할 수도 없었죠.

말하자면 홍수 후에 오누이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한참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누이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맷돌 맷돌을 각각 안고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맷돌을 산 아래로 굴리자. 잘 아시겠지만 맷돌은 암맷돌과 수맷돌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각각 안고 오누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향해서 굴렸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간 맷돌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포개집니다. 그 모습을 본 오누이는 아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죠. 그 결혼 후에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래서 인류가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 인류는 홍수 이후에 태초에 이 오누이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또 하나의 유형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목도령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도령의 목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보다 상당히 긴데요. 옛날에 어떤 큰 나무가 있었고요. 그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항상 나무의 신과 교감을 했습니다. 이 선녀와 나무의 신이 교감해서 선녀가 낳은 아이가 바로 목도령입니다. 나무도령이라는 뜻이죠. 도령은 남자아이에게 붙이는 한국말입니다.

그 아이가 7, 8살의 소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인 선녀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지상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천지가 물로 덮이게 됐고 이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뽑혀서 물 위에 둥둥 떠오릅니다. 나무에 깃들어 살던 이 목도령은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타라 내 등에 타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몸에 올라타고 하염없이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죠.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개미떼들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개미

떼를 나무 위로 올려줍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모기떼였습니다. 모기떼 역시도 애처롭게 생각해서 나무 위에 깃들게 해서 살려줍니다.

그러다가 한참 또 흘러 다니는데 바로 세 번째 또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이 목도령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내아이가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때 목도령의 아버지인 큰 나무 다시 말하면 나무의 신 목신이 살려주지 말라 구해주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다시 한번 또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으니까 또 목도령은 아버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역시 살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을 요청하니까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다음에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이 큰 나무는 물이 빠지면서 어떤 섬에 표착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산봉우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목도령 신화에서 특이한 것은 그 섬에 내리니까 그 섬에 이미 이미 어떤 노파가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그 노파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신화적 설정이죠. 그런데 두 딸의 뭐라고 할까요. 처지가 다릅니다. 한 딸은 그 노파의 친딸로 되어 있고 다른 한 딸은 수양딸 양딸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딸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좋고 나쁜 것이 있었던 셈이죠.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를 타고 살아남은 두 사내아이 목도령과 그 소년은 이 노파의 집에서 함께 일을 도와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파의 두 딸도 이 소년도 이미 성년기가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두 쌍을 부부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인류가 다시 시작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이 노파는 사실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고 일종의 여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딜레마적 상황이 이 신화에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노파에게는 친딸과 양딸이 있었고 친딸이 좋고 양딸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이미 전제되어 있어서 이 두 명의 소년 목도령과 살려준 소년 구해준 그 소년이 모두 노파의 친딸과 결혼하려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두 소년 사이의 일종의 결혼을 위한 경쟁 결혼을 위한 어떤 내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벌어집니다.

먼저 구조된 소년 구조된 청년이 먼저 선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도령한테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재주가 있다. 목도령은 좁쌀을 모래밭에 다 뿌려놔도 그것을 그것을 원래대로 다시 다 주워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신기한 재주다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목도령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파가 목도령한테 모래밭에 좁쌀을 한 섬이나 한 가마니나 풀어놓고 이걸 다시 주워 담으라고 했을 때 아주 난처해졌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갑작스럽게 개미가 와서 발뒤꿈치를 깨웁니다. 개미한테 자신의 난처한 이야기를 했고 개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그건 쉬운 일이다 우리가 살려주신 은혜를 갚겠다 하면서 개미떼를 불러와서 개미들마다 좁쌀 하나씩 물고 원래 가마니 속에 다 채워넣어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이 첫 번째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목도령이 승리를 한 셈이죠.

두 번째 마지막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노파가 제안을 합니다. 목도령 저 노파도 사실은 목도령한테 자기 친딸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둘이 상당히 경쟁을 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쪽과 서쪽 두 방에 무작위로 두 딸을 하나씩 넣어놓고 목도령과 소년에게 원하는 방에 들어가라 그걸 한국말로 북불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식의 선택지를 준 것이죠. 자 뭐 50대 50이죠 뭘 선택할지는.

그때 갑자기 목도령의 귀 쫑가로 쫑가로 모기가 지나갑니다 모기가. 모기 역시도 목도령이 살려준 동물 생명체였죠. 앵앵 하면서 모기가 지나가면서 “목도령 동쪽 방으로 앵당당글” 뭐 이런 표현을 구술자가 썼는데 목도령은 동쪽 방으로 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도령은 그 소리를 듣고 모기의 말을 듣고 동쪽 방으로 가서 결국은 이 노파의 친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해준 그 소년은 노파의 양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오늘날 인류는 이 홍수 후의 두 커플 두 쌍의 부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목도령 홍수 신화가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손진태 선생이 바로 그 1923년 9월달에 다시 말하면 8월달에 함흥에서 조사하고 자기 고향인 부산으로 다시 와서 9월달에 김승진이라는 사람 남성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해서 1947년에 자신의 책에 인용을 해서 이런 구전되는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홍수 신화의 유형은 유형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민담 형식으로 전하는 홍수 신화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홍수 신화를 대표하는 유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남매혼 형 목도령 다른 하나는 목도령 형입니다.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타입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성격을 하나는 일반 유형 다른 하나는 특수 유형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성격 규정을 했는가 하면 오누이가 남매가 결혼하는 형식은 한국 신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홍수 신화 또는 전 세계 홍수 신화에 이런 남매를 비롯해서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근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다른 홍수 신화는 아주 두루 널리 존재합니다. 한국의 남매혼 홍수 신화는 그런 신화들 속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이다 해서 일반 유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근데 목도령 타입을 특수 유형으로 성격 규정을 한 것은 이 목도령 형태의 어떤 신화가 신화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한국의 구전 어떤 그 현장의 일종의 특수한 유형이다. 특별한 유형이다. 그런 점에서 특수한 유형 특수 유형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홍수 신화와 관련해서는 유사 홍수 신화라는 것도 확인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 대개 전설의 형태로 전해지는 홍수 신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자못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색한 아주 악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잣집에 착한 며느리가 있었고 어느 날 중이 그 부잣집에 시주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부자는 그 스님을 아주 박대하고 학대합니다. 시주를 받으러 온 바랑 자루에다가 그야말로 똥을 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스님을 학대합

니다. 그걸 보다 못한 보다 못한 그 집의 착한 며느리가 쫓겨나는 그 스님을 따라가서 쌀을 몰래 시주를 합니다. 그때 스님이 그 착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전하죠. 오늘 밤에 엄청나게 하늘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집을 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이 되자 정말 스님이 예언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와서 산을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엄청나게 비가 퍼부으면서 뒤에서 엄청난 번개 소리, 우레 소리 큰 소리가 들리니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걱정되고 궁금한 나머지 뒤를 돌아보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는 대로 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살았던 그 부잣집은 엄청난 홍수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물이 고여서 거대한 못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장자못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세계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전설이 한국에서는 장자못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것도 못이라는 것의 형성 그것이 엄청난 폭우와 관련돼 있다 물에 의한 징벌과 관련돼 있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 홍수 신화와 비슷한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유사 홍수 신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달래강> 또는 <달래고개 전설>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역시 오누이가 등장하고요. 오누이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또는 강을 건너가다가 고개를 건너가는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강을 건너가는 경우에는 물에 젖고 그래서 이제 앞서가던 누이의 몸이 비에 젖어 물에 젖어서 몸매가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니까 뒤를 따라가던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성적 욕망이 불러일으켜지죠. 그래서 이 동생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종의 음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누이를 보고 이런 마음이 생겼나 내 마음이 나쁜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를 징치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스로 돌멩이를 들고 자신의 성기를 내리찍어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걸 보고 앞서가던 누이가 뒤로 달려와서 죽은 동생을 안고 슬피 울었다는 그 운 고개가 달래고개가 되고 돌이 건넜던 강물이 달래강이 되고 했다는 그런 식의 전설이 오늘날까지 한국의 여러 곳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홍수와 물 그리고 물과 어떤 징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 홍수 신화 슈도 플러드 미스(pseudo flood my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홍수신화의 주제

자 그렇다면 다시 홍수 신화로 돌아가겠습니다. 홍수 신화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홍수 신화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홍수의 원인이죠. 홍수 신화를 두루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비교 작업을 해보니까 홍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신이 잘못해서 홍수가 일어났다 신들끼리 싸워서 신들끼리 불을 가지고 싸우다가 천지가 불 타오르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다가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잘못이죠. 인간의 잘못 인간의 잘못 뭔가 집을 찾아온 신을 몰라봤다든가 신에게 위해를 가했다든가 뭔가 어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이 인간을 징벌하기 위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의 원인이 불분명하여서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져서 홍수가 났다. 자연재해의 형식으로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는 홍수 신화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에 관심이 있는 홍수 신화들이 많고 이 홍수 신화들은 여기에 인류의 재창조의 주제 의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역시 두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형식은 근친혼입니다. 인터메리지 타입이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누이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결혼하는 형식의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그런 근친 커플만 살아남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친혼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 홍수 신화 남매혼 타입은 이 근친혼 타입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인신혼 타입입니다. 신인혼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떤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홍수 신화입니다. 예컨대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전멸을 하고 지상에 는 어떤 청년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 청년이 짝을 찾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도대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짝을 찾기 위해서 하늘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신의 딸과 결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홍수 신화가 인신혼 타입의 홍수 신화죠.

목도령 이야기 한국의 목도령 이야기는 크게 보면 인신혼 타입의 홍수 신화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좀 변형은 많이 되었지만 홍수 이후에 그 어떤 산봉우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의 꼭대기에 어떤 노파가 자신의 딸과 거하고 있었다. 그 이상한 수상한 노파 아까 그걸 여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본다면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인간과 신 사이의 결혼의 형식 사실은 목도령 자신이 신과 신 사이에 태어난 인간인데 바로 그 인간이 또는 천상의 어떤 여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형식의 홍수 신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국 홍수 신화는 한국 홍수 신화의 특징은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홍수 이후의 인류 재창조에는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한국 홍수 신화의 주제적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을 따지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신이 징벌을 해서 또는 신이 잘못해서 이런 식의 신들의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한국의 홍수 신화는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재창조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이 민담 형식으로 전승되는 홍수 신화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남매혼 홍수신화의 문제의식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홍수 신화에 대해서 각각 신화적 의미를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매혼 홍수 신화입니다. 소재목을 오누이는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왜 이렇게 보는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길게 남매혼 홍수 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5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고 남매만 살아남고 대가 끊어질까 고민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맷돌을 굴리고 맷돌이 포개지자 결혼하고 그 결혼의 결과 인류가 재창조되는 이 과정입니다. 옆에 그림에 맷돌이 보이죠. 맷돌은 수맷돌과 암맷돌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 맷돌은 남녀의 결합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 홍수 신화의 주인공들이 맷돌을 굴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맷돌이 아니고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서 생솔가지를 피우니까 불 대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둘이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새끼줄처럼 파리가 들어잡니다. 그걸 보고 하늘의 사인이다 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가장 많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맷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재창조에 대한 이 남매혼 홍수 신화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은 홍수 신화라는 것은 인류의 재창조 그러니까 태초에 인류가 창조되고 그다음에 홍수로 다 죽고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수 신화는 왜 인류가 리크리에이션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우리한테 던지죠. 그 문제의식의 실체가 뭐냐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근친혼 금기와 텍스트의 변형

그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면 약간 우회로가 필요합니다. 이 유명한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의 한 장면이죠.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라이오스, 어머니 이오카스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지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계속 피했지만 왕과 왕비는 피했지만 드디어 피할 수 없어서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 라이오스

는 오이디푸스를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부하가 그 아이를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넘겨 주고 마침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의 왕 폴뤼보스에게 목동은 그 아이를 바치고 그래서 바로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왕자로 오이디푸스는 성장을 하죠. 성장한 오이디푸스 역시 테바이의 신탁을 받았고 그 신탁의 결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라는 똑같은 신탁이 나옵니다. 그걸 신탁을 두려워한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도망을 치죠.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테바이로 가던 중에 자기의 친아버지 라이오스와 길에서 만나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시비 끝에 아버지를 살해하죠. 아버지를 죽인 오이디푸스는 테바이로 들어가다가 테바이 입구에 버티고 있는 테바이의 골칫거리였던 스팅크스를 만납니다. 스팅크스로부터 수수께끼를 받고 그 유명한 수수께끼죠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받고 사람이라는 답을 얘기함으로써 스팅크스를 죽이고 물리치고 테바이의 영웅으로 들어와서 라이오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자기의 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라이오스의 부인이었던 이오카스테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다시 낳습니다.

그렇게 이후 그 이후에 이른바 근친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테바이를 그 후에 잘 통치했으나 갑자기 이제 전염병 팬데믹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전염병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다시 신탁을 물었을 때 아폴론 신전의 그 무녀는 이런 신탁을 내립니다. 아버지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면 역병은 물러갈 것이다. 자 이 신탁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온갖 것들을 다 조사하죠.

그 조사의 과정의 마지막에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 테이레시아스가 불려나오고 그를 데려온 사람은 오이디푸스의 삼촌이었던 크레온이죠 크레온. 바로 그 예언가로부터 네가 찾는 범인은 바로 너다 그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이오카스테로부터도 바로 그 진실을 듣게 되죠. 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오이디푸스는 어머니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를 빼가지고 자신의 눈을 찌르고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선 테바이의 통치를 삼촌인 크레온한테 맡기고 자기의 딸 안티고네한테 의지한 채 그리스 전역을 떠돌아다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이디푸스 신화>죠.

자 이 <오이디푸스 신화>와 한국의 남매혼 홍수 신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 유명한 인체스트 타부(incest taboo)라는 것입니다. 근친상간 금지라는 거죠. 이것은 일찍이 신화학 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가 자연과 문화의 문턱이다라고 했던 문턱이라고 했던 바로 그 문화적 주제가 인체스트 타부(incest taboo)죠. 바로 이 문제를 사실은 남매혼 홍수 신화는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레비스트로스(*프로이트)는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어떤 특정 현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했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이디푸스에게 있었던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기보다 좀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오라클 콤플렉스'다 다시 말하면 신탁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끊임없이 말하자면 두려움에 시달렸고 그 두려움이 오이디푸스를 결국은 근친상간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 라이오스가 델포이 무녀의 신탁을 무시했다라면 그건 무녀의 헛소리일 따름이야 별로 의미 없는 말이야라고 무시했다면 아들을 버렸을까요? 아들을 버리지 않았으면 근친상간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아들인 오이디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디푸스 역시도 델포이의 신탁을 구했고 신탁을 구했고 그 신탁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나라를 떠났죠. 그 도망이 오이디푸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게 만들었죠.

테바이에 역병이 돌아 다시 또 신탁을 구합니다. 범인을 찾아서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을 찾아서 그를 처단하면 복수하면 역병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오이디푸스는 그 범인을 추적하죠. 오이디푸스가 집요하게 신탁에 따라서 범인을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친상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잘 살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이 델포이 무녀의 신탁이 주는 두려움, 불안감, 신탁의 실제성에 대한 믿음 이런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신탁이 실현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을 제가 오라클 콤플렉스, 신탁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고요. 저는 바로 오이디푸스 이야기에는 이 신탁 콤플렉스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이디푸스와 달리 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 신화의 남매는 오이디푸스의 결혼의 경우에 근친혼의 경우에 근친혼은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위반을 했죠. 그래서 결국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징벌입니까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자기 두 눈을 찌르는 자기 처벌을 한 것이죠. 근데 남매혼 홍수 신화는 어떻습니까 남매에게도 오누이 간의 결혼 근친상간은 금지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남매 남매는 역시 위반을 했어요. 그 금지를 위반했어요. 어떻게 위반했죠? 말하자면 멧돌을 굴리는 천신의 뜻을 테스트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늘의 뜻을 시험하는 멧돌 굴리기를 통해서 멧돌이 포개지니까 그것을 신의 뜻으로 여기고 결혼함으로써 인류가 재창조되었습니다. 리크리에이션됐어요. 거기에는 징벌이 없습니다.

이 남매혼 홍수 신화의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홍수 신화를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넓혀보면 중국의 소수민족의 신화 속에서 홍수 신화 속에서 발견되는 장면에는 어떤 설명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남매가 멧돌을 굴립니다. 굴리니까 멧돌이 각각 그냥 굴러가버려요. 포개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신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남매가 결혼을 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매는 그 멧돌을 지고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굴립니다. 다시 굴립니다. 언제까지? 멧돌이 포개질 때까지 굴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매혼 홍수 신화에서 멧돌은 반드시 포개져야 된다 왜, 포개져야 인류가 재창조되니까.

이런 장면을 흥미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곳을 할 때요 무당이 점을 칩니다. 그래서 신칼을 신이 잘 이 곳을 이 의뢰를 신이 잘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당이 신칼을 두 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신칼 칼은 앞뿔면이 있고 양면이 있죠. 날이 있고 등이 있습니다. 날이 있는

쪽으로 나란히 두 개가 놓혀지면 신이 이 인간의 곳을 잘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치가 안 되면 잘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이 그게 날이 나란히 나란히 포개질 때까지 말하자면 나란히 원하는 칼날이 나올 때까지 신칼을 무당이 반복적으로 던지는 행위를 합니다. 이 경우도 반드시 신은 그 곳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남매혼 홍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맏돌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뜻인데 사실은 인간의 뜻을 신의 뜻으로 위탁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남매혼 홍수 신화는 따라서 금지의 위반이 징별로 이어지지 않고 리크리에이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이디푸스 신화>의 근친상간 금지와는 다르다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홍수 신화의 어떤 신화적 주제고요. 그런데 이 홍수 신화의 경우도 이야기가 전승되고 문헌에 또는 기록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오누이가 또는 그다음에 아버지와 딸이 또는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친혼 인체스트 타부(incest taboo)를 자꾸 건드리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들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의 텍스트에 변형이 발생하죠. 어떤 변형이나 그 오누이가 원래부터 부부였다라고 이야기하면 근친상간 금지라는 타부가 깨지지 않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럿 전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홍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여와 복희의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이 여와 복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누이인데 또 문헌 속에서 등장하는 문헌의 자료 속에는 부부로 등장합니다. 전 세계인이 다 잘 아는 <성서>에 있는 노아의 홍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노아 역시도 부부 관계 노아 그 아들들 역시도 부부 관계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부부가 탑승을 하죠. 따라서 홍수 이후에 이들 사이에 근친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테우칼리온과 휘라도 부부로 등장합니다. 이들 부부는 홍수 이후에 그죠 자기 뒤로 돌맹이 또는 뼈를 던짐으로써 인류를 재창조하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테우칼리온과 피라 역시도 부부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보면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 관계를 이 커플의 관계를 부부로 설정함으로써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염을 피해가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에서 어떤 텍스트의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금기가 금기가 아주 강력하게 일종의 도덕률 같은 도덕률 같은 걸로 작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 유사 홍수 신화라고 말씀드렸던 <달래강 전설> 같은 것입니다. 그 남동생이 자신의 성기를 돌로 찍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대단히 비극적인 장면인데 그것은 절대로 근친혼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도덕률이 내면화되면서 그것이 절대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인 거죠.

이런 주제의식에서 살펴보면 남매혼 홍수 신화는 결국 오누이는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인류는 재창조되어야 하니까. 그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남매혼 홍수 신화는 카오스로의 어떤 역동 레트로액션(retroaction)을 보여주는 코스모스로의 이행에 대한 반 이행을 보여주는 신화다 무슨 말인가 말일까요? 모든 신화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사실은 진행하는 것이 신화의 일반적인 이야기 방향입니다. 무질서하던 세계가 뭐가 창조가 되면서 새로운 질

서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매혼 홍수 신화는 코스모스가 카오스로 되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근친상간이라는 금지를 깨버리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반 오이디푸스의 정치학 이때 오이디푸스라는 것은 근친상간을 표상하는 신화적 주인공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반 오이디푸스의 정치학을 보여주는 신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치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오늘날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이런 식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문화를 말하자면 리크리에이션한다. 인간의 삶의 형식을 혁명적으로 바꾼다. 이런 맥락에서 앙티 오이디푸스의 정치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매혼 홍수 신화의 창조 신화적 의미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는 철저히 파괴되어야 재창조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 목도령형 홍수신화의 특성

두 번째 목도령 홍수 신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령 홍수 신화는 주제를 나무도령 목도령은 소년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소재목을 지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아까 길게 얘기했던 목도령 홍수 신화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 8개의 단락으로 다시 정리 가능합니다. 나무가 있었고 선녀가 내려와서 신과 감응해서 목도령을 낳고 목도령이 7, 8살쯤 되었을 때 대홍수가 발생했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무가 목도령을 태우고 떠내려가고 개미떼, 모기떼를 살려주고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를 나무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산꼭대기에 도착하고 노파 노파와 두 딸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소년은 친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기가 구원해줬던 동물들 개미, 모기떼의 도움으로 목도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노파의 친딸과 결혼하죠. 인류는 이 두 커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목도령 홍수 신화의 결말이죠.

이 목도령 홍수 신화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간과 신이 결혼하는 인신혼 형 홍수 신화의 특이한 한국적 변이형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목도령 소년 두 커플 목도령과 친딸 노파의 친딸, 소년과 노파의 양녀 양딸이라고 하는 두 커플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지점입니다. 이것은 홍수 신화와는 남매혼 홍수 신화와는 아주 다른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 보은담이라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은혜를 갚는 형식의 이견 민담에 아주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 형식이고 이 바탕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원시 세계관이 들어 있는데 바로 그런 동물 보은담의 형식으로 홍수 신화가 구성되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특성은 바로 이 목도령 홍수 신화가 미륵 석가에 의한 최초의 창세 신화의 변형일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단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난 번에 다뤘던 미륵님과 석가님의 세계 창조를 다룬 그 창세가에 보면 미륵님과 석가님이 이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죠. 내기를 합니다. 바로 그 내기의 형식이 목도령 소년이 서로 노파의 친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기를 하고 경쟁하는 그 형식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목도령쌍과 소년쌍이라는 두 쌍이 각각의 어떤 상태를 상징하는 두 쌍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미륵님과 석가님의 창조라고 하는 두 말하자면 쌍둥이에 의한 세계 창조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륵님이 <창세가>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물과 불을 찾기 위해서 동물들의 도움을 받죠. 메뚜기, 개구리, 생쥐 여기도 보면 목도령 홍수 신화도 역시 보면 모기, 개미 이런 동물들과 서로 말하자면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마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 이 목도령 홍수 신화 홍수 신화라는 것은 창조 신화의 일부분이고 세계 최초의 창조 크리에이션이 있었다면 홍수 신화는 리크리에이션 두 번째 창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목도령 홍수 신화의 특성은 주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6. 창세신화와 홍수신화의 관계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걸 <창세가>의 맥락에서 이 목도령 홍수 신화의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뭘까요?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창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창세가>에 처음에는 천지가 맞붙어 있는 상태에서 미륵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을 열면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있죠. 혼돈이 질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평한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카오스가 찾아오죠. 미륵 석가님이 등장하면서 석가님이 등장해서 이 세상을 나한테 내어달라 하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카오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쟁 내기 싸움의 결과 미륵과 석가님이 각각 한쪽은 이승, 한쪽은 저승을 차지하면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보면 <창세가>는 혼돈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또 다른 질서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신화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목도령 홍수 신화를 보면 유사한 양상이 반복됩니다. 최초의 혼돈의 상태는 목도령 홍수 신화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목도령과 말하자면 목신과 선녀 천상의 선녀의 관계가 이미 설정돼 있죠. 어떤 새로운 질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느냐 인류가

만들어집니다. 목도령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가 창조되죠. 그다음에 혼돈이 발생합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고 인류의 멸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친딸을 차지하기 위한 목도령과 소년의 내기가 경쟁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서 목도령과 소년이 각각 선과 악에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인류가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과정 이렇게 보면 <창세가>와 목도령 홍수 신화는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목도령 홍수 신화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도령 홍수 신화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두 쌍의 인류 재창조를 통해서 본 목도령 형 홍수 신화의 세계 인식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익숙한 그림이 등장할 하죠. 지난번 창세신화를 강의할 때 보여주었던 그림입니다. 바로 음과 양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한쪽이 어떻습니까 목도령이고 한쪽이 소년이죠. 그런데 목도령 안에 목도령이 구해주었던 어떤 소년의 요소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소년 안에는 목도령의 요소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목도령은 아버지인 목신이 그 소년을 구해주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소년을 구해줬을까요. 말하자면 목도령 안에는 이미 목도령 아닌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을 구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목도령을 선으로 그 나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악으로 본다면 각각 선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본다면 목도령 홍수 신화가 목도령이 소년을 구원해 줌으로써 홍수 이후에 두 커플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류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의 결과로 홍수가 발생해서 인류가 다 정리되었다면 대홍수 이후에 인류 안에는 악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선만 있어야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착한 노아만 살아남았다면 신의 명령을 듣는 노아만 살아남았다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문제의식 이런 질문이 목도령 홍수 신화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도령 홍수 신화의 결론은 홍수 이후에도 선과 악은 공존한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없고 영원히 영원히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면서 공존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도령홍수 신화의 세계 인식을 <창세가>에 비추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관계도가 만들어집니다. <창세가>의 세계 인식은 어떤 것이었죠? 현실에 대한 대단히 좀 비관적인 인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속아서 패배한 미륵님은 저승으로 가버렸죠. 이승은 속여서 세계를 차지한 사기꾼 석가님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 인간 세상에는 선보다 악이 강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악이 가득 찬 이 세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저승에 있는 미륵님이 다시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가>의 세계 인식입니다.

왜 <창세가>는 이런 세계 인식을 표현할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가>가 전문가 집단인 무당들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 형식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세계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초월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저승을 다스리는 미륵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에 도래해야 이 세상은 태평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지요.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목도령 신화는 민담의 형식으로 구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맥락을 벗어나 있어요. 대단히 낙관적이에요. 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 비극을 이기는 힘은 현실 내부에 있다는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이 목도령 신화에는 있습니다. 민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듯이 어떤 겁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 해피엔딩 이런 거잖아요. 뭐 다 잘 될 거야 이게 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인데 목도령 신화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목도령은 위기에 처했지만 동물들이 도와줘서 결국은 승리하죠. 이것은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 세계관은 부재해 있고 어떤 대중들에 의한 민담적 전승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그런 대중들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는 것이 민담 형식으로 전승되는 목도령 신화이기 때문에 목도령 신화는 결국은 <창세가>와는 다르게 어떤 낙관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창세가>와 비교해서 세계 인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7. 한국 홍수신화의 주제의식

자 이제 목도령 신화와 앞에서 다루었던 남매혼 홍수 신화를 다시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어떤 거죠? 목도령 홍수 신화는 홍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선악의 유래를 묻는 이야기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수가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죄인은 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 세상에는 죄인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가 편만하니까 말하자면 왜 그런가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홍수 이후에 선악을 각각 상징하는 두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선악이 인간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남매혼 홍수 신화는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선악의 구분을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 인간을 문화라고 하죠 문화라고.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바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 문화를 넘어선 구분 자체를 재구성하는 이야기가 남매혼 홍수 신화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친상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부가 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같을까요? 목도령, 남매혼 홍수 신화는 모두 기존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재창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남매혼 홍수 신화의 남매는 근친상간 금지를 거부했고 목도령 홍수 신화의 목도령은 아버지 목신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남매가 하늘의 명령을 금지로 해석했다면 인류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도령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면 선악의 문제가 세상에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거부, 부정을 통해서 선악이 공존하도록 하되 선이 악을 이기는 긍정적 낙관적인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목도령 홍수 신화죠.

한국의 홍수 신화는 그것이 목도령 신화든 남매혼 신화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홍수 신화는 재창조를 주제로 하고 있고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창조된 질서가 파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크리에이션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였던 <설국열차>의 한 장면이죠. <설국열차>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저 <설국열차> 속에 저 캐릭터 캐릭터가 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설국열차로부터 탈출하려고 하죠. 많은 설국열차의 탑승객들은 앞칸으로만 앞칸으로만 전진하려고 합니다. 앞칸으로 가야 뭔가 좀 더 나은 삶이 가능했기 때문에 앞칸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아웃사이더는 앞칸이 아니라 옆문을 폭파하려고 하죠. 왜, 그 밖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으니까. 앞칸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칸으로 가는 것은 근친상간 금지를 위반하는 것처럼 그 기존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영화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나는 <설국열차>라고 보는데요.

바로 그 <설국열차>의 메시지는 홍수 신화의 주제 의식에 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역행을 통해서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주제의식입니다. 바로 그것은 달리 말하면 앙티 오이디푸스의 상상력이었던 것이고 다시 정리하자면 태초의 창조와 재창조의 대칭적 관계를 통해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창조라는 것은 끊임없는 리크리에이션 창조는 끊임없는 재창조를 통해서 계속된다, 존재한다 이게 한국 홍수 신화가 가지고 있는 심층의 주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한국 홍수신화는 원인보다는 홍수 이후 인류의 재창조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다. (O/X)

정답: O

2. 남매혼 홍수신화에서 '근친혼'이라는 금기의 위반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O/X)

정답: O

3. 목도령 홍수신화에서 목도령-소년이라는 쌍(twin)의 존재와 동물보은담의 형식은 미륵-석가에 의한 최초 창세신화의 변형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이다. (O/X)

정답: O

4. <창세가>의 창세와 내기라는 질서-혼돈의 맥락에서, 목도령 홍수신화는 '대홍수'와 '목도령의 탄생'이 각각 질서-혼돈에 대응된다.

정답: X

5. 한국 홍수신화는 '금기의 위반에 따른 징벌'이 매우 잘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한국의 구전 창세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 모두 ‘근친상간 금지’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나타난다.
- ② 두 이야기 모두 ‘금지 - 위반 - 징벌’이라는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다.
- ③ 남매혼 홍수신화는 오이디푸스 신화와 달리 ‘재창조’라는 긍정적인 결말이 나타난다.

정답: ②

2. 다음 중 목도령 신화와 남매혼 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 모두 기존 질서의 거부를 긍정하고 거부를 통한 재창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목도령 신화는 홍수 이후에도 지속되는 선악의 유래를 묻지만, 남매혼 신화는 선악의 구분보다는 구분 자체의 재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두 이야기에 나타나는 명령(법)은 절대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답: ③

3. 다음 중 남매혼 홍수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오스로의 역동(逆動), 코스모스로의 이행에 대한 반이행을 보여 주는 신화이다.
- ② 앙티오이디푸스의 정치학을 보여 주는 신화라 할 수 있다.
- ③ 세계는 질서의 유지와 순응으로서 재창조된다는 창조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답: ③

4. 다음 중 창세신화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세가에는 초월주의적 세계 인식이, 목도령 신화에는 현실주의적 세계 인식이 나타난다.
- ② 창세가에는 종교의 개입이 나타나나, 목도령 신화는 종교적 세계관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 ③ 창세가는 민담적 전승 형식을, 목도령 신화는 무가적 전승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정답: ③

5. 다음 중 한국 홍수신화의 주제의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와 순응을 통해 세계의 존재를 설명한다.
- ② 창조와 재창조의 대칭적 관계를 통해 세계의 존재를 설명한다.
- ③ 신과 인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세계의 존재를 설명한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창세가는 비극을 이기는 힘은 외부에서 온다는 현실에 대한 ○○○ 인식이, 목도령 신화는 비극을 이기는 힘은 현실 내부에 있다는 현실에 대한 ○○○ 인식이 나타난다.

정답: 비관적, 낙관적

2. 목도령 홍수신화와 남매혼 홍수신화의 동질성은 근친상간, 아버지 목신의 명령이라는 기존질서의 ○○를 통해 재창조를 가능케 했다는 데 있다.

정답: 거부

3. 목도령 홍수신화에서 목도령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면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령의 부정을 통해 ○○의 공존을 가능케 하고, 홍수 이후의 세계상 역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답: 선악

나. 토의(30분)

한국 홍수신화와 다른 민족의 홍수신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의해 본다.

다. 과제(60분)

한국 혹은 동아시아 홍수신화의 홍수의 원인과 서양 홍수신화를 비교하는 글을 써 본다.

〈제4강〉

천지단절신화의 상상력

학습 목표

1. 천지단절신화의 개념을 알아본다.
2. 〈삼국유사〉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이야기에 나타나는 천지단절 모티프의 의미를 이해한다.
3. 인간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천지단절신화의 메시지를 파악한다.

강의 핵심 요약

한국의 천지단절신화를 다루었다. 한국 신화에는 인간과 하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신화적 줄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천지단절신화는 그러한 줄이 끊어진 신화를 가리킨다.

인간과 하늘이 왜 단절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한국 신화로 〈삼국유사〉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경덕왕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표훈이라는 스님에게 하늘로 올라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게 요청해 달라고 한다. 천제가 딸은 되지만 아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경덕왕은 나라가 위태로워져도 아들을 원한다고 한다. 천제는 천기를 누설한 표훈이 더는 하늘을 오갈 수 없게 하고, 경덕왕이 아들을 낳은 뒤 실제로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경덕왕의 시대는 문화적으로 찬란한 시대였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경덕왕은 권력에 과도하게 집착했으나 전제왕권을 위한 개혁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은유가 천지단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단절 모티프는 티베트의 지끔젠뵤 신화, 중국 소수민족인 이라오족의 구전신화, 〈상서〉 〈주

서·여형〉 등 다른 신화에도 등장한다. 이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구전신화에서는 천지단절이 새로운 창조 생성을 의미한다. 그것이 왕권과 결합하고 문헌에 기록되면 천지단절은 질서의 파괴, 종말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형된다.

천지단절신화의 메시지를 인간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구전신화의 천지단절은 인간의 과욕이 생성과 창조로 이어진 경우이고, 문헌신화는 과욕이 소멸과 파괴로 흘러간 경우이다. 결국 욕망이 있기에 존재하지만 욕망은 항상 과잉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이 천지단절신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 강의 내용 전문 ◆

도입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 주제는 천지 단절 신화의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강의 순서

1. 줄의 상징
2. 한국신화의 줄들
3. 천지단절신화의 개념
4. 경덕왕이 끊은 하늘줄
5. 티베트의 천지단절신화와의 비교
6. 구전 천지단절신화와 문헌 천지단절신화의 비교
7. 천지단절신화가 말하는 인간

1. 줄의 상징

천지 단절 신화가 뭘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그전에 줄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라는 것이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어떤 끈을 한국어로 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초적인 줄은 이런 줄이 있죠. 어머니와 아이를 이어주는 탯줄이라고 하는 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줄이라고 사다리라고 생각했던 무지개와 같은 자연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 높은 산 히말라야와 같은 높은 산이 하늘과 통하는 어떤 길, 줄, 하늘에 올라가는 계단 이런 것으로 상상을 했죠.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유명한 고구려의 무덤에서 나온 벽화입니다. 씨름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씨름과 관련된 그 무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씨름하는 씨름꾼들 옆에 나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까마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나무는 상징적인 나무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나무 코스믹 트리라고 하는 우주수 이런 것입니다. 저 우주수 역시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줄의 하나의 변형이죠.

줄다리기의 줄도 있죠. 한국의 줄다리기 문화는 아주 유명한데요. 거대한 새끼줄을 서로 꼬아서 암줄과 수줄을 서로 연결해서 두 마을이 서로 당기면서 승부를 통해서 한 해 농사의 어떤 그 흥풍을 점치는 상징적인 놀이가 줄입니다. 저 줄 역시도 서로 다른 두 마을의 어떤 관계들을 보여주죠. 사다리 역시도 뭔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일종의 줄의 변형입니다.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 역시 야곱 역시 하늘에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타고 천상을 오르내렸던 그런 신화적 사건이 존재합니다. 한국문화 속에 매듭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을 묶어서 저렇게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서 근데 저런 매듭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장신구 장식물이지만 저런 매듭이 이제 결혼의 문제와 연결될 때 매듭은 결연 남녀 간의 결연을 상징하는 사물로 변형이 되죠. 이걸 족보의 모습인데요. 족보 역시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자식으로 이어지는 어떤 관계들을 표현하는 줄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줄은 여러 문화 속에서 사용되면서 어떤 특별한 상징들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줄의 상징이 만들어진 경로는 세 가지가 아닌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원초적인 거죠. 원형적 체험 이것은 무의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태아 속에 있을 때 어떤 탯줄 체험 어머니와 모태와 연결된 어떤 탯줄 체험 이것은 대단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체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자연 속에서 뭐 무지개라든가 그다음에 나무라든가 높은 산이라든가 그야말로 담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박 넝쿨이라든가 이런 자연 속에서 얻는 경험들 같은 것들이 줄이라는 것은 에이(a)에서 비(b)지점으로 뭘 연결시켜주는 어떤 사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인간에게 하게 만들죠. 세 번째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문화적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거나 사다리를 올라간다거나 그다음에 새끼줄을 꼬아서 줄다리기로 연결한다거나 뭐 다양한 어떤 줄과 관련된 문화적 체험들이 줄을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로 만들죠.

이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줄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줄의 상징은 대개 원형적 체험, 자연의 체험, 문화적 체험 이런 것들의 종합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줄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상징입니다. 줄은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이 마을과 저 마을, 이 문화와 저 문화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거죠. 바로 이 관계를 표상하는 줄의 상징으로부터 줄의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한국신화의 줄들

그렇다면 한국 신화 속의 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군신화>입니다. 워낙 유명한 신화이니까 소개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단군신화>의 단군의 아버지 환웅, 환웅의 아버지 환인 환웅이 천상의 환웅의 아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습니다. 태백산이라는 높은 산 높은 산에 있는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그 나무를 우리가 우주수 코스믹 트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나무를 경유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러니까 태백산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화적 줄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로 신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로의 성이 김 씨여서 김수로왕이라고 하는데 수로왕은 어떻게 태어났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어떤 함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 함은 자줏빛 보자기로 감싸져 있었고 자줏빛 보자기로 감싸져 있는 함은 자줏빛 그 끈으로 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로왕은 그 함 속에 있는 알 속에서 등장을 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수로 신화>에 나오는 줄입니다. 이 줄은 맺줄의 변형이기도 하고 나무와 연결된 줄이기도 하고 천상과 연결되고 수로왕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성성을 보여주는 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도 이것은 민담입니다마는 여기에도 그 유명한 줄이 등장하죠. 그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쫓기죠.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에 찾아왔을 때 오누이는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집 뒤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나무 위로 호랑이가 기어 올라옵니다. 이때 오누이는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죠. 동아줄이라는 것은 아주 그 줄을 말하자면 새끼 같은 것을 강하게 끈 굵은 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쇠로 된 줄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민담도 있습니다. 바로 이 줄은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간 줄이죠.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선녀와 결혼했던 나무꾼이 선녀가

날개옷을 찾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선녀가 하늘을 오르내릴 때 입고 있는 옷 그걸 날개옷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날개옷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줄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줄은 나무꾼이 타고 올라간 줄입니다. 나무꾼이 다시 선녀를 만나고 싶어 해서 간절하게 기원했을 때 나무꾼이 구해주었던 사슴이 나타나서 이제 선녀들이 연못에 있는 물을 퍼올려서 하늘에서 목욕을 한다 하늘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두레박이 내려오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나무꾼은 바로 그 두레박에 매달린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제주도에 <세경본풀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에 관한 신화인데 세경신은 여기서 농사의 신을 말합니다. 이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이름이 자청비인데 자청비가 하늘을 오르내릴 때 타고 올라가는 것도 줄입니다. 그 줄 이름이 특별히 노각성 자부줄이라고 하는 줄입니다. 제주 무속신화의 많은 신들이 또는 인간들이 천상을 오르내릴 때 이 노각성 자부줄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줄을 타고 하늘을 오르내립니다.

이런 등등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런 등등이 한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간과 하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신화적 줄 신화 속의 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화적인 줄들 줄은 한국 신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신화에 두루 등장합니다.

3. 천지단절신화의 개념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화적 줄이 아니고 그 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또는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이 줄이 끊어졌다. 왜 끊어졌느냐 이걸 오늘 강의 주제로 삼을까 합니다. 그 끊어진 줄이 등장하는 신화를 천지 단절 신화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단절 끊어졌다는 뜻이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신화 이런 신화들이 특별하게 존재하는데 그 신화의 의미가 뭘까 이 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만나보실까요. 한국 신화에 어떤 천지 단절 신화가 있을까요? 그전에 일반성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죠. 서양의 <성서>에 나오는 바벨 타워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뭘 상징하죠?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신의 징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성서>의 <창세기>는 이야기하죠.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 탑을 쌓아 올리니까 그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징벌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들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바벨 타워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바벨탑은 인간과 신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천지 단절 신화의 질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왜 하늘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는가.

4. 경덕왕이 끊은 하늘줄

한국 신화에는 이 주제가 <삼국유사>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대목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덕왕이라는 신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중대의 마지막 왕이죠. 근데 어느 날 표훈이라고 하는 스님을 초청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이 없다 스님께서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한테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게 요청해 주시오. 그래서 표훈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신 천제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왕한테 말하죠. 안 된다고 합니다. 딸은 되지만 아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경덕왕이 이야기하죠. 딸을 아들로 바꿔주시오.

표훈스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천제한테 요청합니다. 아들로 바꿔달라합니다.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근데 아들로 바꾸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게 천제의 명령이자 예언이었죠. 그리고 표훈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지상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합니다. 천제가 불러서 말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쪽 하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대사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웃처럼 이웃 마을 오가는 것처럼 다니면서 천기 하늘의 기밀을 누설을 했으니 지금부터는 다니지 말라. 자 요 대목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붉은 글자로 표시된 요 문장에 있는 요 대목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길이 끊어지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천지 단절입니다. 천지 단절 신화소 천지 단절 미뎀(mytheme)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덕왕 시절에 벌어진 천지 단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천지 단절이라는 신화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 신화적 사건이 경덕왕의 시대에 벌어졌는지 그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경덕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자 아주 한국의 유명한 절입니다. 세계적인 사찰이죠. 불국사 이게 경덕왕 시기에 건립된 절입니다. 불국사에 가보면 그 뒷산 올라가면 그죠 석굴암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불이 놓여 있는 유명한 바위 암자가 있죠. 석굴암. 저것도 세계적인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유명한 곳인데 저 역시도 경덕왕의 시대에 건립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저 종은 에밀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합니다. 경덕왕의 아버지를 기념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주조에 실패하면서 결국 경덕왕은 완성을 보지 못했고 그 아들인 혜공왕 때에 완성된 종입니다.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소리가 아름다운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종보다 저 에밀레종보다 더 규모가 큰 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종이 황룡사종입니다. 황룡사라는 신라의 거대한 사찰이 있었는데 이 사찰 역시도 몽골에 침입돼 불타면서 사찰은 현재 흔적만 남아 있죠. 이 황룡사에는 9층탑이라고 하죠. 아주 높은 거의 80m에 가까운 유명한 목조탑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불에 타서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황룡사종은 <삼국유사>에 보면 497581근이나 되는 거대한 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구리를 사용해서 주조한 종이었다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종 뭐 조형미도 세계 제일이었

다고 하는데 현재 사라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경덕왕의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적 유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경덕왕은 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저런 사업 불국사 석굴암 그다음에 종을 만드는 저런 사업들을 벌였을까요. 신라 시대에서 경덕왕의 시대는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하고 문화적으로 꼽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경덕왕은 23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경덕왕은 권력 왕위 왕위에 오르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귀족들의 도전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왕권의 위기가 닦쳤죠. 그 왕권의 위기를 문화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경덕왕은 일종의 저런 문화 사업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국사도 지어지고 석굴암도 지어졌던 거죠. 찬란한 문화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정치적 그림자 이걸 경덕왕의 시대의 일종의 풍경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풍경화 위에 천지 단절 신화가 놓여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덕왕의 <삼국유사>를 보면 경덕왕 시절에 만들어진 향가라고 하는 신라의 노래가 제일 많습니다. 향가는 전체가 14편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5편이 경덕왕의 시대와 관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수히 많은 설화들이 이야기들이 경덕왕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경덕왕의 시대가 뭔가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적인 시대였다. 많은 이야기들이 비롯될 만큼 뭔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삼국유사>에 있는 아까 천지 단절 신화를 포함하고 있는 <충담사 표훈대덕>이라고 하는 <삼국유사>의 한 챕터가 사실은 만들어집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도덕경>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궁전 뜰에 신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왕이 3월 3일에 누각에 올라가서 잘 차려입은 승려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어떤 신하들이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고승을 모셔왔더니 내가 원하는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쫓아내고 이번에는 어떤 스님이 장삼을 입고 대나무통을 등에 메고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내가 원하는 스님이다 하고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의 통 속에는 차 기구들이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 물으니까 저는 충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륵세존한테 삼화령에서 지금 차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왕이 나도 차를 한 잔 나눠 마실 수 있겠소 스님이 왕에게 차를 달여서 드립니다. 그 차의 맛이 대단히 향기로웠다. 내가 일찍 들으니까 그대가 충담이 옛날에 기과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사뵈가라는 향가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스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래를 하나 지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경덕왕이 충담사한테 백성을 편하게 하는 노래를 지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당시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정치가 어지러웠다는 얘기죠. 따라서 충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을 통해서 노래를 지음으로써 지어 부름으로써 일종의 선전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노래를 통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말하면 정국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경덕왕이 했던 거죠.

바로 그 충담사가 지은 <안민가>라는 노래가 이렇습니다.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 이 중세 시대의 전형적인 임금과 신하 백성의 구도죠. “구물구물 살아가는 백성 이들을 먹여 다스린다네 이 땅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신다면 이 나라가 보존해야 함을 알리려 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민이라는 것은 특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냥 질서를 잘 지키는다면 신하들은 임금을 잘 모신다면 백성들은 임금과 신하를 잘 따른다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노래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백성들은 임금과 신하를 따르지 않고 민란을 자꾸 일으키고 신하들은 귀족들은 임금한테 자꾸 도전을 해서 임금을 살해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이 <안민가>의 배후에는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일찍이 지었던 기과랑을 찬미하는 <찬기과랑가>라는 유명한 향가를 소개해 놓고 있고요. 바로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천지 단절 신화가 시작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첫 대목은 이렇습니다. 왕의 음경의 길이가 8치나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만월부인을 두 번째 왕비로 들였다. 그 만월부인은 각간 의충의 딸이었다. 이런 간단한 진술이죠.

그런데 왕이 만월부인하고 후비로 받아들여서 만월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한참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표훈을 불러서 왕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던 그 대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하늘에 올라가서 자식을 아들을 얻게 해달라 딸만 가능하다 딸을 아들로 바꿔달라 아들로 바꾸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래도 아들로 달라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표훈이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천지를 이제부터는 끊어버리겠다 천제가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다니지 마라 표훈이 내려와서 천제의 말을 알아듣도록 했지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더라도 남자아이를 얻어 대를 이을 수 있다면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만월부인이 드디어 태자를 낳았는데 태자가 나이가 8살 때 왕이 죽었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인 만월부인이 섭정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왕권이 약화가 되고 외척이 강해지고 외척의 만월부인 뒤에 있는 귀족들이 힘을 갖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삼국유사는 그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라는 표훈의 말이 들어맞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살에 왕이 죽고 그때 태어난 혜공왕이 어렸을 때 여자를 남자로 바꾸었기 때문에 첫

돌 때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늘 여자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면서 놀았고 비단 주머니에 노리개 차기를 좋아했고 도사들과 어울려서 놀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고 결과적으로 선덕 김경신이라고 하는 두 명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되었다. 이렇게 삼국유사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표훈 이후로 신라에는 다시 성인이 태어나지 않았다.

이 <삼국유사>의 <경덕왕 표훈대덕>조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야기의 첫머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음경이 8치나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고대적 사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삼국유사>의 앞부분에 지철로왕이라고 하는 왕의 왕과 관련된 대목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음경의 길이가 한 자 다섯치나 되어서 배필을 구하기 어려워서 삼도로 배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때 모량부 동로수라는 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 개 두 마리가 북만 한 똥덩어리를 물고 양쪽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보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것은 모량부에 있는 그 상공의 딸이 여기서 빨래하다가 숲속에서 눈 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걸 보고 아 모량부 상공의 딸이 몸집이 아주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모량부 상공의 딸을 지철로왕의 왕비로 삼았다는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고대적 사유는 뭔가 하면 어쨌든 왕의 음경의 길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왕의 실제적인 어떤 신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왕의 어떤 권력,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일종의 상징물 같은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그것은 강한 어떤 생산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신라 초기의 지철로왕은 어떤 이름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덕왕의 경우는 그 반대적 상황입니다. 음경의 길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 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경덕왕의 권력과 경덕왕의 통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경덕왕은 왕비의 문제로 봤던 거예요. 그 <삼국유사> 이야기 속에 그것은 왕비 쪽의 문제로 봐서 결국은 이것을 이것은 왕비의 교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왕비가 최초의 왕비가 삼모부인이었는데 그 왕비를 만월부인이라고 하는 여성 여성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적 상황을 경덕왕은 왕비 교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적통자의 부재 왕위 계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계승자가 없으면 왕권이 약화되는 것이 과거 전제왕권 시대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력의 문제였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왕비 대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왕비로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성덕왕의 가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경덕왕의 아버지는 성덕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덕왕의 뒤를 이어서 효성왕이 뒤를 잇죠. 그런데 경덕왕의 형인 효성왕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성왕의 아들 대신 동생이었던 경덕왕이 그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이미 자기 형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가 왕위를 잇게 된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경덕왕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고 왕비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결국은 그 아들을 부인인 순정의 딸 삼모부인을 쫓아내고 김

의충 각간의 딸을 다시 왕비로 맞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경덕왕 시기의 정치적인 불안의 반영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문제를 <삼국유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삼국유사>에 표현되어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경덕왕은 어떻게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가 스님을 부른 거죠. 표훈대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제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천제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하늘로 가는 줄이 끊어졌을까요.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석의 경로가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신화적 맥락을 동시에 봐야 된다. 표현된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국사하고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이 중요하고 불국사가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의 <의상전교>라고 하는 한 대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훈이 일찍이 불국사에 머무르며 항상 천궁을 내왕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표훈 스님이 불국사에 있었다 천궁을 왔다 갔다 했다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집이고 하늘에 있는 궁전인데 그 궁전을 왔다 갔다 했다. 바로 저 대목은 표훈대덕 <충담사 표훈대덕> 천지 단절 신화에 나오는 경덕왕이 스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제한테 아들을 딸로 바꿔달라 딸을 아들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달라라고 했던 그 대목하고 통하죠.

근데 일찍이 표훈은 그 불국사라고 하는 절에 머무르면서 말하자면 불경을 강했던 당대의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신라의 10대 성인이라고 그래서 10명의 스님이 있는데 표훈은 그 마지막을 차지하는 그런 큰 승려였죠. 그런데 저 기록 속에 표훈이 내왕했다고 하는 천궁이 어디냐 역사학자들은 저 천궁을 다름 아닌 석굴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굴암이라는 곳이 마치 하늘에 있는 부처님이 거하는 궁궐처럼 그렇게 형성된 공간이고 불국사에서 뒤쪽으로 산턱을 산중턱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동해가 보이는 석굴암이 있고 그 석굴암을 오르내리면서 말하자면 표훈스님은 부처님과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추정되는 역사적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덕왕은 표훈스님한테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저 석굴암의 부처님께 가서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신화 속에 설화 속에는 하늘의 천제를 만나서 표훈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그런 이야기로 신화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화적 사건 속에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맥락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경덕왕이 이미 왕위에 있는 지가 16년 17년째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상대등을 자꾸 여러 번 자꾸 교체를 합니다. 권력이 흔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 자료의 파란 대목을 보면 재위 14년에 김기를 시중으로 삼았지만 17년에 김기가 죽자 이찬 염상을 시중으로 임명하였다가 19년에 이찬 김용으로 바꿨습니다. 김용도 3년 만에 22년 관직에서 물러나고 이듬해 이찬 양상을 시중으로 삼았습니다. 이 양상이 나중에 경덕왕의 장자인 혜공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거기 17년 758년. 758년에 염상 염상은

성이 김 씨인데요. 김염상을 시중으로 삼았다가 2년 만에 이찬 김용으로 바꿨던 이 사건이 대단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 경덕왕은 김염상을 시중으로 임명해서 마지막 정치적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어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말하자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 왕권 강화의 개혁 드라이브가 말하자면 2년 만에 무산됩니다. 그것이 김용으로의 어떤 교체고요. 그다음에 김양상이 다시 시중으로 임명되는 그 정치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바로 이 경덕왕의 개혁 드라이브와 표훈대덕의 천지 단절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화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맥락, 정치적인 사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단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줄이라는 것이 특정한 문제 때문에 끊어졌다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 이 경덕왕 시대의 이야기는 그것을 경덕왕 시대의 정치적인 문제, 불안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 김염상 염상을 동원해서 기용해서 당나라식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전제왕권의 강화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천기를 누설하고 천명을 위반한 것 결국 이것은 결국은 경덕왕의 전제왕권의 실패 이것을 표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천지 단절의 상태를 초래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지 단절 사건은 경덕왕의 개혁 실패 이것의 정치적인 은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경덕왕 사건 이후에 표훈스님처럼 성인들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신화적 맥락에서 단절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덕왕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짐착 딸을 아들로 바꿔서라도 하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왕권을 지속시키겠다는 그 강한 권력욕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천지의 단절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성인의 부재 부재를 초래했다. 이것이 바로 경덕왕 시대의 천지 단절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지 단절 사건은 경덕왕 시대의 혜공왕 때로 이어지는 시기의 정치적 상황의 은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티벳의 천지단절신화와와의 비교

이 경덕왕 시절에 일어났던 천지 단절이라고 하는 신화적 사건이 말하자면 신라 시대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 또는 특별한 신화적 모티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비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것은 멀리 티벳의 천지 단절 신화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일부로 되어 있는 티벳이 자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국가 체제를 갖고 있을 때 형성된 바로 그런 신화입니다. 이 신화의 배경은 티벳 역사에서 대개 6세기, 7세기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문 자료를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한자어 티벳 발음이 한자어로 표현돼 있어서 색적찬보의 아들 지공찬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벳말로는 네티젠뽀 지끔젠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야기 속의 주인공 왕은 지공 찬보 지끔젠뽀 지끔젠뽀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양 영어로는 쟈뽀를 캄포라고 부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마귀에게 현혹되어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표현돼 있죠.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신하 낙양달손 티벳 말로 로암다제 로암다제에게 싸움을 겁니다. 자기 신하에게 싸움을 왕이 걸어요. 년 내 적수가 될 만하다 저는 신하인데 어떻게 왕의 적대자가 되겠습니까 거부했지만 계속 시비를 거니까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임금과 신하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싸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어떤 신화 모티프가 개입되어 있는데 왕은 아주 아주 신비한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가. 이 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탐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개죠. 개를 미리 보냅니다. 신하를 정탐하러 보냅니다. 근데 이 로암다제라는 신하는 왕이 그 개를 보낼 거를 미리 알고 정보를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가짜 정보를.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올 텐데 죽이려고 올 텐데 왕이 이런 모습으로 오면 내가 왕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가짜 정보죠.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신하 부하를 거느리지 않고 머리에는 검은 비단으로 묶고 머리를 이마에는 거울을 달고 오른쪽 어깨는 여우 시체 왼쪽 어깨에는 죽은 개의 시체를 걸고 그다음에 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머리 머리꼭지마다가 머리에다 둘둘 감고 그다음에 또 재 주머니 재 마치 연막탄처럼 재 주머니를 소의 붉은 소의 등 위에다가 얹고 소를 타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나와 함께 싸우러 오면 내가 왕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겠다.

자 이 말을 몰래 엿들은 개가 왕에게 고합니다. 개의 어떤 정보대로 왕은 그런 전투 차림으로 신하와의 싸움에 나가죠.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던 신하 로암다제는 갑자기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 왕이 타고 있던 소가 깜짝 놀라서 마구 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재를 담은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연기가 일어나면서 눈이 앞이 캄캄해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왕을 보위해주던 지켜주던 전쟁의 신이 여우 시체 때문에 더러워서 도망을 쳐버리고 또 양신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는데 빛의 신이죠. 이 신도 개의 시체가 더럽다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임금의 수호신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감아두었던 칼이 풀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임금의 머리에 매달려 있던 천승이라고 그래서 하늘 줄 이거를 잘라버립니다. 저기 하늘 줄이라는 천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티벳 말로는 저걸 무탁이라고 하는데 티벳 왕들의 머리에는 무탁이라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저 무탁이라고 하는 줄은 티벳의 왕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오는 줄이고 티벳의 왕들이 아들이 7, 8살이 되어가지고 왕위를 계승할 때쯤이 되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무탁이라는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바로 줄이 무탁이라는 줄인데 그 줄이 끊어져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정타입니다. 그 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앞이 안 보이는데 왕의 이마에는 거울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신하가 거울을 향해서 활을 쏘았고 드디어 활에 맞은 지끔젠뽀는 살해됩니다. 죽습니다. 신화와의 싸움에서 패한 거죠. 그 과정에서 아들 셋은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요. 이 아들이 도망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무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또 뒤에 이어집니다.

자 바로 이 지금첼뽀가 하늘로 올라가는 등천지승 무탁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이때부터 티벳의 왕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죽어서 지상에 무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서장왕통기>라고 하는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천지 단절이라고 하는 무탁이라는 줄이 끊어져버린 천지 단절 신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경덕왕 표훈대덕> 이야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끊어진 줄의 이야기하고 상황은 좀 다르지만 대단히 유사한 유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티벳의 우리 정치적인 당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6세기에 7세기에 송첼감뽀라는 왕이 티벳 전역을 통일하기 이전에 왕이 지금첼뽀인데 이 시기에 말하자면 왕권과 그 호족들 신하들 사이에 계속 갈등과 싸움이 이어지던 시기가 6세기 또는 5세기 그 이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첼뽀의 신화인데 바로 여기에 이 정치적인 맥락 속에 천지 단절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니까? 티벳 왕들은 자유롭게 천지를 왕래했다 무탁을 통해서 천지를 왕래했다 다시 말하면 티벳의 왕들의 왕권은 하늘이 보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탁이 끊어지면서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 왕의 파위가 단절되어 버렸고 결국은 왕은 더 이상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상에 무덤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무탁이 끊어진 원인 지금첼뽀의 권력욕이죠. 과잉된 권력욕. 이야기 속에서 지금첼뽀가 미쳐가지고 신하에게 로암다제에게 계속 싸움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 왕이 지나칠 정도로 권력에 집착했다는 거죠. 왕이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그래서 적절한 통치를 했으면 무탁이 절단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하면서 결국 무탁이 절단되었고 티벳 왕들의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다. 이것이 티벳 지금첼뽀 신화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경덕왕의 과잉된 권력욕이 결국은 하늘과 땅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라의 성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했다라는 그 결과하고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죠. 천지 단절의 원인은 권력자의 과잉된 권력욕이다. 티벳 신화와 신라의 신화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 구전 천지단절신화와 문헌 천지단절신화의 비교

이제는 경덕왕의 천지 단절 신화 그다음에 티벳 지금첼뽀의 천지 단절 신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역사 정치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천지 단절 신화의 신화적 맥락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비교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불러올 것은 구전되는 신화입니다. 사실은 이런 <삼

국유사)나 <서장왕통기>와 같은 문헌 속에 있는 천지 단절 신화 또는 천지 단절 신화소는 구전되는 신화 속에 있는 천지 단절 신화가 문헌 속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용된 것이죠. 특정한 어떤 권력의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차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 구전 신화 속에 전승되는 천지 단절 모티프 천지 단절 신화는 어떤 모습이고 그 주제는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앞에서 권력과 연결된 천지 단절 신화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전 신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라오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운남 지역에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이 구전하는 신화 속에 왜 하늘과 땅은 이렇게 멀어졌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신화가 있어요. 과거에 옛날 하늘이 아주 낮아서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나무를 타고 또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매일매일 하늘에 올라가서 놀았는데 신이 물으니까 땅 위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늘에 와서 논다는 말을 듣고 천신이 옥황상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할 일을 줬어요. 봉지 하나를 주면서 야 여기 있는 씨앗을 땅에 뿌려라. 그래서 봉지를 열어보다가 바람이 확 불어서 씨앗이 그냥 온 땅에 흩어져서 그때부터 지상에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옥황상제가 이 농사짓고 곡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가축을 어떻게 길러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 지상에서 니네들 끼리 살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죠. 그런데 뿌려놓은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걸 몰랐어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또 그냥 가까운 하늘로 올라가서 또 물어봐요 귀찮게 그러니까 이제 옥황상제가 신선을 보내가지고 벼는 이렇게 뿔아가지고 해먹는 거야 밥을 해먹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옥황상제가 신선에게 곡식을 뿔아가지고 음식을 해먹되 밥을 해먹되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한 번씩 먹어야 한다 이런 어떤 일종의 규칙 규율 같은 거를 전해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메신저가 문제가 되죠. 메신저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합니다. 사흘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 먹으라는 말로 잘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루에 세 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아침 저녁 저녁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 먹으니까 먹은 만큼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지상에 똥 냄새가 넘치니까 가까이 있던 하늘이 도대체 인간들의 냄새 때문에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 원인을 따져보고 자기 신선에게 벌을 준 이후에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을 데리고 그냥 높이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쉽게 하늘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 속에서는 나름대로 하늘과 땅이 단절된 원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전 신화 속에서 천지가 단절된 원인은 뭘까요. 구전 신화 속에서 인간이 지나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자료를 하나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헌에 기록된 신화인데요. 중국 신화에 보면 중국에 이제 사서삼경 가운데 삼경 가운데 <서경>. <시>, <서>, <역>에서 <서경>이라는 책

이 있죠. 다른 이름으로 <상서>라고 하는데 <상서> 가운데 주나라와 관련된 <주서>의 <여형>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주나라 목왕이 말했다. 묘민은 서로 속이고 분란을 일으키며 신의를 거슬러 맹약을 저버리고 형벌을 받은 자나 모욕을 당한 자들이 모두 상제에게 자기 무죄를 일러 바쳤다. 상제가 묘민을 살피니 향기로운 덕정은 없고 형법이 풍기는 비린내만 있었다. 황제가 죄 없이 해를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학행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묘민을 멸절시켜 다시는 세상에 후손이 남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과 여를 시켜서 신사와 치민을 담당하게 하고 하여 민과 신 인간과 신이 서로 통하는 길을 끊어버려” 바로 이 대목이 인간과 신이 서로 통하는 길을 끊어버려서 이게 천지 단절이죠. “서로 오르내리며 섞이지 못하게 했다. 고신 요순이 뒤를 이어 세상을 다스리매 현덕한 이를 기용해서 상도로 치리케 하니 백성들의 괴로움이 가려지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신 요순이 세상을 다스리자 세상이 평화로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거죠. 이것은 고대 주나라 목왕 중국의 주나라 목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주나라 목왕과 관련된 주나라 목왕이 여후라고 하는 자기 신하에게 하는 말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후 맥락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랜 옛날에는 하늘에 상제가 있고 지상에 묘민이 있는데 묘민들이 상제 하늘의 상제가 있는 하늘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자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를 도와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자주 하늘을 오르내리니까 뭔가 질서가 없어져서 황제가 그 나쁜 일을 악행을 저지르는 묘민을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말하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질서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기록 속에 이 이야기 배후에는 앞에 구전 신화에서 단순히 너무 많이 먹어서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다른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 속에는 일종의 중국의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중화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맥락이 이 이야기 속에는 개입되어 있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중심에 있는 한족과 주변에 있는 이족의 관계로 세계를 봅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고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은 중심에 있는 자신들이 다스리고 교화해야 될 존재로 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등장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묘민은 바로 그 이족들의 상징입니다. 이족들 악행을 저지르는 이족의 상징 그 상징을 황제로 표상되고 하는 한족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배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묘민들이 이족들이 하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신의 뜻을 서로 어지럽게 하니까 하늘의 뜻은 우리만 말하자면 컨트롤하고 이족들은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 이 새로운 질서 그제 황제가 중과 여라는 신하에게 신의 일과 백성을 다스리는 일 특별히 신의 일을 처리하게 했다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은 한족이 한족의 후예인 고신 요순으로 이어지는 존재들의 몫이고 주변에 있는 이민족 이족들은 직접 하늘로 오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새로운 질서 중화적 질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상서>에 있는 천지 단절 신화고 이것은 또 다른 형식으로 권력 의지가 변주된 신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주나라의 절지 천통 신화 이걸 절지 천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 신

화학에서는 이 천지 단절을 절지 천통이라고 하는 중국어 표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전 신화 속에서 보는 천지 단절의 문제는 원래 질서가 있었는데 천지가 단절됨으로써 어떤 혼돈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카오스적인 그런데 이 <상서>에 있는 신화는 원래 혼돈의 상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민이 세계를 어지럽히니까 혼돈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황제가 천신이 단절시킴으로써 새로운 코스모스 질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지 단절 신화의 중화주의적 포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신화적 관념들이 이렇게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전 신화로 표현될 때는 구전 신화로 표현될 때는 말하자면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 생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단절되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지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간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왕권과 결합되어서 변형되면 그리고 문헌에 기록되면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질서의 파괴, 종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형이 됩니다. 같은 천지 단절 신화소라고 하는 것이 구전의 현장에서 표현될 때 하고 문헌을 통해서 왕권과 결부되어서 표현될 때 의미의 맥락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천지 단절의 신화를 해석하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항상 욕망은 뭔가 이렇게 흘러넘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욕의 상태는 생성으로 가기도 하고 소멸로 가기도 하고 창조로 가기도 하고 파괴로 가기도 합니다. 앞에서 봤던 구전 신화의 경우에는 생산과 창조로 문헌 신화의 경우에는 왕권과 결부되면서 소멸과 파괴로 간다는 것이 천지 단절 신화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천지단절신화가 말하는 인간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천지 단절 신화라고 하는 독특한 신화 형태를 한국 신화를 통해서 또 한국 신화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수 민족 티베트의 신화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천지 단절 신화가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빨지 않으면 젖을 빨 힘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 힘 때문에 인간은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욕망은 항상 과잉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과잉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과욕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인간 두 개의 상반되는 인간의 모습 바로 이런 것이 천지 단절 신화를 통해서 표현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신화에서 ‘줄’의 상징정은 원형적 체험, 자연의 체험, 문화적 체험의 종합을 통해 형성된다. (O/X)

정답: O

2. 향가, 설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경덕왕대(742-765)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대였다. (O/X)

정답: O

3.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은 경덕왕이 등장하긴 하나 정치적 요소의 개입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 (O/X)

정답: X

4.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에 등장하는 충담사는 향가 <찬기파랑가>의 작가이다. (O/X)

정답: O

5. 티벳의 천지단절신화(지끔쟁뽀 신화)는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과 대응되는 ‘권력욕의 과잉’이 나타난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신화 속 '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줄의 상징성은 여러 방면의 종합적 체험으로 형성되며, 이것이 곧 줄의 신화로도 연결된다.
- ② 수로신화, 세경본풀이 등의 신화에 '줄'이 등장하며, 이는 하늘과 땅의 소통 부재를 상징한다.
- ③ 천지단절신화의 '줄'은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닿게 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끔 한다.

정답: ①

2. 다음 중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충담사가 <안민가>를 지은 유래가 드러난다.
- ② 표훈대덕 이후로도 성인의 탄생이 이어졌음이 묘사되어 있다.
- ③ 왕은 나라가 위태로워지더라도 대를 이을 남아가 있다면 만족할 것이라 말한다.

정답: ②

3. 다음 중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에 내포된 정치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통 왕위 계승자의 부재로 인한 왕권의 약화
- ② 왕비의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
- ③ 불교의 기승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답: ③

4. 다음 중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에 나타나는 천지 단절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표훈대덕의 무질서한 천지 왕래
- ② 경덕왕의 권력욕 과잉
- ③ 경덕왕의 지방분권 실패

정답: ②

5. 천지단절신화의 관점에서, 구전신화와 문헌신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전신화는 단절이 곧 창조로 연결되나, 문헌신화에서는 단절이 곧 파괴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 ② 구전신화는 왕권 신화로, 문헌신화는 천지단절 신화로 연결된다.
- ③ 구전신화는 욕심의 소멸, 문헌신화는 욕심의 생성에 초점을 둔다.

정답: ①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단군신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선녀와 나무꾼 등의 한국신화에는 하늘-땅, 인간-신을 ○○하는 줄이 등장하나, 천지단절신화는 하늘과 인간을 ○○하는 줄의 등장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연결, 단절

2. 천지단절 신화에서 천지단절의 사건은 경덕왕과 관련한 ○○적 은유라고 볼 수 있다.

정답: 정치

3. 구전신화(천지단절신화)에서 단절의 개념과 과욕의 경로는 모두 ○○(으)로 이어진다.

정답: 생성(창조)

나. 토의(30분)

각 문화권에 나타나는 줄의 상징성과 신화, 그리고 줄을 변형물의 의미에 대하여 토의해 본다.

다. 과제(60분)

제주도 신화의 천지를 연결하는 줄인 '노각성자부줄'의 정체를 분석하는 글을 써 본다.

〈제5강〉

시조신화와 한국의 건국신화

학습 목표

1. 시조신화와 건국신화의 개념을 알아본다.
2.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과 국가적 사회의 사냥 간의 관계를 통해 시조신화와 건국신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3. 신화소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러 건국 신화를 정리한다.

강의 핵심 요약

한국의 시조신화와 건국신화를 다루었다. 시조신화는 시조의 탄생과 성씨를 얻는 과정을 통해 씨족 집단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로 정의할 수 있다. 건국신화는 건국자의 신이한 탄생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국의 신성함을 정당화하는 신화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나라를 세우고 고대 국가를 세운 성씨의 시조는 그 성씨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건국자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국 신화는 건국 시조에 관한 신화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조신화와 건국신화 사이에는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과 국가적 사회의 사냥 간의 관계와 견주어볼 수 있다.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은 의례적 사냥으로 동물들을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여긴다. 시조신화는 비국가적 신화의 사냥에 대응한다. 반면에 국가적 사회의 사냥 후 의례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고, 동물은 성스러운 왕을 위해 희생된다. 건국신화는 국가적 사회의 사냥에 대응하여 왕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임을 이야기한다.

건국신화의 구조적 특징과 본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국신화는 세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견자와 중개자, 실현자가 그것이다. 시조신화는 최고신의 권위를 빌려올 필요가 없어서 파견자 기능이 없다. 이와 달리, 건국신화는 파견자를 통해 최고신의 위대한 뜻을 천명하고 중개자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집단의 혈연적인 혹은 이념적인 동질성을 구현함으로써 집단을 통합하며 실현자를 그 통합의 표상으로 내세우는 이데올로기 즉 이념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건국신화들을 신화소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먼저 출생의 단계가 있다. 이후 고난, 결혼, 투쟁을 거쳐 건국에 이른다. 마지막에는 나라를 세운 왕이 죽고 신이 된다.

◆ 강의 내용 전문 ◆

도입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시조 신화와 한국의 건국 신화입니다.

강의 순서

1. 시조신화와 건국신화의 개념
2. 두 가지 사냥 형식과 신화
3. 건국신화의 구조
4. 한국의 건국신화들
5. 한국 건국신화의 원형화소들

1. 시조신화와 건국신화의 개념

시조 신화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시조 신화는 시조의 탄생과 성씨를 얻는 과정을 통해 씨족 집단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 고씨가 있는데요. 고씨는 고구려로부터 비롯된 성씨 가운데 하나인데 고씨의 시조는 고구려를 건국했던 고주몽이죠. 이런 시조 신화가 있고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성씨가 고씨, 양씨, 부씨 세 성씨인데 이 세 성씨의 기원에 관한 신화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고씨, 양씨, 부씨의 선조가 되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삼성혈이라고 하는 그런 땅속에 있는 그 구멍으로부터 또는 굴로부터 솟아 나왔다고 하는 신화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유명한 장수로 김해 김씨 김유신이 있는데 김유신은 본관이 김해인 김씨입니다. 나중에 신라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김해 김씨의 시조에 해당하는 인물이 수로죠. 수로는 성이 김씨고 김수로라고 합니다. 뭐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시조 신화는 어떤 특정 성씨들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조 신화는 씨족의 기원에 관한 신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조 신화와 달리 건국 신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국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거죠. 파운딩 미스(Founding myth)라고 하는데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건국자의 신이한 탄생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국의 신성함을 정당화하는 신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것이 고조선의 <단군신화>죠. 고구려의 <주몽 신화>도 그런 사례고요. 신라를 건국했던 박혁거세, 가야 또는 가락국을 건국했던 김수로 수로왕의 신화 같은 것들이 건국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 신화와 건국 신화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죠. 어떤 성씨의 기원이 되는 그런 영웅적 인물이 나라를 세운 경우도 있고 세우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고대 국가를 세운 성씨의 시조는 그 성씨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건국자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건국 신화는 건국 시조에 관한 신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주몽은 고씨의 시조신화 시조이면서 고구려의 건국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시조 신화와 건국 신화의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조 신화와 건국 신화의 관계를 이렇게만 설명하고 나면 모든 걸 다 설명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시조 신화와 건국 신화 사이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정의 말고 더 사실은 심층적인 의미가 양자의 관계 속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두 가지 사냥 형식과 신화

지금부터 그 점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건국 신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국 신화는 뭘까요?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냥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아 저는 두 종류의 사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사냥은 국가가 아닌 사회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니브호족이라고 하는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아무르강 하류와 사할린 그 지역에 소수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곰을 사냥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새끼 곰을 숲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가족들처럼 마을에서 주민들이 키웁니다. 숲에서 새끼 곰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곰을 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곰을 가족처럼 일정 기간 키운 다음에 특정한 사냥의 날이 되면 의례적으로 그 곰을 죽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니브흐족의 곰 사냥입니다.

러시아 학자인 크레이노비치라는 학자가 이 니브흐족을 찾아가서 곰 사냥을 하는 장면 곰 의례를 지내는 장면을 보고 스케치한 그림이 지금 옆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진도 있죠. 곰을 키운 다음에 곰 사냥하는 날이 되면 곰을 말하자면 몰고 나와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집집마다 인사를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음식을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듯이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연회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곰을 묶어서 곰을 사냥하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곰을 묶어놓고 화살을 쏘아서 곰을 살해한 뒤에 곰을 껍질을 벗기고 살을 해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해체한 살 나눠진 살들은 니브흐족 종족의 구성원들이 다 나눠서 먹고 뼈는 다시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 뼈 안에 그 곰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곰의 혼으로부터 곰이 재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뼈는 모아서 따로 장례를 치룹니다. 이것이 니브흐족의 곰 사냥 방식입니다.

근데 이 사냥을 이 의례를 조사했던 러시아 학자가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곰을 사냥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니브흐족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화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니브흐 사람 하나가 사냥 도중에 길을 잃고 식량이 바닥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곰을 잡으려고 곰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굴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굴 안에 들어갔더니 굴 속에는 곰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 지친 사냥꾼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와서 여기 와서 쉬라 음식을 먹으라 술을 마셔라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내 대접을 받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 봄이 왔을 때 어느 날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강 하류 지역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사냥을 하러 올 텐데 우리 중 누가 손님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서로 가지 않으려고 발을 빼죠. 그때 한 여자가 내가 가겠다. 하면서 바로 그 니브흐 사냥꾼을 데리고 굴을 나와서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 굴을 나가기 전에 그 여자가 굴에 걸려있던 털가죽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여자는 곰의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곰은 굴 밖으로 나가서 곰 사냥을 하러 온 사람들의 창에 찢려 죽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니브흐 사람은 다시 굴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아 저 이 곰이 곰이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사실은, 곰의 모습을 한 사람이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니브흐 사냥꾼이 굴속에 다시 돌아와 있을 때 조금 전에 손님으로 나가서 곰의 몸으로 손님으로 나가서 찢려 죽었던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이미 다시 재생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숲에서 네가 길을 잃어서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사실은 내가 길을 잃도록 우리가 널 유인한 거야 이쪽으로 우리한테 데리고 와서 너한테 우리들의 규칙 우리들의 규칙을 너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이 뭘까요. 봄이 되어서 하류 지역에 친구들이 사냥을 하러 오면 우리 중 누군가 한 사람은 나가서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어야 한다 바로 그게 우리 규칙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대답을 크레이 노비치라고 하는 인류학자에게 니브히 노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이 신화적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사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 니브히족들은 곰에 대해서 아 곰은 곰이 아니고 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들도 가죽만 벗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곰은 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곰신이기도 하구나.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통틀어서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세계관 말하자면 니브히족들에게 곰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사냥하고 마는 사냥감으로 삼아서 고기를 얻고 마는 그런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따라서 저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저들을 잡을 때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 저들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손님으로 우리에게 보내 줄 때 손님으로 올 때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 곰 사냥 니브히족의 곰 사냥에서 알 수 있듯이 곰을 잡아서 곰을 먹긴 하지만 곰의 뼈를 모아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그 뼈로부터 곰의 혼령이 곰의 몸이 다시 재생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동시에 그 의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음식들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저 곰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야 된다는 그런 상호성의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제를 좀 더 환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얘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바다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물고기를 내가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물고기를 서로 다투어 잡기 시작하죠. 서로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많이 잡아서 누가 많이 돈을 버는가 그런 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이 개념화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죠. 자원 물, 공기 등을 함께 사용해야 될 자원들을 시장 경제에만 맡겨놓으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위기에 봉착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따라서 따라서 함께 이용해야 될 자원을 자원은 자원은 적절히 분배되도록 말하자면 사회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물고기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서로 사회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일정한 숫자만 잡자 먹을 만큼만 잡자. 집에 집이 어렵거나 식구가 많거나 이런 집들은 더 잡아도 된다. 그러나 먹을 만큼만 적절히 잡자라는 어떤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려고 하면 바로 이 두 번째 선택을 사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브히의 그 사냥 의례에서 알 수 있는 사냥의 방식은 바로 그 두 번째 선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그 사회가 말하자면 공유지의 비극을 이미 예견하고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의례적 사냥을 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원시 사유 야생의 사유라고 하는 원시 사유 속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일반 일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니미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세계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례를 한두 개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일본 감독이 있었습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인류학적 영화로 평가를 받고 칸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나라야마라고 하는 산 밑에 살고 있는 산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몹시 춥고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생존이 아주 문제시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누구나 70이 넘으면 나라야마 산으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 식구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70 넘은 노인은 마을에서 말하자면 쫓아내는 방식이죠.

왜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런 윤리 같은 것들이 이 나라야마 마을에 생겼을까요. 이것은 이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규칙을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이 영화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 이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자식이 많은 집의 부모가 겨울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남의 감자를 훔칩니다. 몰래 훔칩니다. 그것이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도둑질이. 그때 마을 사람들의 선택은 모두 자기 집에 있는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 도둑질을 한 집안 사람들 도둑질을 가족을 구타해가지고 말하자면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제재 방식이죠.

왜 그런 걸로 보면 대단히 비극적인 끔찍한 일이긴 한데 왜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식의 어떤 규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뺏아서 훔쳐서 먹으면 다른 집이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존의 윤리학 생존의 윤리를 마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니브히족의 사냥의 어떤 윤리 이 속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에 한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시습의 글 가운데 사물을 사랑하는 <사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이런 물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너무 굵은 그물을 코가 굵은 가는 너무 가는 그 물을 물속에 넣지 않는 것. 너무 가는 그물을 물속에 넣는다는 것은 뿔니까 새끼 물고기까지 다 잡는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새끼 물고기까지 다 잡으면 물고기가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사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정신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시습의 이런 생각은 바로 원시 사유 그리고 애니미즘이 말하는 자연에 대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다른 사냥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국가 사회 국가적 사회의 사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고구려의 무덤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 무사들이 고구려의 무사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을 벽화로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수렵도>라고 하고 이 그림이 나온 무덤을 수렵총이라고 부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고려의 무사들이 말을 달리면서 도망가는 사슴과 호랑이 같은 것들을 사냥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냥의 의미는 어

뎌 걸까요.

이 사냥의 의미를 좀 알려면 이런 자료를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일종의 중국 고대 시집들이죠. 시를 민요들을 모아놓은 시집인데 경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유명한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경>의 시 가운데 <거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수레 거자와 칠 공자 뭐 이런 한자를 쓴 <거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거공>이라는 시는 주나라 선왕의 전렵을 묘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렵이라는 것은 들판에서 사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를 잠깐 볼까요. “내 수레는 벌써 손질을 마쳤고 내 말도 벌써 준비를 마쳤네 씩씩한 네 마리 수말 수레 몰아 동쪽으로 달려가리라.” 자 사냥의 준비죠. “수레는 벌써 마련되었고 씩씩한 네 마리 수말 동쪽에 있는 좋은 사냥터 수레 몰아 달려가 사냥하리라” 사냥터가 동쪽에 있고 그 동쪽으로 가서 사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냥 떠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님 여기서 우리님은 천자를 말합니다. 이 사냥은 여름에 떠나는 정기적으로 여름에 가는 사냥입니다. “여름 사냥 떠나시니 시중꾼 뿜는 소리 떠들썩하네 현무 깃발 쇠꼬리 깃발 높이 세우고 오 땅에 달려가 사냥하리라” 오나라 오 땅이라는 것은 중국의 장강 이남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자 “네 말이 수말이 끄는 수레 가지런히 잘도 달리네 붉은 슬갑 금빛 신발 모여드는 제후들 끊임이 없네.” 자 사냥터로 달려가는데 거기에 여러 곳에서 그 사냥에 합류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후들이 말하자면 천자가 있고 천자의 아래에 있는 제후들도 그 여름 사냥에 다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사냥 장면입니다. “각지 팔찌 차례로 늘어놓고 활도 화살도 벌써 손질을 마쳤네 공사들은 화살을 날리고 돌아와 쌓인 짐승들을 들어올리네 수레를 끄는 것은 네 필 공골말 결말은 결말대로 자리를 지키네 교묘히 말을 몰아 달리면 화살은 꿰이듯 바로 꽂히네.” 자 여기까지가 사냥의 장면들입니다. 자 이제 사냥이 끝났습니다. “조용한 말들의 울음소리 유유히 나부끼는 깃발 보병도 기병도 조용히 걷고 수라간엔 남은 짐승이 많지 않네” 말하자면 사냥이 끝나고 돌아와서 뒷정리가 되는 장면인데 말들조차도 조용할 정도로 질서 정연한 모습 말하자면 명령 체계가 잘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라간엔 남은 짐승이 많지 않네”라는 시구는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 짐승들이 엄청나게 사냥을 해서 짐승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천자가 그렇게 잡은 짐승들을 제후들과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천자의 말하자면 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님 사냥 가셨다더니 씻은 듯 소리 하나 들리지 않네 자 이런 군자께서 윗자리에 계신다면” 이런 군자께서 천자로 계신다면 “틀림없이 큰일을 하시리라” 천자의 사냥을 통해서 천자의 덕성을 드러내고 마지막에는 그 덕성이 있는 천자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이런 분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찬양의 말로 시가 맺어지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천자의 사냥 모습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천자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냥

에서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의 입장들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아까 비국가적 사회 다시 말하면 니브히족의 사냥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올 때 우리는 그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냥의 세계관 동물들을 대하는 니브히인들의 세계관과 이 주나라라고 하는 <시경>이 노래하고 있는 국가사회의 사냥감이 되는 동물에 대한 생각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그냥 사냥감일 뿐입니다. 곰 사람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저들은 사냥의 대상이고 우리가 잡아서 먹을 대상이지 우리하고 똑같이 존엄스러운 존경해야 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죠. 이런 사냥에서는 짐승이 많이 잡힐수록 천자의 능력이 왕의 과위가 외부로 과시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 원시 사회 니브히족의 사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잡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잡고 한 마리만 잡고 마리 수가 정해져 있고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죽인 후에도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의 생명이 그 때로부터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국가 사회의 사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고구려의 <수렵도>에 보이는 그 장면은 한편으로는 고구려 무사의 씩씩한 기세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물에 대한 존중의 세계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고구려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이 고려 시대의 이규보가 이규보라는 작가가 쓴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명왕 고주몽 주몽의 이야기를 그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몽이 주몽이 말하자면 서쪽 지역으로 가서 수렵을 했다. 사냥을 했다. 그리고 흰 사슴을 잡았다. 그리고 흰 사슴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사냥 행사 조금 전에 <시경>에서 봤던 중국 천자들의 정기적인 사냥 행사인 전렵과 같은 것입니다.

자 광개토왕이라는 고구려에 대단한 왕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구려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혔던 왕인데 그 왕의 비문이 거대한 비문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렵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 역시도 왕의 정기적인 사냥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달리는 낙랑 회렵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매년 3월 3일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매년 3월 3일날 정기적으로 거행되었던 고구려의 국가적 사냥이었고 그것과 동시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려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바보온달> 이야기 오늘날까지 옛날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보온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평강 공주가 온달과 결혼해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온달과 결혼해서 사는데 그 온달을 훈련시켜서 온달이 유명한 어떤 말하자면 명사수가 되고 훌륭한 무사가 되어서 왕으로부터 평가받았던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고구려가 3월 3일날 낙랑 회렵을 했던 했을 때 바로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참여한 무사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기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 무사가 누구냐 바로 평강 공주의 남편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바로 거기서 왕이 온달을 발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국가적인 사냥 행사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사냥은 국가적 의례에 사용할 희생물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자 그것이 동시에 군사 훈련이고 왕의 통치 영역을 확인하는 과시적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짐승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죠. 그 짐승들의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적군이 있으면 그게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군사훈련이죠. 전쟁 연습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내가 다스리는 영토다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대 국가 왕의 사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이 사냥에서의 동물은 존중받는 동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국가의 사냥하고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은 사냥감이 되는 동물에 대한 세계관 세계 인식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길게 두 가지 사냥에 대해서 두 가지 사냥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그런 예를 들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조 신화와 건국 신화의 관계가 바로 이 두 사냥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은 의례적인 사냥인데 국가 사회의 사냥은 사냥 후에 의례를 드린다는 거죠. 사냥 후의 의례는 그 사냥감을 존중하는 의례가 아니고 그 사냥감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느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하늘이 바로 그 국가의 왕에게 그 왕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례인 거죠. 따라서 저 의례는 그 동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밑에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국가적 사회의 그 사냥 의례에서 그 동물은 성스럽기는 하는데 성스러운 왕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왕의 필요 의해서 저 동물은 성스러운 동물이다라고 왕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감 희생의 제물이 되는 동물은 좀 특이한 동물들이겠죠 당연히. 사슴 가운데도 흰 사슴, 말이라도 흰말 이런 것들이 성스러운 왕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국가적 사회의 짐승들 동물들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이고 그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각각의 국가적 사회와 비국가적 사회에 대응되는 사냥의 형태와 그 신화는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 의례에 대응하는 신화가 바로 시조 신화이고 국가적 사회의 사냥 형식에 대응하는 신화가 바로 건국 신화 또는 왕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왕권 신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건국 신화라는 것은 시조 신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건국 신화는 시조 특정 성씨 집단의 시조가 국가를 세우면서 건국 시조 신화로 전환된 것이지만 양자 사이에는 사이에는 엄청난 세계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 건국신화의 구조

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사냥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건국 신화의 어떤 구조적 특징과 본질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신화를 잘 살펴보면 건국 신화는 세 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구려 건국 신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에 해모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유화와 결혼을 하죠. 유화는 압록강의 압록강에 있는 물의 신 하백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가 자기 형제들하고 자매들과 그 백두산에 있는 연못에 웅심수라고 하는 그런 연못에 나와서 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가 유화를 유혹하고 사로잡아서 말하자면 해모수와 유화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해모수는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유화가 아버지 하백 몰래 해모수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서 유화는 동부여의 금와왕에게 구출이 되어서 금와왕에 잡혀서 그 금와왕의 궁궐에서 주몽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해모수의 원래 그 자리는 하늘이고 해모수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존재는 하늘에 있는 천신, 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이 자기 배다른 형제들한테 시달리다가 그 동부여로부터 탈출해서 고구려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구려의 건국 신화 고주몽의 건국 신화입니다.

자 이 신화의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등장합니다. 주몽이 파운더(founder)죠 나라를 세운 건국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는 그 건국자가 하늘에서 천상에서 바로 지상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중개자가 존재합니다. 그 중개자에 해당하는 존재가 천신인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와 수신 하백의 딸인 유화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는 이 두 존재가 중개자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결합에 의해서 건국자가 나타나고 그 건국자가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말하자면 새로운 나라를 지상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그 지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핏줄을 지상에 보낸 천상의 신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상에 세운 나라가 천상의 어떤 천명이라고 하는 천명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천명에 의해서 지상에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따라서 천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하늘이 뒤에서 말하자면 보증하는 하늘이 도와주는 하늘이 지키는 그런 나라라는 뜻을 이 건국 신화가 말하자면 가지고 있고 건국 신화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국 신화에는 항상 파견자가 있고 중개자가 있고 실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이 중개자의 결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국가가 건국되는 과정은 특정한 한 성씨 집단이 혼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성씨 집단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씨 집단을 통합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때

문에 그것을 결혼이라는 형식 결혼 동맹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중개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국 신화는 파견자, 중개자, 실현자라는 세 개의 기능으로 이루어진 서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조 신화는 세 개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견자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대개 파견자는 아주 최고의 신 수프림 갓(supreme god)이라고 해서 최고의 신 지고의 신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시조 신화에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식의 권위를 빌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숲의 신인 곰의 후손이다. 우리는 늑대의 후손이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만으로써 자신의 씨족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동물에 있는 그런 숲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동물들과 자신들의 친밀한 관계만 표현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시조 신화에는 파견자 기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건국 신화는 파견자를 통해 최고신의 위대한 뜻을 천명하고 중개자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집단의 혈연적인 혹은 이념적인 동질성을 구현함으로써 집단을 통합하고 실현자를 그 통합의 표상으로 내세우는 이데올로기 즉 이념적인 서사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국 신화의 구조적 특징과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 한국의 건국신화들

자 이제 어떤 한국의 건국 신화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건국 신화와 시조 신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례를 들었는데 한국에는 이런 건국 신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고대 국가들이 있었고요. 그 고대 국가들은 다 자신들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른바 중세 국가들도 자신들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의 신화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신화가 고조선의 <단군신화>고요. 고구려의 <주몽 신화>가 있습니다. <주몽 신화>와 함께 <주몽 신화> 속에 등장하는 북부여의 해모수, 동부여의 금와왕의 신화도 함께 이 신화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부여의 해모수, 동부여의 금와의 신화는 일종의 왕권에 왕권과 관련된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몽의 건국 신화 속에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신화 자료가 없습니다. 건국 신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경우에는 고구려 고구려의 고구려에서 말하자면 탈출해서 고구려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남하해서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백제 쪽에 그 자료들이 다 역사 자료들이 다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전해지는 건국 신화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전설적인 자료들만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신라의 왕들은 박씨, 석씨, 김씨 세 성씨들이 번갈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내물왕부터 김알지 후손인 김씨들이 계속 왕권을 지속시키는 그런 일련의 변화가 생기고 그 점은 고구려나 백제와는 좀 다른 국가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건 신라의 건국 신화는 박혁거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 석탈해 석씨의 시조인 석탈해,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신화가 또 곁들여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남쪽에는 가야라고 불리고 가락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고 모두 다 12개 또는 그 이상의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대가야, 금관가야가 가장 규모가 큰 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금관가야를 세운 인물이 김수로인데 <삼국유사>에는 김수로왕의 신화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김수로왕의 신화가 가락국 신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석리정전>이라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거기에 그 천신과 그 가야산의 산신이 결혼해서 두 형제를 낳았는데 그 형제가 뇌질주일과 뇌질청예다 그들이 각각 나라를 세웠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뇌질주일은 대가야를 세웠고요. 뇌질청예는 금관가야를 세운 인물입니다. 이 뇌질청예가 바로 김수로의 말하자면 다른 이름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김수로왕의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뇌질주일, 뇌질청예 신화를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주도에 과거에 탐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고대 국가. 이 고대 국가는 아까 삼성 신화라고 해서 땅속에서 고씨, 양씨, 부씨라고 하는 세 성 씨가 솟아 나와서 말하자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다가 그 가운데 세력이 가장 컸던 고을라가 통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탐라국이다. 이런 어떤 제주도의 일종의 건국 신화라고 할 것이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구려의 고려의 <왕건 신화> 왕건의 신화는 왕건의 조상들에 관한 신화입니다. 이것은 <고려사>라고 하는 고려의 역사서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의 신화라고 할 것들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성계의 어떤 위에 조상들에 관한 신화가 이성계의 어떤 건국과 관련된 신화소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고대의 신화들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화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5. 한국 건국신화의 원형화소들

이 한국의 신화들 건국 신화들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출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운 왕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생이 출생이 비범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국주들은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신화학에서는 난생 신화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주몽 어머니 유화가 거대한 큰 알을 낳죠. 그래서 그 알을 동명왕이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버렸더니 말들이 동물들이 그걸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주죠. 그래서 방 한 가운데 왔더니 바깥에서 햇볕이 비쳐 내려와서 알을 계속 비칩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알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주몽이라고 하는 영웅이 탄생하죠. 신라의 박혁거세, 가락국의 김수로 역시도 다 알 속에서 나왔습니다.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천상에 있는 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 숨어 있는 신으로서 위에 부계 혈통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특이하게도 암혈이라고 해서 바위 굴 땅속에 있는 굴 구멍 이런 데서 말하자면 솟아나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해안 지역의 섬이고 제주도가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는 수없이 많은 동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초기 제주도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서 다 살았죠. 아마 이런 어떤 집단적인 기억이 시조가 구멍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신화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과 관련된 출생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경우에 다음 시간에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의 경우에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는 존재가 곰과 결혼을 해서 곰과 결혼을 해서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죠. 말하자면 이런 신성한 동물들 니브히 시조 신화에서 니브히 신화에서 보이던 곰과 같은 그런 신성한 동물들이 출생에 관여하는 그런 자료들도 한국 신화에 한국 건국 신화에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고려는 수신인 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출생이. 고려를 세운 이것은 왕건이 용의 후손 용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고 용건의 아버지가 작제건인데 작제건은 서해 용왕의 딸인 용녀 저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용녀가 낳은 인물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런 신화적 맥락에 따라서 고려 왕실 왕실의 핏줄에는 서해의 수신, 서해의 용신인 서해 용왕이라고 하는 신성한 핏줄, 신성한 혈통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의 단계는 이렇게 영웅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태어난 것만으론 안 되고 버려져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때 버려집니다. 주몽 버려지죠? 알로 태어났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건 작제건도 고려의 작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려집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고구려 주몽이 또 성장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죠. 동부여의 금와왕의 궁궐에서 살면서 금와왕의 아들들인 대소와 다른 아들들한테 계속 학대를 받습니다. 그것은 주몽이 동부여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 남쪽으로 떠나오면서 동부여에 남겨두고 온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낳은 왕자가 유리인데 유리 역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습니다.

자 이 고난들이 결국은 이 영웅을 만들죠. 통과외레 어떤 테스트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동굴 속에서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일정한 시간을 견디는 시험을 당하죠. 고려의 작제건 역시도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배를 타고 중국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할 위험에 처하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짐을 뺍습니다. 체비를 뺍습니다. 그때 바로 뺍힌 사람이 작제건이죠. 그래서 뺍사람들이 그 작제건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런 과정 이런 통과 의례 과정을 겪는 것이 건국 영웅들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결혼 단계가 있습니다. 대개 앞에 홍수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신인혼, 인신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국 영웅의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인간과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결혼 이런 형식이 많이 표현됩니다. 고조선도 그렇고요. 고려의 작제건과 용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혼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뺏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탈혼이라고 그래서 뺏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탈혼 방식은 유목민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몽골 신화에 보면 이런 약탈혼 형식의 모습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고구려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신화에도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혼이라고 그래서 방문혼이라고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가는 형태. 제주도의 경우나 제주도 탐라국의 경우나 가락국의 경우나 이런 방문혼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결혼 형식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남매혼 형식도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남매혼 홍수 신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라 자료의 경우에는 신라의 서쪽에 있는 서악 서악에 산신이 있는데 그 산신이 여산신이 혁거세와 혁거세 부인인 그 알영을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혁거세와 그 부인이 결혼을 한 것이니까 일종의 남매혼 형식이 건국 신화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쟁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주몽은 송양이라고 하는 단군의 후손과 변신 대결을 합니다. 석탈해와 김수로도 같은 변신 대결 계속 동물들로 변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경쟁을 벌이죠. 그다음에 통과 의례 대결이라고 해서 호랑이와 고조선의 호랑이와 그다음에 곰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누가 견디느냐 하는 그런 대결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곰이 승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활쏘기 사냥 이런 형식의 대결을 통해서 영웅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다섯 번째가 건국 나라를 세우는 거죠. 건국은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살던 지역에서 탈출해서 건국을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또 가락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는가 하는 그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신화로 표현될 때 이동 후 건국 또는 협력을 통한 건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6개 부 6부가 있었고 6개의 씨족이 있었는데 그 6개 씨족들 대표가 모여가지고 새롭게 신성하게 태어난 혁거세라고 하는 알에서 태어난 존재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죠. 이게 협력을 통한 건국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 마는 주몽은 동부여에서부터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건국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

니다.

마지막에 나라를 세운 왕들은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죽은 다음에 신이 됩니다. 신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단군이나 그다음에 고려의 호경은 산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주몽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천신이 되죠. 그다음에 신라의 박혁거세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몸뚱아리가 5개로 나뉘어져서 지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했더니 뱀이 나타나서 그 시신이 합체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덤을 5개를 만들죠. 그래서 신라의 경주에 가면 지금도 오릉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박혁거세는 이렇게 지상에 5개의 능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혁거세가 죽은 후에 농사를 담당하는 말하자면 박씨의 시조신이면서 동시에 농경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신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신화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것이 신라 오릉의 모습입니다. 김수로왕의 경우에는 따로 없고 지상에 능묘를 세우는 그런 방식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영웅들은 죽은 뒤에 특정한 특정한 성씨의 시조신이 되는 조상신이 되는 것은 다 공통의 경우인데 그 공통의 경우에는 조상신이 되고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는 것 말고도 산신, 천신의 형태 농경신의 형태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화소 별로 한국의 건국 신화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건국신화(founding myth)는 씨족기원신화라고도 일컬어진다. (O/X)

정답: X

2. 시조신화는 건국신화의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다. (O/X)

정답: X

3. 건국신화는 '파견자-중개자-실현자'라는 3기능 구조를 지닌 이데올로기적 서사라 할 수 있다. (O/X)

정답: O

4. 변신, 통과의례, 사냥 대결 화소는 한국 건국신화의 주요 화소이다. (O/X)

정답: O

5. '협력을 통한 건국' 화소가 나타나는 신화로는 고조선, 고구려, 신라의 신화만을 들 수 있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시조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조의 탄생과 성씨를 얻는 과정이 묘사된다.
- ② 씨족 집단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 ③ 주인공의 패배로 인한 씨족의 형성 구조가 일반적이다.

정답: ③

2. 다음 중 건국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 ② 피통치자의 신성함을 정당화하는 신화이다.
- ③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제시된다.

정답: ②

3. 다음 중 국가적 사회와 비국가적 사회의 사냥 및 신화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적 사회가 의례로서 사냥을 한다면, 비국가적 사회는 사냥 후에 의례를 행한다.
- ② 국가적 사회가 동물을 성스러운 왕을 위해 성스러워진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비국가적 사회는 동물 자체를 성스러운 대상으로 인식한다.
- ③ 국가적 사회가 건국 신화의 형식을 따른다면, 비국가적 사회는 시조 신화의 형식을 따른다.

정답: ①

4. 다음 중 탐라국 신화, 가락국 신화에서 나타나는 결혼 화소의 하위 유형은?

- ① 신인혼(神人婚)
- ② 약탈혼(掠奪婚)
- ③ 방문혼(訪問婚)

정답: ③

5. 다음 중 신화의 종류와 그 신화소가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작제건) - 용(출생), 약탈혼(결혼)
- ② 고조선 - 동물(출생), 시험(고난)
- ③ 고구려 - 알(출생), 남매혼(결혼)

정답: ③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고구려, 신라, 가락국의 건국신화가 공통으로 갖는 출생 관련 신화소(神話素)는 ○이다.

정답: 알

2. 동명왕 신화를 건국신화의 3기능에 대입하면, 파견자는 천제, 중개자는 해모수(유화), 실 현자는 ○○이라 할 수 있다.

정답: 주몽

3. 한국 건국신화에서 죽음을 통한 입신(入神)의 화소가 나타나면, 해당 신은 시조신 국가의 수호신, 농경신 등으로 ○○의 대상이 된다.

정답: 제사

나. 토의(30분)

한국에 어떤 고대국가가 있었으며 그 건국신화는 동아시아 건국신화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같고 다른 점에 있는지에 대하여 토의한다.

다. 과제(60분)

한국의 시조신화나 건국신화와 조선시대에 전면화된 족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글을 써 본다.

〈제6강〉

단군신화, 그 천의 얼굴

학습 목표

1. 단군신화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핀다.
2. 단군신화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음을 이해한다.
3. 21세기 한국 사회의 조건에 맞게 단군신화를 새롭게 해석한다.

강의 핵심 요약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를 다룬다. 단군신화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군신화의 실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신화의 핵심은 환웅과 곰의 결혼이다. 곰과의 결혼은 우데게이족의 시조신화, 어윙키족의 시조신화, 공주 곰나루 전설 등에도 등장하는 요소이다. 이들을 견주어 보면, 단군신화의 곰과 범은 각각 압록강 지역에서 곰을 시조신으로 모시는 종족과 호랑이를 시조신으로 모시는 종족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는 그 가운데 곰을 시조로 하는 집단과 외래자인 환웅 집단이 결혼 형식으로 맺어져서 고조선이란 국가를 만든 이야기이다. 환웅족의 시조신화와 웅녀족의 시조신화가 하나로 결합하고 재편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계보에 따라 환웅과 범이 결합하는 이야기도 따로 존재한다.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동물신이 없는 단군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목도령 홍

수신화가 반복된다. 조선시대 『응제시주』의 단군신화는 유가의 정치관을 표현하고 있다. 『청학집』의 단군신화는 도가의 세계관을 표현하였다. 20세기 들어 『동국사략』에서는 그동안 유가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환인과 환웅을 복구했다. 『신단실기』에서는 단군을 신으로 숭배하였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군신화가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문화사회가 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단군신화를 배제의 신화가 아니라 통합의 신화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외래의 환웅족, 호랑이를 섬기는 예족, 곰을 섬기는 맥족의 통합을 통해 고조선이 이루어졌듯, 단군신화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신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1. 단군신화와 한국사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단군 신화 그 친의 얼굴이라는 주제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단군 신화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 사회에서 단군 신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른바 국경일이 있습니다.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할 수 있죠. 해마다 10월 3일 날 이 의례를 지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이런 페스티벌을 벌이죠. 이날에는 태백산이라고 하는 강원도에 있는 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신화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태백산에서 저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자 개천절이 국경일로 정해졌는데 사실은 그 개천절이 국경일이 된 것은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이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중국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 임시정부에서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이다라고 해서 그런 그 의례를 진행을 했고 바로 그 임시정부의 전통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계승되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국경일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이 말하자면 "환웅이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은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왔다"라고 신화에 기술되어 있거든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사람들의 삶을 널리 이롭게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신화 속에 나오는 홍익인간은 이 대한민국의 국가 교육 이념으로까지 지정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개천절이고요. 그 개천절이라는 의례 속에 단군 신화는 살아있는 것이죠. 해마다 한국에서 전국 체전이라는 스포츠 경기를 벌입니다. 올림픽도 그렇듯이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화를 옮기는 거죠. 올림픽의 그 성화 그 불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에서 오죠. 한국의 전국 체전에서 그 불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면 바로 이 산에서 옵니다. 인천 가까운 곳에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강화도의 마니산이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참성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강화도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선녀로 분장을 해서 거기서 불을 얻어서 체전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옮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

다면 한국에서 전국 체전을 하는데 하필이면 불 그 성화의 불씨를 저 마니산 참성단에서 가지고 올까요? 저 마니산이라는 산에 삼랑성이라는 성. 성을 쌓은 흔적이 있는데 그 성을 누가 쌓았느냐 바로 단군의 아들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아들들이 저 성을 쌓았다는 바로 그 신화적 사실 때문에 올림픽의 성화를 올림푸스 산 그리스 올림푸스에서 갖고 오듯이 한국 전국 체전의 성화는 마니산 참성단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에서 단군 신화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군 신화는 한국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던 공간은 차지했던 영토는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은 고구려의 영토가 대단히 넓었다. 지금 현재 한반도와 그 북부 지역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그 북부 지역 전체가 고구려의 영토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뭐 이런 책도 내고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바로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식민사관이다 그것은 왜곡의 역사학이다 뭐 이런 책들도 내고 이런 학회들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젊은 연구자들, 젊은 역사학자들은 학문에 선을 넘은 고대사 문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반론을 펼치는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고대 국가였다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은 여전히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논쟁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통일 기원 국조 단군상이라고 해서 이 단군을 말하자면 이렇게 숭앙하는 그런 단체들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에 공원이거나 이런 데 단군의 저런 상을 이렇게 세우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단군의 머리를 이렇게 목을 자르는 이런 어떤 일종의 문화재 파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다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이 상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도 한국 사회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인물들이 특별히 기독교와 관계가 돼 있는데 단군을 모시는 게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해서 이런 운동들을 한편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단군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단군 신화는 한국이 남과 북으로 한국전쟁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남한의 단군도 있고 북한의 단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원래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이 한국의 북한 지역과 그 이북 지역이니까 북한에서 1994년에 갑자기 이제 땅을 파고 그것이 단군의 무덤이다, 능이다 하고서 대대적으로 단군릉을 발굴하고 이런 거대한 거대한 높이가 22m나 되는 단군의 능을 이렇게 복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권력 교체기에 김정일의 북조선의 수령의 승계를 정당화하는 어떤 신화적 작업,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군릉을 세우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단군릉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능 앞에서 이렇게 축하를 벌이기도 하죠. 한동안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남과 북이 같이 모여가지고 개천절을 지내는 공동의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단군이라는 존재는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매개

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고조선의 단군 신화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단군 신화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 점을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단군 신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단군 신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민족의 기원 혹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식민지 경험 강력한 민족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군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단군 신화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군 신화의 실체를 정확히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단군 신화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려시대의 단군신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단군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가 1287년경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고려 시대의 단군 신화라고 말하겠습니다. 당연히 단군 신화는 이 고려 사회로부터 고려로부터 그 천년 혹은 2천 년 이상 앞선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고려 시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책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고려 시대에 기록된 단군 신화라는 의미에서 고려시대의 단군 신화 이렇게 이름을 일단 붙이겠습니다. 이 첫 머리에 고기에 일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려시대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를 편집한 편찬한 일연이 만든 창작한 신화가 아니고 일연이 고기라고 하는 책을 보고 옮겨놓은 기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려 시대에 전승되는 <고기>라는 기록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옮겨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고기>는 고려 이전부터 있었던 자료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고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환인 아들 가운데 환웅이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구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저 밑 태백을 내려다 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죠. 그래서 천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기물 상징물 3개를 주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게 했다. 천부인 3개가 뭐냐 이런 질문도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웅이 3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라고 하는 아주 그 코스믹 트리 신령한 나무 바로 그 아래 내려와서 홀리시티라고 하는 신시를 건설하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3명의 신을 거느리고 먹는 것,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형벌 이런 등등을 다 관리를 했다 백성들

을 교화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스토리 단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침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그 신웅 다른 말로 환웅이죠. 찾아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웅이 쑥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곰과 범은 그걸 먹고 3*7일 동안 몸을 삼가면서 견뎠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라 그랬는데 곰과 범은 3*7일 3*7일이면 3 곱하기 7에서 21일 21일. 3주간을 얘기하는데 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3*7일 동안만 곰과 범은 몸을 삼갔고 그 과정에서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고 금기를 지키지 못한 범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했는가라는 거죠.

자 100일하고 3*7일은 숫자는 21과 100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때 100일은 정확히 100이라는 숫자 말하자면 석 달 열흘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때 100일이라는 것은 뭔가 정해진 날짜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 가득 찬 정해진 날이 바로 3번의 7일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아이를 낳으면 3주 동안 3*7일 동안 외부인들이 집에 출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줄이라는 줄을 치고 이 집에 신생아가 아이가 태어난 집이니까 외부인들은 출입을 삼가라 이런 사인을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인이 드나들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질병과 이런 것들을 옮길까 봐 금기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3*7이라는 것이 바로 100일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숫자의 차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동일하다는 뜻을 저 신화적 서술이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인간으로 변하는데 여자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웅녀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바로 환웅이 내려온 그 단수 박달나무 밑에서 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환웅이 사람의 몸으로 환웅은 신이죠. 근데 사람의 몸으로 변신해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단군왕검. 그 단군왕검이 비로소 평양성에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뒷부분으로 가면 단군이 나중에 장단정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고 나중에 아사달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그때 단군의 나이가 1908세였다 뭐 이런 신화적 진술이 뒤를 이어지고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단군신화의 형성과 우테게이 시조신화

자 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따지고 논증하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이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입니다. 단군 신화의 가장 핵심적이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곰과 호

랑이 가운데 왜 곰과 결혼을 했는가 인간으로 여자로 변신한 곰과 결혼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단군 신화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단서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 종족의 신화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목되는 것이 우데게이라고 하는 소수 종족입니다. 그 우데게이족의 신화 속에 시조 신화 속에 곰과 범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데게이족은 지금은 지금은 러시아의 저 아무르강 저 하류 속에 니브히족이나 마찬가지로 소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데게이족이 자신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로 전승하는 신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자신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그러니까 남매만 남겨두고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그 남겨진 남매 가운데 그 여자 아이를 곰이 아내로 삼아서 함께 살았고 남자 아이는 호랑이와 짝을 맺어서 함께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곰과 인간, 호랑이와 인간이라는 두 커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하고 소년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자식도 태어나지 않고 곰과 소녀 사이에서 곰과 소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인물이 우데게이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우데게이족들은 곰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데게이족은 우데게이족은 곰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삼고 있는 거죠. 곰의 혈통인 셈이죠. 니브히족들은 곰을 자신들을 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곰 사람. 마찬가지로 세계관이 마찬가지로 생각이 우데게이족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우데게이족의 시조 신화의 곰과 범의 결혼담은 단군 신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데게이족 신화 가운데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오누이가 등장하는데 누나의 이름은 벨레 동생 이름은 이그드이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남동생이 자기 누나가 곰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누나가 집을 비운 사이에 곰을 죽입니다. 창을 던져서 찔렀습니다. 곰은 도망을 쳤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누나가 그 사실을 알고 곰을 찾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상처 입은 곰을 다시 찾아낸 누나는 곰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동생이 남동생이 그걸 찾아내서 그 곰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자 누나는 남동생을 영영 떠나버렸고 결국 남동생은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오누이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함께 살고 있었던 오누이가 왜 분리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연구자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원래 우데게이족의 결혼 형식은 근친혼이었다, 족내혼이었다. 그런데 우데게이족의 결혼 방식이 족내혼에서 족외혼 밖에서 짝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변형이 되었는데 바로 그 과정이 이 신화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족외혼이라고 했을 때 바깥에서 핏줄을 갖고 왔는데 바로 그 대상이 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앞에서 봤던 우데게이족의 시조 신화 자신들을 곰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시조 신화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데게이족의 시조 신화를 보면 당장 우리에게 단군 신화의 곰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

니다. 단군 신화의 곰 이야기하고 우데게이족의 곰 시조 신화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이라고 조선 시대의 왕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쭉 <왕조실록>이라고 해서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세종 임금 시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 임금 시기의 기록에 세종 임금이 저 함경도로부터 아주 특이한 리포트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대단히 이상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세종실록의 그 사관들이 기록을 담당하던 신하들이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인가 또 말하기를 “개 풍속이 여자는 모두 방울을 차는데 어느 날 세 여자가 개의 새 여자가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다가 한 여자는 집에 돌아왔지만 두 여자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랬는데 5월달에 떠난 거죠. “11월달 겨울에 사냥꾼이 산에 가서 곰 사냥을 하다가 나무의 빈 구멍 속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듣고는 나무를 베어내고 보니까 두 여자가 안에 있었는데 모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지난 5월달에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려고 산속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못 갔는데 곰한테 협박을 당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낳더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지난 5월달에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려고 산속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못 갔는데 곰한테 협박을 당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낳더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냥꾼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아이의 얼굴이 절반은 곰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그 곰을 닮은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그 개의 두 여자는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나 이런 어떤 보고서를 중앙정부에다가 세종 시기에 올렸습니다. 그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지개’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자로 조선시대 우지개라고 했는데 저 실록의 우지개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우데게이족을 말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우지개의 사람들이 한양 도성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기록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저 우데게이족은 한반도의 북부 지역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일부는 고려,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한국인들과 섞여서 함께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선시대 우지개가 그런데 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곰하고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우지개 풍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우지개는 현재도 전해지고 있는 우데게이족의 시조 신화와 연결되고 바로 그 우데게이족의 시조 신화는 단군 신화의 웅녀의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단서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 쪽에 흥안령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어원키 그 지역에 주로 사는 어원키라고 하는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키족은 자신들의 조상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신화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암곰한테 잡혀서 함께 삽니다. 그 사냥꾼은 암곰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굴속에서 그 곰하고 여러 해를 함께 사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

서 곰이 방심하는 사이에 기회를 잡아서 사냥꾼은 굴에서 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곰이 새끼를 품에 안고 사냥꾼을 쫓아옵니다. 앞에 강이 있습니다. 사냥꾼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도망칩니다. 자 그 장면에서 화가 난 이 암곰은 자기가 안고 있던 새끼를 두 쪽으로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한쪽은 사냥꾼한테 던져주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안고 갑니다. 자 반쪽씩 나눈 거죠. 그래서 암곰이 남겼던 쪽 다시 말하면 사냥꾼에게 던져주었던 쪽이 어원키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곰과 어원키 사람은 같은 핏줄이다. 어원키 사람 곰은 어원키 사람은 곰의 후손이다. 곰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공주라는 곳에 가면요. 금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금강에 곰나루라는 곰나루 한자로 하면 웅진(熊津)인데 웅진. 그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 웅진 곰나루에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전설인가 하면 연미산에 큰 굴이 있고 굴에 곰이 한 마리 살았다는 거죠. 어느 날 나무꾼이 그 곰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그 곰하고 나무꾼하고 함께 삽니다. 곰은 굴속에서 사냥을 밖으로 나갈 때는 굴의 문을 막아놓고 이 나무꾼이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여러 해를 사는 동안 새끼를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를 낳았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믿음이 쌓여지고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 날 곰이 사냥을 나갔고 그 틈을 타서 이 나무꾼은 도망을 칩니다. 자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까 강이 나타났어요. 그 나무꾼은 배를 타고 강을 바로 그 금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자 새끼 둘을 안고 나무꾼 남편을 쫓아오던 곰은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강을 건너가 버리니까 그 남편 남자를 향해서 울부짖다가 자기가 안고 있던 새끼들을 강물에 던지고 자기도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바로 그 곰이 빠져 죽은 그곳을 곰의 나루터다 곰나루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뒤에는 그래서 곰의 원혼이 그 곰나루에 있어서 그 강을 지나던 배가 자꾸 이제 물에 뒤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곰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줬고 그 제사를 지내준 이후에는 강물이 요동쳐서 배가 뒤집히는 일이 없어졌다 뭐 이런 뒷이야기도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 곰나루에 가면 곰신을 모시는 사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나루 전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곰나루 전설이 앞에 보았던 이 어원키 시조 신화하고 똑같다는 거죠. 결론만 다릅니다. 어원키 시조 신화는 찢어 아이를 반으로 찢고 그 반쪽으로 찢어진 아이가 어원키 사람으로 되었다는 어원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곰나루 전설은 그런 어떤 기원의 이야기로 가지 않고 곰이 새끼들과 더불어 물에 빠져 죽은 비극적인 결말로 갔던 거죠.

그러나 앞부분의 전개는 동일합니다. 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어원키족은 저 그 흥안령산맥 북쪽에 있고 한국의 곰나루는 저 남쪽에 있는데 이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두 이야기가 이렇게 유사한가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웅녀 이야기가 고조선의 웅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의 우지개 이야기도 그 사이에 매개 고리로 있습니다. 오늘날 우지개는 저 아무르강 하류에 있지만 저 우테게이는 <세종실록>에 보이는 우지개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결국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범은 각각 곰을 조상신으로 호랑이를 자신들의 시조신으로 모시는

압록강 지역의 종족 그 종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들은 각각 호랑이 시조 신화와 곰 시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4.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그 이후

그런데 단군 신화는 그 가운데 호랑이를 시조로 하는 집단이 아니라 곰을 시조로 하는 그 집단하고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자인 환웅 집단이 함께 결혼 형식으로 동맹을 맺어서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듯이 환웅은 자신들의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웅녀족은 우데게이 시조 신화에서 보이듯이 곰을 시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환웅의 이야기하고 웅녀의 이야기가 결합되어서 새로운 단군 신화라고 하는 국가의 건국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웅녀의 시조 신화와 웅녀족의 환웅족의 시조 신화와 웅녀족의 시조 신화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재편집 다시 구성되면서 <삼국유사>에 보이는 그런 단군 신화를 건국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는 웅녀가 선택되고 곰이 선택되고 범은 배제되는 그런 어떤 건국 신화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곰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3*7일을 견디지 못해서 탈락한 호랑이 범은 어디로 갔을까요. <삼국유사>의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범은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의 종적이 묘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차에 이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설암이라고 하는 스님이 17세기에 묘향산이라고 하는 북한 지역에 있는 산을 노년에 노년에 은퇴한 뒤에 여행을 하면서 일종의 기행문을 기행기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그 묘향산에서 <제대조기>라고 하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가 하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가 신단수 아래 살았는데 환웅이 하루는 하얀 호랑이 백호와 교통해서 아들을 단군을 낳았고 그 단군이 이 동방의 임금이 되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설암이라는 스님이 보았던 <제대조기>라고 하는 기록 속에는 곰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하얀 호랑이 호랑이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환웅과 호랑이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가 <제대조기>라는 책에 말하자면 기록되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환웅이 곰과 결합한 이야기 환웅이 호랑이와 결합을 맺은 이야기 그래서 단군을 낳았다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이야기가 사실은 전승되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계보를 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일방적으로 단군 신화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곰은 배제되고 또는 호랑이는 배제되고 곰이 선택되거나 또는 호랑이가 선택되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의 계보에 따라 서로 결합 형식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실제로 전승되고 있었다는 거 따라서 단군 신화 건국 신화로서의 단군 신화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고려시대의 자료 가운데 전혀 또 다른 자료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제왕운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승휴가 쓴 한시인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처음 개국하여 포문을 열었던가 석제의 손자 이름은 단군”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 석제의 손자 이름 석제라는 것은 환인제석이라고 해서 환웅의 아버지 환인을 불교적으로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손자 이름이 단군이 라고 돼 있는데 그 단군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이렇게 주석을 주석을 달아서 이게 무슨 근거로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가 하고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기에 이르기를 해서 본기라고 하는 고조선 본기라고 하는 어떤 역사 기록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도 단군 신화에 대해서 쪽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환웅이 자신의 손녀에게 약을 먹여서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 단수의 신과 결혼해서 사내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단군이라고 했다. 조선 지역에 자리를 잡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자기 손녀한테 약을 먹여서 나무의 신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전혀 <삼국유사>에 있는 단군 신화와는 완전히 다른 신화죠. <삼국유사>에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돼 있죠. 환웅이 직접 인간으로 변신해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꿈이 변신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환웅이 직접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손녀한테 손녀를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서 변신시켜서 나무의 신과 결혼하게 했다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서 한동안 학자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뭔가 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 게 아니냐 또 심지어는 글자를 이렇게 새기는 과정에서 잘못 새겼다 뭐 이런 학설까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승휴의 <제왕운기>의 기록 속에 나오는 이 단군 신화는 동물신이 없는 단군 신화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홍수 신화 얘기하면서 목도령 홍수 신화를 살펴본 적이 있죠.

목도령 홍수 신화에서 목도령은 어떻게 태어난 인물입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큰 나무 큰 나무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나무의 신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무 도령 목도령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홍수를 만나서 떠도는 이야기 그러다가 표류를 해서 결혼해서 인류의 새로운 기원이 되는 이야기가 목도령 타입의 홍수 신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결혼 형식이 하늘의 선녀와 나무의 신이 결혼했던 형식입니다. 바로 똑같은 방식이 똑같은 결혼 형식이 <제왕운기>가 인용한 본기의 단군 신화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웅의 손녀가 나무의 신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것은 천신과 수신의 나무의 신의 결합이죠. 이것은 마치 환웅이 태백산의 신단수라는 나무에 내려왔다고 했을 때 그 신화적 상상력과 같은 계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단군 신화 전혀 다른 결혼 형식을 지니고 있는 단군신화 동물신 꿈이나 호랑이와 같은 동물신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군 신화도 고려시대 또는 <제왕운기>가 고려시대의 <제왕운기>가 참고하고 있는

본기라고 하는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그 자료에 그것은 고려 이전의 삼국시대나 또 그 이전 시대로 소급될 수 있겠는데 그런 자료 역시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고조선의 단군 신화는 뭘까요? 웅녀와 결혼한 단군 신화? 아니면 백호와 결혼한 단군 신화? 아니면 환웅의 손녀와 단수신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단군의 신화? 어느 게 정말 고조선의 단군 신화였을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런 자료들 가운데 <삼국유사>가 기록한 자료가 가장 상세하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되어 있고 <삼국유사>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의 단군 신화하면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곰과 웅녀와 결혼한 그 단군 신화가 한국의 단군 신화라고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여러 종류의 단군 신화가 전승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진짜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고 단군 신화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단군 신화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조선시대의 단군신화

자 이 단군신화가 조선시대에 오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자 <응제시주>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권근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의 학자이자 어떤 건국의 중요한 세력이었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의 왕이 시를 시 구절을 줬어요.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사신으로 온 인물의 능력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과정이었는데 이 '응제시'라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게 대답하는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에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주석을 붙였는데 그 주석에 “명나라 황제가 네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옛날에 신인이 내려와서 박달나무 아래 내려왔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신인을 왕으로 세웠다. 박달나무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이름을 단군이라고 했다. 그때가 당요 무진 원년 무진이다.”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 구절들이 이 시에 표현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한 단군 신화라고 할 수 있죠. 신인 그러니까 신성한 인간 또는 신의 후손인 인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신인이 환인, 환웅 이런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인이 박달나무 박달나무 아래 내려왔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다.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단군이다. 그때가 바로 요 임금이 나라를 세웠던 그 같은 해의 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조선시대의 유가들 유학자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사대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단군 신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단군이 환웅과 곰이 환웅과 호랑이가 결혼을 해서 단군이 태어났다 이런 허무맹랑한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뭔가 신성한 존재가 등장을 했고 그 신성한 존재가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다 추대를 했고 그래서 이름을 단군이라고 했다는 뜻이죠. 이게 뭐가 하면 결국은 조선시대 유가들 유가들의 어떤 국가관 또는 정치관이라는 건 뭐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지만 백성들이 모두 따르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응제시주>에 보이는 이 자료는 결국은 조선시대의 그 유가들의 정치관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군 신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다른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청학집>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도가 계통의 학자들이 만든 문집인데 이 <청학집>에는 아주 특이한 단군 신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단군은 이런 존재입니다. 환인이라고 하는 진인이 있는데 그 아들이 환웅천왕이고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360여사를 주관하고 동쪽에 있는 백성들을 교화했는데 그것을 단군이 계승해가지고 교화를 한 지 10년 만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주 번성해서 9개의 대국과 12개의 소국을 이루는데 모두 단 씨들이다. 말하자면 단군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 동쪽 지역에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으로 단군의 아들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부루와 부우와 부소와 그다음에 부여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신화가 조선시대 그 도가들 타우이스트들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단군 신화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사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주변의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조선조의 유가들의 기본적인 어떤 중국관이었는데 이 도가들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 대등하게 동쪽에 단군의 후손들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역사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단군 신화가 <청학집>이라는 도가 계통의 문헌 속에 등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단군 신화는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6. 근대계몽기의 단군신화

자 이것이 근대로 오면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 되는 변하는가 그 점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역사>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 교과서가 1895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자료에는 “동방에 처음 군장이 없었다. 신인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자 사람들이 받들어서 임금으로 세우고 단군이라 불렀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이 1895년에 <조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군에 관한 신화적 자료는 앞서서 조선 초기에 권근이 인용했던 권근이 기록했던 조선 초 사대부 유가 지식인들의 단군에 대한 인식 단군 신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1895년 무렵까지는 지속적으로 500년 동안 이런 단군의 신화가 단군 신화라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에게는 특히 유

가 지식인들에게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20세기로 넘어가면 20세기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을 갖기 시작합니다. <동국사략>이라는 또 다른 역사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선시대 단군 신화에서 사라졌던 환인, 환웅 할아버지 환인, 아버지 환웅이라는 존재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덕이 있어서 백성들이 추대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유가 지식인들이 말하자면 비합리적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배제했던 이야기들이 20세기 초반 1906년에 <동국사략>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서에서는 다시 복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연하게도 이 시기 이 시기 대한제국기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 인식 이런 것들이 다시 이 단군 신화의 재구축 재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중국 신화 가운데 우임금이라는 존재가 있고 요와 순을 이어서 우임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가 행했던 가장 큰 공적은 황하의 홍수를 다스린 것입니다. 우가 황하의 홍수를 통제하고 나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도산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큰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 가운데 단군의 아들인 부루가 단군의 첫째 아들인 부루가 그 사신으로 그 도산 모임에 갑니다. 그런데 단군의 후손 단군의 아들인 태자가 사신으로 갔을 때 그 사신의 지위를 설명할 때 앞선 자료 속에서는 그 지위가 천자에 대해서 제후국의 지위 신하로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906년에 이 동국사략의 자료에는 가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옷과 비단으로 서로 만나고 대등한 외교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20세기 초반 근대 계몽기 한국 사회의 어떤 탈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을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이 단군 신화 속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서 새로운 종류의 단군 신화로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4년 <신단실기>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단군 신화에 가면 신화 속에 등장했던 환인, 환웅, 환검은 환검은 단군의 다른 이름인데 이 세 사람 세 인물은 모두 신이 됩니다. 원래부터 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신의 종교 신교라는 종교를 세우고 백성들을 교화했다는 거죠.

나라 이전에 신교라는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 교화에 힘입어서 몰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단군이 왕이 되었다. 이런 식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신단실기>라고 하는 대중교라는 종교의 경전 속에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한국 사회가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중교라는 종교는 식민지의 항일 운동, 반일 운동의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단군은 신으로 숭배가 되고 말하자면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신이 세운 나라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성화된 가장 신성화된 단군 신화 이것이 1914년에 <신단실기>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7. 현대의 단군신화와 한국사회

자 이렇게 본다면 단군 신화는 하나가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얼굴을 바꿔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단군 신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단군 신화는 어떻게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국 사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화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OECD 가운데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외국인 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사회는 마침내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는 한국은 정말 단일 민족 국가다라고 하는 같은 언어와 같은 핏줄을 지닌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의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의식이 강력하게 20세기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21세기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 사회 여전히 단군 신화는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의 중심처럼 던져져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단군 신화를 21세기의 조건에 맞게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배제의 단군 신화가 아니라 통합의 단군 신화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서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서 환웅과 곰은 결합했지만 환웅과 호랑이는 배제되었죠. 근데 사실은 호랑이가 배제된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 뿐이고 우리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의 신화로 이해했다는 거죠. 사실 단군 신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국가인 고조선은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파위를 가지고 있는 환웅족과 원래 압록강 지역에 있었던 호랑이를 숭배하는 예족, 곰을 숭배하는 맥족의 결합을 통해서 재구성된 고대 국가입니다.

따라서 단군 신화는 고조선이 이런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단군 신화 자체도 배제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단일 민족 신화가 아니라 다문화가 공존하는 신화로 단군 신화를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단군신화를 말하자면 21세기 이 시대에 재음미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현대 한국 사회와는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O/X)

정답: X

2. 단군신화의 기록은 조선시대 <제대조기(第代朝記)>의 기록이 마지막이다. (O/X)

정답: X

3.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서, 범이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한 이유는 '금기의 위반' 때문이다. (O/X)

정답: O

4. <신단실기(神檀實記)>에 기록된 단군신화에서는 환인·환웅·환검의 세 신이 나타난다. (O/X)

정답: O

5. '단군신화는 범(虎)으로 표상되는 예족(濊族)에 대한 배제의 신화로서 읽혀 왔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삼국유사>에 나타난 고려의 단군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데게이족 시조신화, 어윙키 시조신화에서 ‘곰의 등장’이라는 공통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②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에게 형벌과 선악 등을 맡기었다.
- ③ 환웅족과 예족의 결합을 은유하고 있다.

정답: ③

2. 다음 중 조선시대의 단군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응제시주>에는 조선조 도가(Taoist)의 세계관이 나타난다.
- ② <청학집>에는 조선조 유가(Confucianist)의 정치관이 드러난다.
- ③ <제대조기>에는 환웅과 백호의 결합으로 인한 단군의 탄생이 나타난다.

정답: ③

3. 다음 중 근대계몽기의 단군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국사략>에서는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혈연관계가 나타난다.
- ② <신단실기>에서는 환웅(桓雄)이 인간으로 현현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 ③ <신단실기>에서는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신교(神敎)가 등장한다.

정답: ②

4. 다음 중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국 민족의 기원 혹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오늘날에도 문제시되고 있다.
- ② <제왕운기>에는 약을 먹고 사람이 된 천왕의 손녀와 인간의 혼인으로 단군의 탄생이 묘사된다.
- ③ 1900년대까지도 단군신화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정답: ②

5. 다음 중 21세기 한국 사회를 통한 단군신화의 재해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은 단군신화 재해석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② 환웅과 웅녀의 결연을 혼인 관계의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③ 다문화의 공존 위에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신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답: ③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우데게이족 시조신화에는 단군신화와 대응되는 ○(마파)과 ○(꾸찌 마파)이 등장한다.

정답: 곰, 범

2. <제왕운기>가 인용한 <본기>의 단군신화에는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정답: 동물

3. '다문화사회'라는 21세기 한국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단군신화는 문화의 ○○을 보여 주는 신화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정답: 통합

나. 토의(30분)

한국의 민족주의와 단군신화의 관계를 다른 민족의 건국신화와 민족주의와 비교하여 토의해 본다.

다. 과제(60분)

동아시아 삼국인 중국의 황제신화, 일본의 천황신화와 한국의 단군신화와 근현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 비교하는 논문을 작성해 본다.

〈제7강〉

바리데기, 한국의 무속신화

학습 목표

1. 바리데기 신화의 줄거리를 살핀다.
2. 바리데기 신화의 서사적 원천을 파악한다.
3. 바리데기 신화의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바리데기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본다.
4. 함흥본 바리데기 신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강의 핵심 요약

한국 신화 〈바리데기〉를 다룬다. 바리데기 또는 바리공주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여신이다. 바리데기 신화는 바리데기가 저승 천도를 담당하는 여신이 된 내력에 대한 이야기로 망자천도곳에서 불린다. 바리데기 신화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함흥 지역의 바리데기 신화는 다른 지역과 판이하다.

바리데기 신화의 서사적 원천을 알아보기 위해 타타르족의 쿠바이코 신화와 만주족의 니산 샤먼 신화를 참고할 수 있다. 바리데기 신화는 이들 신화와 저승여행 모티프를 공유한다. 저승여행의 목적은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으로, 이는 곧 무당의 기능과 같다. 즉, 바리데기 신화는 유라시아 샤먼의 저승여행 모티프에 서사적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바리데기 신화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3가지 역설이 나타난다. 버려진 자가 버린 자를 구한다는 구원의 역설, 이승의 열쇠가 저승에 있다는 저승의 역설, 내부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외부에 있다는 외부의 역설이 그것이다. 바리데기는 이 역설의 구현자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함흥본 바리데기에서는 모든 등장인물이 죽으며 끝이 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식의 배후에는 무속의 윤리 내지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써 함흥본 바리데기가 바리데기 신화의 초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바리데기 신화의 초기형이 완성형으로 변모하면서 불교를 내면화하였고, 숭고미를 강조함으로써 화해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1. 한국 무속신화의 대표 <바리데기>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바리데기 한국 무속 신화의 정수'라는 제목입니다. 2007년에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바리데기>라는 소설 작품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요. 이 소설 <바리데기>는 근래에 <프린세스 바리(Princess Bari)>라는 영어본으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황석영 소설가는 영미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왜 황석영 작가가 '바리데기'라고 하는 작품을 소설로 썼을까요. 소설 <바리데기>는 북한이 일차적인 배경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먹을 게 힘들어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지경에 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청진에서 지방 관료의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계속 딸을 낳으니까 마지막엔 아들을 낳기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또 일곱 번째 딸이 태어나자 아이를 숲속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를 흰둥이라고 하는 개 개의 종류는 풍산개라고 해서 북한 지역에서 특징적인 북한 지역의 특징을 잘 닮은 지역 개인데요. 그 흰둥이가 다시 집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애가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 해서 그 할머니가 걸어서 키우고요. 버렸던 아이라고 그래서 '바리'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성장기에 심하게 병을 앓고 난 뒤에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바리가 보게 되죠. 그게 귀신들을 보게 되고 짐승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샤먼 무녀, 무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바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소지한 바리라고 하는 여성이 살기 힘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의 상하이로 거쳐서 영국 런던에서 정착하는 그런 고난에 찬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바리데기 신화라는 우리 고전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는 한국의 신화를 빌려와서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세계화 시대라고 불렀던 21세기 초반기의 세계사적 현실을 아주 박진감 있게 녹여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은 왜 신화인 바리데기로부터 이야기를 차용해 와서 21세기를 그리고 있는 소설 <바리데기>를 창작했을까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 바리데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신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망자 천도굿’이라고 하는 굿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무속의 의례를 말합니다. 이 망자 천도굿은 한국에서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은 오귀굿 또는 진오귀굿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수륙새남굿, 오귀새남굿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수륙이라는 말은 불교의 수륙제라고 하는 의례에서 빌려온 말인데 그것이 새남굿이라고 하는 무속의 의례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오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륙새남굿 오귀새남굿의 새남이라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자의 혼령을 위한 굿이고 그 혼령이 새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굿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함경도 북한의 함경도 지역에서는 이 굿을 망무굿, 망무기굿, 망령굿 이렇게 부릅니다. 망무기 망무기 망무기라는 말도 사실은 진오귀나 오귀처럼 망자의 혼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망자의 혼령을 저승으로 인도해서 다시 잘 태어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리데기 또 달리는 바리공주라고 불리는 여신입니다. 우리 불교의 탱화를 훑내내서 무속에서도 무속화 무속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바리데기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바리데기는 바리공주 공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주의 복장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굿을 할 때 무당들이 바리데기 이야기를 신화로 구연할 때는 공주의 복색을 차려 입고 굿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데기 신화는 바로 이 바리데기라는 여성이 어떻게 하여 저승 천도를 담당하는 그 여신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풀어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만 한 가지 환기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는데요. 앞으로도 무속 신화에 대해서 몇 차례 강의를 하겠지만 한국 무속 신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 삶의 여정과 고난을 통해서 신으로 좌정하는 신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세계가 있고 그 신들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신인 주인공들이 사람과 싸움을 펼쳐나가는 그런 신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신화 특히 한국의 무속 신화의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의 어떤 인물이 일련의 어떤 통과 의례적 과정을 거쳐서 신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런 특징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남도에도 통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오귀새남굿이라고 불리는 굿이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 공연이 이 굿이 거행이 안 되다가 이 지역의 무당 또는 예술인들이 이 굿을 복원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이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실제로 이 오귀새남 굿을 하면서 그 가까운 시기에 바다에 나갔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물에 빠져 죽은 그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그런 오귀새남굿을 실제로 했고요. 저 장면은 바닷가에서 빠져 죽은 망자의 넋을 건져 올리는 굿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이동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주의 복색을 하고 있는 무당이 지금 실을 손에 말면서 바리공주 이야기를 신화를 구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바리데기 신화는 이런 굿의 현장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그런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바리데기 신화의 줄거리

자 그렇다면 ‘바리데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그 나라는 경우에 따라선 불라국 같은 가상의 국가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선국 해서 구체적인 조선 시대라고 하는 국가명을 지정해서 무당이 구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국왕 부부가 딸만 내리 일곱을 낳습니다. 왕은 간절하게 아들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계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대하던 딸이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깐 일곱 번째 태어난 딸을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왕비는 차마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애지중지하고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속에 갖다 버리고 산속에 갖다 버리니까 짐승들이 돌보고 죽으라고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으니깐 다시 거두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물에 띄워 물에 띄워서 버립니다. 강물에 띄워서 버리죠.

자 이렇게 버려진 아이가 되었는데 일곱 번째 딸이 이 일곱 번째 딸은 강물에 띄워져 버려졌다가 떠내려가다가 조력자를 만나서 생명을 건집니다. 바리데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이렇게 캐릭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조력자에 의해서 딸은 성장을 합니다. 그 버려진 딸이 15살 쯤 되었을 무렵에 딸을 버렸던 왕이 병에 걸립니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점쟁이를 불러서 왕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도를 구했지마는 저 병을 치료할 약은 이승에 없다 인간 세상에는 없다 저 병을 치료할 약물은 저승에 밖에 없다 누군가 약물을 약을 구하기 위해서 저승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 중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왕은 왕비는 딸들에게 의향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딸 아무도 아버지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승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섯 딸의 남편들 다시 말하면 사위들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버려졌던 이 막내딸 버려졌기 때문에 이름이 버린 아이라고 그래서 바리데기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 15살 때 이 버려졌던 막내딸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또는 신하가 찾아가서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아버지를 구하겠다면 궁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아버지를 만난 뒤에 바리데기는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 드디어 저승으로 떠납니다. 한국 신화에서 한국 무속 신화에서 저승이라는 공간은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삼천리 길을 가다 보면 서천 서역국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얻은 이름인데 그런 저승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승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천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을 건너서 바리데기는 저승으로 들어갑니다. 저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의 조력을 받아서 길을 물어서 저승을 찾아가갑니다. 저승에 도착해서 약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약을 관리하는 신이 저승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장승, 버전에 따라서는 동수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약물을 주겠다고 대신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거를 너는 지켜야 한다 나와 결혼을 해라 나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아줘야 된다 그리고 3년 동안 빨래하고 3년 동안 물을 길고 3년 동안 밥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아줘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바리데기에게 합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아이를 다 낳아준 뒤에야 겨우 바리데기는 약숫물 약물을 얻어서 약물에다가 죽은 혼을 죽은 사람의 살과 뼈를 살리는 환생화라고 하는 꽃까지 얻어가지고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저승에서 얻은 동수자 또는 무장승이라는 남편과 동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이미 임금이 왕이 죽었습니다. 바리데기는 그 행렬을 멈추라고 하고 관을 열어서 죽은 아버지에게 환생 꽃을 아버지의 몸에 올려놓고 약수를 아버지의 입에 넣어서 죽은 아버지를 소생시킵니다. 자 죽음으로 나갔던 아버지 장례 행렬이 다시 이제 살아난 아버지와 더불어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살아난 아버지는 자기를 살린 막내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을 너한테 줄까 아니면 온 나라의 재산을 너한테 줄까 어떤 보상을 해주려고 아버지가 왕이 막내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막내딸 바리데기는 그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저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저승으로 힘겹게 가는데 저 힘겹게 저승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그 망자들의 혼령을 관리하는 망자들의 혼령을 인도하는 그런 저승의 신이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데기의 이야기는 바리데기 신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3. 바리데기 신화의 지역별 차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바리데기 신화가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쉽도록 표 하나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그 지역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북한 지역 그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강원도 동해안에서 경상도에 이르는 남도에 이르는 지역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 호남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나눕니다.

한국의 지형은 동쪽에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거대한 산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그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이 높은 산이 막혀 있어서 동서로는 문화가 잘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해안을 따라서 오늘날 강원도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경상도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지역까지가 하나의 그런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호남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 하나의 문화권 서해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화권을 나누는데 바리데기 역시도 그런 문화권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또는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다르고요. 배경도 조금씩 다르고요. 최종적으로 바리데기가 어떤 신이 되느냐 그

신의 성격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 그다음에 경상도 동해안 지역, 전라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함흥 지역에서 조사된 바리데기 자료 오귀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그런 차이들이 바리데기 신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데기 신화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리데기 신화 할 때 바리데기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리데기와 바리공주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바리데기 신화의 서사적 원천은 어떤 것인가’ ‘바리데기 신은 한국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가 서로 소통되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바리데기가 이 이야기 속에 제기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좀 이상한 낫설고 이상한데 그런 이상한 해결 방식의 의미는 뭔가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지역별 차이 특히 다른 지역과 판이하게 다른 함흥의 바리데기와 함흥 바리데기 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수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왕이와 다른 지역 바리데기와의 관계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바리데기를 좀 더 제대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름의 의미 바리데기와 공주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말에 ‘버리다’라는 뜻이 있고 ‘버리다’라는 말이 있고 뒤에 ‘버리다’는 말에서 ‘버리다’의 이형이 ‘바리다’고 바리데기의 ‘바리’는 그 ‘바리다’에서 온 말이고, 그다음에 ‘데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사람을 어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좀 낫추어서 부르는 접미사 말 뒤에 명사 뒤에 붙는 말 접미사인데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부엌일을 하는 사람 한국말로 식모 그다음에 영어로 메이드(maid) 이런 사람들을 부엌데기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 말처럼 데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데기는 버려진 천한 아이 뭐 이런 의미를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신화에서는 바리데기가 무속 신화로 널리 구연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저 버려진 아이가 너무나 숭고하고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점차 확산되면서 되면서 바리는 공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가 공주가 되면서 공주에게 아버지, 어머니 왕과 왕비가 생기는 그런 일련의 변화 과정이 저 바리데기와 바리공주라고 하는 이름의 차이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저것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지역별 차이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바리공주, 바리데기 신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데기의 서사적 원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타타르족이 전승하고 있는 ‘쿠바이코(Kubaiko)’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타타르는 튀르크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계통에 속합니다. 튀르

크 과거에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오늘날 투르크라고도 하고 튀르크라고도 하고 투르크메니스탄, 타타르스탄 뭐 이런 오늘날 나라들이 타타르족과 다 연관성이 있는 민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지하 세계가 등장하고 지하에 왕이 있고 그 왕 아래 괴물이 있습니다. 엘베젠이라는 괴물이 메르젠 콤데이 메르젠이라고 하는 영웅의 목을 잘라서 땅속으로 가져갑니다. 메르젠이라는 영웅은 그래서 죽습니다. 그 메르젠의 동생의 이름이 쿠바이코인데 여동생의 이름이 쿠바이코입니다. 죽은 오빠의 머리를 찾아서 저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저승의 신이 이를렉 칸인데 우리가 김쌍돌이 창세가를 이야기할 때 그 김쌍돌이 창세가에 등장하는 미륵님과 석가님의 서사적 원천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알타이 신화 가운데 에를릭이라고 하는 저승의 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겐과 에를릭이라고 하는 쌍둥이 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했던 신이 이를렉인데 에를렉인데 에를렉, 이를렉 같은 이름의 다른 발음입니다. 바로 이 타타르족 신화에도 그 인물이 저승의 신으로 죽음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 죽음의 신 이를렉 칸에게 왜 오빠의 머리를 잘라갔는지 묻습니다. 이를렉 칸은 대답 대신 내기를 제안합니다. 7개의 뿔이 달린 염소를 땅에 묻고 또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나한테 보여준다면 내가 너에게 머리를 돌려주겠다. 그러나 시험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네 목도 잘라버릴 것이다. 쿠바이코는 그걸 허락하고 그 칸의 이를렉 칸의 테스트에 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대로 성취를 하고 쿠바이코가 이기자 이를렉 칸은 오빠의 머리를 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길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돌아오는 길에 네가 그 저승의 죽음의 신의 집에서 집의 방문을 열면서 보았던 그 끔찍한 장면들 이것은 다 지상에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상 저승에서 벌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말하자면 오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쿠바이코는 저승으로 가서 저승이라는 곳이 어떤 공간인가 어떤 공간인가 그것을 공부하고 또는 이해하고 알고 돌아온 거죠. 그 이전에 니브히 신화를 얘기하면서 곰 종족이 그 니브히 사냥꾼에게 내가 너를 우리가 너를 너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를 이 동굴 속으로 데려온 것이다 왜, 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규칙과 법도 이런 것들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데리고 왔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쿠바이코를 이 이를렉 칸이 저승으로 부른 것은 오빠의 목을 핑계로 해서 저승으로 부른 것은 쿠바이코에게 저승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승의 법도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쿠바이코를 저승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와서 오빠의 머리를 오빠의 죽은 몸에 다시 붙여서 오빠를 소생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바리데기가 했던 것처럼 이를렉 칸이 준 약수 저승의 생명수 이거를 가지고 오빠를 되살리는 거죠. 바리데기 이야기하고 대단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의 자료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 만주족 신화가 한반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타타르보다. '니산 샤먼'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발두바엔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주 사냥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사냥 나갔다가 15살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부자는 유명한 샤먼 그 샤먼의 이름이 니

산인데 불러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발두바엔의 부탁을 요청을 받은 니샨은 저승으로 가서 저승으로 갑니다. 저승으로 가보니까 이미 이 죽은 부자의 막내아들 이름이 서구르다이 피안고인데 이 막내는 염라대왕의 사랑을 받고 저승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샤먼으로서 이 샤먼은 닭과 개 이거를 염라대왕한테 선물로 주고 막내아들을 구해서 지상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승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먼저 죽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죽은 지 오래된 남편이 날 구해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지만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구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복을 주는 신 그 신으로부터 니샨은 역시 쿠바이코처럼 저승의 형벌과 법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니샨이 깨어났다고 하는데 이 만주족의 이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저승 여행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 샤먼들이 무의식 상태에서 저승 여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승 여행에서 돌아오면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그 깨어나고 나서 죽어 누워 있던 서구르다이 피안고의 몸에 부채로 혼을 불러 넣어서 막내아들을 살립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니샨 샤먼은 여신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왜 내 아들을 구해내지 않았느냐라고 고소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후일담처럼 붙어 있는 건데요. 그렇게 고소를 하자 황제가 니샨을 해칩니다. 니샨의 무구를 무구와 더불어서 니샨을 우물에 던져 넣어서 살해합니다.

자 니샨 샤먼이 살려낸 서구르다이는 그래서 저승에 갔다 온 뒤에는 착해져가지고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니샨이 죽었는데 그 황제가 니샨을 죽이자 황제의 궁이 어둠에 휩싸였고 그랬더니 황제가 후회하면서 나중에 만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니샨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뒤에 후일담으로부터 일련의 과정들은 만주족이 중국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만주족 샤머니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종의 압력, 탄압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니샨 샤먼은 바로 샤먼의 창시인 샤먼의 조상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타타르족, 만주족 두 이야기를 참조하면 바리데기 신화는 저들의 저승 여행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하다. 바리데기 신화는 티르크 계통의 타타르족 쿠바이코 신화, 통구스 계통의 만주족의 니샨 샤먼 신화와 저승 여행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저승의 목적, 저승 여행의 목적은 죽은 자의 혼을 다시 찾아와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데 있는데 바로 저승 여행을 통해서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이 무당의 중요한 기능, 역할이죠.

다만 이제 한국 무당과 이 만주 지역의 이쪽 시베리아 지역의 무당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니샨 샤먼처럼 이 시베리아 지역의 무당들은 망혼 여행이라고 해서 무당 스스로가 무의식적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그 안에 정신이 저승에 가서 저승 여행을 하고 다시 무당의 혼이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데 비해서 한국 무는 그렇게 무당이 혼이 빠져나가지 않

고 다른 죽은 자의 혼령이 죽은 자의 혼이 무당을 찾아옵니다. 무당의 몸이 실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무당의 퍼포먼스의 차이는 있지만 신화 속에 표현되어 있는 저승 여행 모티프는 동일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리데기 신화는 유라시아 샤먼의 저승 여행의 모티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쿠바이코가 쿠바이코는 무당이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직능상 무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니산 샤먼은 무녀로서 서구르다이 피안고를 찾아서 저승으로 갔습니다. 바리데기는 바리데기의 경우는 그러면 쿠바이코처럼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찾아서 저승을 갔고 니산 샤먼처럼 아버지를 살린 뒤에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여신이 되고 무당의 조상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리데기는 쿠바이코하고 니산 샤먼을 이렇게 조합해 놓은 듯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서사적 원천이 유라시아 지역의 샤먼들의 저승 여행 모티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 바리데기 신화의 문제해결방식과 의미

그다음은 바리데기 신화의 이상한 문제 해결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황천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바리데기 신화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승에 있고 문제 해결 방법은 저승에 있다는 것이 큰 바리데기 신화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승에 문제가 있는데 이승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저승에서 해결책을 갖고 온다고 하는 상상력이 바리데기 신화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이승을 구체적인 국가 조선국 이렇게 변형시켜서 말할 수도 있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변형시켜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국가 사회, 비국가 사회라는 시스템하고 연관시켜보면 지난번에 시조 신화와 건국 신화 얘기하면서 국가 이전의 사회, 국가 이후의 사회라고 하는 두 개의 사회가 어떻게 말하자면 유지되는 형식이 사냥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바리데기 신화의 어떤 해결의 방식도 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국가에 있는 거예요. 왕국에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사냥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국가는 그 국가의 아버지는 남성은 아들에 집착하죠. 가부장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 계승 이것 때문에 아들에 집착합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 아버지, 남성, 가부장제의 공통의 문제인 것이죠. 이 욕망은 짐승을 많이 잡아서 그걸로 하늘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늘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남성, 국가의 아들에 대한 집착 쪽에는 집착의 문제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 안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바리데기 신화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저승에 있고 국가가 아닌 사회에 있고 아버지가 버린 존재 버려진 딸에게 있고 여성에 있고 바로 그 희생된 자기희생 그 여성의 버려진 여성의 자기희생 속에 그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리데기 신화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바리데기가 마지막에 아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가 아버지를 살리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라의 절반을 너한테 떼어줄까 그다음에 엄청난 어떤 부를 너한테 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는 그거를 다 거부했습니다. 권력, 재물 이런 걸 거부하고 그 대신 나는 만신의 인위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무당들의 조상신 다시 말하면 무당 자신이 되겠다. 아니면 무당이 망자의 혼령을 저승으로 인도하듯이 저승의 그런 신의 역할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로 만신의 인위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이승의 왕은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 신화는 왕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고 그 왕이 일으킨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은 바로 무당이고 무당의 조상신이고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여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데기 신화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바로 이상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신화는 끊임없이 나한테 있는 어떤 문제를 내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상력 자체가 대단히 낮설다 이상하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 이상한 문제 해결 방식에 이 신화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리하면 세 가지 패러독스(paradox)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역설입니다. 버려진 자가 버린 자를 구원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는 십자가에 버려진 자죠. 그 버려진 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존재로 변형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원의 역설입니다. 저승의 역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승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이승에 없고 저승에 있다. 이게 저승의 역설입니다. 외부의 역설입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외부에 있다. 이걸 외부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구원의 역설, 저승의 역설, 외부의 역설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요. 바로 이 역설을 역설을 구현한 존재 이 구현한 존재가 바로 바리데기라는 여신이다 이렇게 보면 바리데기는 바로 그 역설의 상징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을 원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바로 이승과 저승이 교차하는 지점에 바리데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저승에 갈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 저승에 갈 수 없죠. 그러나 바리데기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이승에도 속하고 저승에도 속한 존재 그런 면에서 바리데기는 바로 역설을 구현하는 존재가 되고요. 이 다이어그램을 우리에게 익숙한 음양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 안에 저승이 있고 저승 안에 이승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상력이 음양론의 상상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리데기의 신으로서의 성격 바리데기의 어떤 위치는 지난번 우리가 김쌍돌이 본 <창세가>에서 보았던 마지막 장면의 두 중의 등장 그리고 두 중의 바위와 소나무로의 변신이라고 하는 그 장면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두 중의 상징적 의미하고 대단히 유사하다.

5. 함흥본 – 이상한 바리데기

〈창세가〉의 두 중은 바로 저승에 있는 미륵님의 이승의 현현 이승의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리데기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아까 모두에서 강조했던 〈바리데기〉의 차이 가운데 다른 지역과 달리 함흥 본이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함흥 본의 특이성을 이해해야 바리데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의미를 좀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 본 〈바리데기〉는 다른 지역 〈바리데기〉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가 아주 이질적입니다. 불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다음에 구복 여행담이라고 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복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저승으로 천상으로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타고난 복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러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리데기 지역의 바리데기 신화와 달리 그리고 수직적 공간 구조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데기가 수평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저승으로 갑니다. 그런데 함흥 본 바리데기는 서쪽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도 아주 다르죠. 그리고 함흥 본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상당히 숭고하고 신성하게 묘사되지 않고 아주 우스운 존재로 묘사되는 점 이런 점도 함흥 본 〈바리데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 차이야말로 함흥 본 〈바리데기〉뿐만 아니라 바리데기 신화를 이해하는 긴요한 열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함흥 본 〈바리데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흥은 북한 지역에 있고요. 지금 한반도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서는 북한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조사된 것이냐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있던 함흥에 있던 무당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또는 강원도 지역에서 계속 굿을 하고 있었죠. 그런 무당들을 학자들이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초에 그 바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할 하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하늘에서 살던 하늘나라에서 살던 옥황상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황상제한테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지상에서 둘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살게 됩니다. 수차랑이라고 하는 남성, 덕주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 두 사람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결혼해서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걸 한탄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때 나온 점괘가 아주 이상합니다. 처음에 아들을 낳으면 계속 아홉 아들을 낳아서 나라를 세울 정도가 될 거고 처음에 딸을 낳으면 일곱 딸을 내리 낳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온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 점괘를 받고 부모는 백일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하는

데 이 부인이 첫째를 딸로 낳습니다. 점괘에 따르면 첫째 딸이 태어나면 지속적으로 일곱 딸이 태어난다 집안이 망한다 그렇다면 이 점괘가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 부부는 절대로 두 번째 딸을 낳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딸을 낳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동침을 하지 않으려고 서로를 멀리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동침을 하고 막내딸을 낳습니다. 그때 일곱 번째 딸을 임신했을 때 남편인 수차랑이 부인을 불러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한테 연락을 하고 편지를 쓰고 딸이 태어나면 손가락을 끊어서 그리고 함에 넣어서 물에 용늪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장면부터 아버지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리데기가 태어납니다. 남편의 명대로 부인은 석수장이를 불러서 돌로 함을 통을 만든 뒤에 그 속에 아이를 넣고 물에 버립니다. 당연히 돌함에 버리면 돌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죽이라는 거죠. 용늪에 버렸을 때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침 그 용늪에 빨래를 하러 내려왔던 하늘에 있는 용왕의 부인이 바리데기를 발견하고 하늘이 나한테 준 자식이다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나서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늘로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여겼을 수 있을 겁니다. 용왕인데 어떻게 하늘에 살까 그런데 이 함흥 본 바리데기의 세계상에서는 용궁이 천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아버지인 수궁 용왕이 어느 날 그 수궁 용왕 말하자면 옥황상제가 오제용왕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수궁 용왕도 부릅니다. 그런데 입고 갈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열서너 살이 됐던 바리데기가 그 얘기를 듣고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의 옷을 지어서 줍니다. 그 옷을 입고 수궁 용왕이 회의에 갔는데 옷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옷이 누가 지은 것이냐 그걸 묻는 과정에서 바리데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난 바리데기는 다시 천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바리데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 어머니와 그 언니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데기는 버려졌고 버려졌으니까 당연히 죽었을 테고 그 죽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저건 분명히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 취급을 받고 받습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바리데기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가락 다시 말해서 엄지손가락을 끊어서 끊고 나서 버리라고 아버지가 명령했던 대로 어머니가 했는데 그게 집 안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진짜 바리데기다라는 것을 확인받죠. 그 장가락을 바리데기 손에다가 다시 붙이니까 그 손가락이 되살아나면서 정말 진짜 딸임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들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어떻게 할지를 다짐을 받습니다. 그때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언니들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장례에 대해서 화장한다, 풍장한다, 매장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 속에서 화장, 풍장, 매장 이런 방식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장례하는 방식이 어머니 시체를 끌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불효가 표현된 불효가 섞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신 돌아온 바리데기는 예법에

따라서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아픈 어머니 어머니가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어머니 병을 낫을 수 있겠느냐 하고 역시 점을 치는 과정이 그다음에 등장합니다. 서천서역국 약수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점괘가 나오지요. 바로 그 점괘에 따라서 바리데기는 언니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서천서역국으로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대목은 다른 지역 바리데기들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바리데기가 길을 가는 과정에서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서천서역국 저승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방아를 찧던 할머니, 다리를 놓던 생원, 실을 씻던 할머니, 채 썬 할머니 등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줄 테니 너는 저승에 가거든 내가 왜 매일매일 방아를 찧으면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죄를 알아다 나한테 들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길잡이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어깨에 지고 바리데기는 저승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이런 인물도 등장합니다. 사냥꾼이 등장을 해서 내가 길을 가르쳐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데기가 그걸 거절하고 탈출을 하죠. 저승에 가서 바리데기가 그 동수자 무장승하고 살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여기에서는 사냥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고통당하는 바리데기의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구원을 하고 바리데기는 서천서역국으로 간다고 해놓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하늘에 올라간 바리데기는 옥황상제의 손자하고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마침내 꽃과 약수를 얻어서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꽃과 약수를 구하는 장면도 다른 바리데기들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함흥 본 바리데기 속에는 그것을 훔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한 대가로 남편에게 당당히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몰래 훔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을 떠나려고 할 때 약물과 약수와 꽃을 들고 지상으로 떠나려고 할 때 아들 열둘이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어머니가 가시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매달리니까 이 바리데기가 열두 아들한테 이러 이러한 신이 되어서 살아라 하고 신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는 길에 만났던 빨래하는 할머니, 방아 찧는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의 죄상을 다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문제의식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는 죽어서 장례 행렬이 떠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어머니를 살려냅니다. 그 과정에서도 바리데기는 장례에 왔던 사람들에게 어머니 죽었는데 어디 갔느냐고 욕을 먹죠.

자 그다음 장면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살아난 어머니 덕주아 부인하고 바리데기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장례를 여섯 딸들은 따라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으면서 어머니가 남기고 있는 남기고 간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데기하고 죽었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귀신들이 왔다면서 도망쳐서 숨습니다. 그때 어머니 덕주아 부인이 딸들한테 “자자 나와라 걱정 말고 내가 재물 나눠줄게” 하고 살살 피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승의 기물 저승의 물건들을 주

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속에서 살이라고 하는 나쁜 기운이 있는데 아마 저승의 살을 딸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여섯 딸이 모두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습니다.

자 그 살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어머니의 목숨을 살린 바리데기마저 죽게 됩니다. 아주 대단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다른 지역 <바리데기>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장면이 함흥 <바리데기>에서는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살렸던 막내딸이 죽게 되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 딸의 장례를 잘 치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일 고개에 바리데기를 묻어주고 3일 만에 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차려가지고 어머니인 덕주아 부인이 그 삼일 고개에 가는 길에 서인대사로 불리는 중 스님을 만납니다. 그 스님이 뭐라고 부인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오다 보니까 네 딸이 네 딸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네가 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에 속은 부인은 바리의 어머니는 자 그렇다면 내가 거기 안 가겠다 그 대신 내가 차려온 음식, 재물은 당신이 드시오 하고 서인대사한테 다 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서인대사가 그 음식을 받아먹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부인에게서 우리 절에서 제를 하니까 우리 절에서 제를 하니까 그 제를 드리는 날에 우리 절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 덕주아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절에서 제를 하는 날에 찾아갔는데 그날이 세상에는 없는 날 잘못 가르쳐준 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도 못 먹고 먹다가 버린 보리 그릇 이런 것을 먹다가 또는 절의 문턱을 넘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마저 죽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함흥 본 <바리데기>는 모든 캐릭터들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죽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는데 그 뒤에 무당이 사설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오귀 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이 나서 죽음의 탈이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탈나다, 병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탈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사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리데기의 이상한 문제 해결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조금 전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이런 표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표의 오른쪽에 왼쪽에는 문제고 오른쪽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머니마저 죽고 바리데기도 죽고 어머니도 다 죽었는데 죽은 뒤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살아났다, 바리데기가 신이 되었다 이런 식의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함흥 본 <바리데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신화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흥 본 바리데기는 아직 이야기가 완전하게 잘 짜여진 이야기 아니다 뭔가 앞뒤도 잘 맞지 않고 어수룩한 이야기고 뭔가 틀이 잘 안 짜여진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6. 바리데기 신화의 역사적 변모와 의미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서울 경기본을 중심으로 본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와 달리 함흥 본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정제되지 않은 형식 다른 지역본들이 정제된 형식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정제되지 않은 형식 미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 경기본의 정제에 비해서 미정제, 미정형이라고 보기보다는 특별한 함흥 본만의 서사 형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은 다른 특징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무속 신화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삼국 시대,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받았습니. 특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의례 퍼포먼스(performance) 측면에서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 신화 속에도 무속의 신화 속에도 불교의 이야기와 불교의 세계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본은 무속 신화지만 불교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교식의 윤리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불교식의 어떤 효행관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의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본의 효 윤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심층에 있는 효의 윤리는 불교가 말하는 모성 중심적인 효입니다. 표층의 위에는 아버지 중심 부성 중심의 유교 윤리가 위에 이렇게 당의정처럼 달콤한 것처럼 위에 이렇게 깔려 있지만 코팅이 돼 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모성 중심의 '효'라고 하는 불교의 윤리입니다. 바리데기가 버려졌을 때 바리데기를 구원하러 오는 존재도 석가모니입니다. 이만큼 서울 경기본은 불교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함흥 본은 불교와 조화롭지 않습니다. 서인대사라고 하는 아주 사기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함흥 본은 핵심이 무교의 무속의 점괘입니다. 무당이 내리는 그 점괘를 이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탈이 생긴 것으로 조화가 깨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려면 굿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무교의 어떤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함흥 본에는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하고 아주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인공인 바리공주도 아주 숭고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숭고한 존재인데 비해서 서울 경기본은, 함흥 본의 바리데기는 그렇게 숭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숭고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비극적이고 비장한 캐릭터고 결국 살아난 어머니가 자식들을 저주하는 과정에서 바리데기마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극적인 캐릭터죠. 길어도 짧습니다. 이런 점들이 함흥 본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다른 서울 경기본들과 비교되는 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함흥 본의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답은 함흥 본이 바리데기 신화의 초기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데기 신화는 초기에 함흥 본과 같은 그런 어떤 짧은 이야기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 따라서 그 안에 흐르는 윤리의식은 점괘를 지켜야 되고 점괘가 어긋나면 탈이 나고

탈이 나면 다 죽는다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구굿이라고 하는 망목굿이라고 하는 곳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무속의 윤리 내지 무속의 세계관이 배후에 깔려 있죠.

그런데 그 함흥 본의 이야기 바리데기 이야기들이 점점 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그 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지역의 그 양반네 부인들, 궁궐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굿의 후원 그룹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바리데기는 그렇게 천한 존재가 아니고 공주가 되어야 했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으면 안 되고 숭고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 고귀한 존재로 승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함흥 본은 바로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리데기의 이상한 문제 해결에 보이는 그 역설의 어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 경기본이 획득한 바리데기 신화의 중요한 신화적 의미 메시지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리데기 신화는 완성형으로 변모하면서 불교를 수용하여 내면화하고 숭고미를 강조하면서 신화 본래의 화해의 세계관을 가장 잘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신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바리데기>는 지역별로 진오귀굿, 망목굿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O/X)

정답: O

2. 한국 무속신화는 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신이 직접 사건을 펼쳐나가는 전개의 서사가 일반적이다. (O/X)

정답: X

3. <바리데기>는 전승 지역에 관계 없이 주인공이나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고정되어 전한다. (O/X)

정답: X

4. 다른 지역과 가장 판이하게 다른 바리데기는 경상도의 바리데기이다. (O/X)

정답: X

5. <바리데기>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의 곳에서 두루 구연되는 신화이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망자천도굿의 ‘바리데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여신이다.
- ② 신격이 없던 인간 주인공이 여신이 된 것이다.
- ③ 이승과 저승의 소통과 화해를 담당하는 여신이다.

정답: ③

2. 다음 중 지역별 <바리데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함흥의 <바리데기>는 천상, 지상, 용궁, 저승을 배경으로 한다.
- ② 중서부(서울경기)의 <바리데기>는 좌정의 형태가 북두칠성으로 나타난다.
- ③ 동해안, 경상도의 <바리데기>는 주인공의 이름이 ‘벼리데기/비리데기’로 나타난다.

정답: ②

3. 다음 중 <바리데기> 신화의 서사적 원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바리데기> 신화는 유라시아 샤먼의 저승 여행 모티프에 서사적 원천을 두고 있다.
- ② <바리데기> 신화는 저승과의 통합과 화해라는 주제를 만주족 설화와 공유하고 있다.
- ③ <바리데기> 신화는 쿠바이코 신화와 달리 저승행의 목적을 소생에 두지 않는다.

정답: ①

4. 다음 중 <바리데기> 서울경기본에 나타난 문제 해결 과정의 역설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원의 역설 : 버린 자가 버려진 자를 구원한다.
- ② 저승의 역설 : 이승의 열쇠는 저승에 있다.
- ③ 외부의 역설 : 내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외부에 있다.

정답: ①

5. 다음 중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함흥본 <바리데기>의 특이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사 형식의 이질성
- ② 서사 내 주인공 성격의 비일관성
- ③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회화화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바리데기>에서 저승과 이승의 교집합으로서 ‘바리데기’의 위치는, <○○○>에 등장하는 두 중의 위치와 대응된다.

정답: 창세가

2. 함흥본 <바리데기>와 여타 지역의 <바리데기>는 모두 표층으로는 유교적 윤리 의식을 보이고 있으나, 그 심층에는 여타 본은 불교적 윤리 의식이, 함흥본은 ○○적 윤리 의식이 나타난다.

정답: 무교

3. ‘<바리데기> 신화를 한국 무속신화의 정수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승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저승에서 찾는, ‘○○’이라는 신화적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역설

나. 토의(30분)

바리데기 신화를 왜 한국 무속신화의 대표라고 하는가, 그 신화적 의미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인의 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토의해 본다.

다. 과제(60분)

바리데기 신화와 유라시아 지역의 저승방문신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교의 영향으로 바리데기 신화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본다.

〈제8강〉

오늘이, 제주의 바리데기

학습 목표

1. 조술생본과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의 내용과 '원천강'의 의미를 알아본다.
2.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3. 「원천강본풀이」와 함흥본 바리데기 신화를 비교하고 오늘이를 제주의 바리데기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한다.

강의 핵심 요약

제주의 바리데기인 '오늘이'를 다룬다. 오늘이는 제주신화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한다. 「원천강본풀이」는 신곳에서 구연되었지만 현재는 전승이 중단되었다. 1930년의 박봉춘 구연본과 1960년의 조술생 구연본이 보고되어 있고, 오늘이는 박봉춘본에만 등장하고 있다.

원천강은 원래 중국의 실존 인물이며, 원천강이 지은 책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원천강이 점복서과 점쟁이로 등장한다. 박봉춘본에서는 원천강이 천상에 있는 공간과 점복서로 등장한다. 원천강을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과 오늘이라는 인물은 원래의 원천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상력이다.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는 구복여행담을 받아들여 오늘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창안하였으며, 그 인물의 행로를 통해 신곳의 심방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는 신화로 재구성하고 있다. 오늘이가 만나는 존재들은 인간과 자연 및 신령, 즉 온 우주를 상징한다. 오늘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모든 존재가 자신이 지닌 결핍을 넘어서려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우주의 비밀

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들의 이름에는 한국인들의 욕망과 무속의 현세주의가 투사되어 있다. 오늘이의 이름은 오늘의 행복을 선물하는 여신의 상징이다.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는 함흥본 바리데기 신화와 구복여행 화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함경도와 제주도의 굿과 신화 사이의 깊은 친연성을 보여준다. 둘째, 바리데기와 오늘이의 통과례 과정이 무녀의 통과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굿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물의 기능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무혼굿에서는 바리데기 신화를 구연하지 않는데,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가 바리데기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1. 제주, 한국 신화의 보물창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오늘이 제주의 바리데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데기 신화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 강의와 연속된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강이라고 하는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주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마리 이야기, 여우비, 카이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그동안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영화감독들 가운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집중하는 감독들을 만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성공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성강 감독은 집중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드문 감독인데요. 2003년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16분짜리 짝막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주 작품성이 뛰어나서 외국 영화제에서 상당히 많은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무렵에 개인적으로 이성강 감독과 만나서 오늘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같이 의견을 나눈 기억도 납니다. 왜 이성강 감독이 오늘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제주도 무속 신화 가운데서 아주 매력적인 오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이렇게 어린이 책 동화책으로도 출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가 왜 오늘이가 제주도의 바리데기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이의 정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이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일곱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제주 신화에 오늘이가 등장하는가 두 번째는 제주의 어떤 곳에서 이 오늘이 이야기는 구연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작품이 <원천강본풀이>라는 것인데 <원천강본풀이>의 구연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가운데 오늘이는 어떤 구연본에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원천강본풀이>라는 작품 속에서 원천강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섯 번째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 키워드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원천강본풀이>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함흥 지역의 <바리데기>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며 그 숨은 뜻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종결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오늘이를 왜 제주의 바리데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가 자

이런 일곱 가지 질문을 오늘이의 정체와 관련해서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좀 전에 작품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는 <원천강본풀이> 원천강 신화라고 하는 제주도 무속 신화 가운데 등장합니다. 두 번째 <원천강본풀이>는 제주의 어떤 곳에서 구연되고 있는가. 그전에 참고삼아서 우리는 곳의 종류를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곳은 크게 나누어서 어떤 단위에서 곳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나라 곳, 마을 곳, 개인 곳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의 고대 국가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곳을 그런 어떤 무속 의례를 벌인 적이 있죠. 그다음에 마을 단위 골매기곳이라고도 하는 이 마을 단위의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위 크고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곳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사 곳, 우환 곳 그다음에 신 곳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경사라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는 뜻이죠. 재수 곳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개 나라 곳은 또 마을 곳은 경사 곳, 재수 곳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마을의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곳이니깐요. 그다음에 집에 병자가 생기거나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치료하는 치병 곳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자가 생기면 지난번에 바리데기 신화가 저승 천도곳에서 무속 신화가 연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 천도곳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대개 개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개인 곳으로 신 곳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 자신이 모시는 신을 위해서 신을 모시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모시는 신의 능력을 확장,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신을 맞이할 때 내림곳 같은 것을 하고요. 내림곳을 한 무당이 그 신과의 교류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단풍맞이 곳이라는 제목의 신 곳을 벌입니다.

2. 두 종류의 <원천강본풀이>

크게 곳은 이렇게 나뉘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곳들 가운데 <원천강본풀이>는 신 곳에서 구연되는 무속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이 <원천강본풀이>는 제주에서도 지금 신 곳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제주의 신 곳에서는 이 <원천강본풀이>라는 무속 신화의 구전이 구연이 구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떤 심방도 제주의 무당을 심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심방도 신 곳에서 <원천강본풀이>를 구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천강본풀이>의 과거에 조사된 구연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이는 어떤 구연본에 등장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두 가지 구연본이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당시에 1930년에 조사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해방 이후인 1960년에 조사된 버전입니다. 이 두 가지 박봉춘, 조술생 구연본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1930년에 박봉춘 구연본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여 년 전에 구연되어서 조사된 이 박봉춘이라고 하는 제주 심방이 구연했던 <원천강본풀이>는 지금 현재는 전승이 중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원천강본풀이>의 그 줄거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술생이 1960년에 구연한 원천강본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강은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의 인물인데요. 이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죽이려고 하죠. 이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역적이다라고 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부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찾아오더라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남편은 땅속에다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 장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국에서는 과거에 마당에 김치나 다른 어떤 된장이나 이런 식재료들을 장독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 넣었습니다. 땅속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그렇게 장독을 묻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인지 알 수가 없죠. 아마 왕이 되는 공부였을 수도 있겠고요. 다른 어떤 세상을 경략하려는 공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받은 군사가 사령이 집에 여러 차례 잡으러 왔지만 자기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남편을 찾지 못합니다. 자 역적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피를 냅니다. 어떤 피인가 하면 여성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피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시켜서 아이를 업혀서 원천강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 애가 지금 세 살이 나도록 본체도 앓고 돈 한 푼도 안 주니까 내가 이 애를 키울 수가 없다 이 애는 네가 맡아라 하고 원천강한테 말을 하게 합니다. 원천강은 자기 남편이 어디 바깥에 가서 작은 부인을 얻어서 애까지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치밀었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원천강은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서 장독을 열고 남편을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때 남편을 잡으러 왔던 군사가 남편을 잡았던 거죠.

남편은 군사에게 잡혀가면서 네가 조용히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내가 사흘 뒤에 하늘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근데 네가 입을 잘못 놀린 덕에 내가 잡혀간다 내가 잡혀가면 너는 앞으로 뭘 먹고 살래 그러니 너는 앞으로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아라 그게 네 팔자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인을 사람들이 다 원천강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원천강이라는 이름을 얻은 내력을 이 원천강본풀이 원천강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원천강이 무슨 뜻일까요. 저 작품 속에 보면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아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대체 원천강이 뭘까요.

3.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

자 두 번째 또 다른 원천강본풀입니다. 박봉춘 심방이 구연한 것인데요. 내용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작품의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님들이라고 하는 들판이 있습니다. 강님들이라는 것은 이 이승의 어떤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아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죠. 땅속에서 솟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신화들 속의 캐릭터들 주인공들은 땅속에서 솟아납니다. 이 아이도 솟아난 아이입니다. 아이를 발견한 그 세상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이름이 뭔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학이 날아와서 학이 날개로 내 몸을 덮어주고 입에다가 야광주 야광주라는 것은 밤에도 빛이 나는 구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의주라는 구슬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여의주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구슬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어야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여의주가 이 야광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광주를 입에 물려주니까 날개가 날개로 학이 날개로 덮어주고 하니까 의식주가 다 해결되어서 살았다는 거죠. 아이를 만난 사람들이 너 태어난 날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널 발견했으니까 오늘을 네가 태어난 생일로 삼아서 네 이름을 오늘이라고 하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자 그 오늘이가 어느 날 백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인의 정체는 사실은 불분명한데요. 어쨌든 이 부인한테 갔더니 네가 부모가 부모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 나라, 부모가 있는 공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냐고 물었더니 어느냐고 묻고서 모른다고 했더니 그곳이 바로 원천강이다 그 공간이 부모국이 원천강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술생 구연본하고 좀 다르죠. 조술생 구연본에서는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 원천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모국 부모가 있는 공간이 원천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오늘이가 원천강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길을 백씨 부인이 알려줍니다. 이 백씨 부인은 길을 알려주는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백사가 별충당 백사가 별충당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데 그 백사가 별충당에서 어떤 집에서 글을 읽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찾아가면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오늘이는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거기 있는 아이의 이름은 장상인데 장상인데 원천강 가는 길을 물었더니 장상은 원천강에 네가 가면 왜 내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밤낮 여기서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그걸 물어다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원천강에 가서 내가 왜 이런 꼴로 사는지 물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서로 서로 말하자면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연꽃나무한테 연화꽃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연꽃나무 연꽃한테 길을 물어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는 연꽃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연꽃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는 겨울에는 뿌리만 살아있다가 2월달이 되면 가지가 나고 3월이면 꽃이 피는데 맨 윗가지에만 한 송이가 달랑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왜 내가 이런 팔자를 타고 났는지 팔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운명을 말하는 거죠. 인간과 자연의 운명 그걸 물어달라고 연꽃나무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수 아당가의 천하대사를 찾아가라고 알려주죠. 청수 아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연못 호수 같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천하대사 천하의 큰 뱀 큰 아주 큰 뱀이죠. 다른 말로는 구렁이 뭐 이렇게 이무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뱀을 찾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이가 이 구렁이를 찾아가서 이무기를 찾아가서 다시 원천강 길을 물으니까 이 이무기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뱀들은 그 야광주를 하나만 입에 물고 있어도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세 개나 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이 까닭을 물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내 등에 올라타라 하면서 이 이무기는 오늘이를 등에 태워서 그 물을 청수 아당이라는 큰 호수를 건네줍니다. 건너편으로 건네주죠. 그러면서 등에서 내려주면서 매일이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매일이를 찾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길을 걸어서 오늘 이는 그 매일이라는 여자 아이를 찾아갑니다. 만났더니 그 매일이도 처음에 만났던 장상이와 마찬가지로 성 안에 갇혀서 매일매일 글만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팔자를 타고났는지 이거를 좀 원천강에 가면 물어달라고 당부하죠. 그러면서 이 길로 쪽 가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녀 시녀 천상의 시녀가 있을 텐데 그 시녀한테 원천강 가는 길을 물어보면 네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이는 시녀를 만나죠. 그 시녀가 울고 있어요. 왜 우냐 물었더니 자기가 하늘의 옥황상제의 시녀였는데 하늘의 죄를 지어가지고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다 근데 내가 이 죄를 씻으려면 이 우물의 물을 다 퍼내야 한다 우물의 물을 다 퍼내야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바가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물을 내가 다 퍼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이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이걸 해결해주면 내가 너를 원천강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이는 옆에 있는 풀을 쓱쓱 베가지고 바가지의 구멍을 막습니다. 그리고 송진을 녹여가지고 그 막은 곳 풀로 막은 곳을 송진으로 바르죠. 바르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더 이상 새지 않는 바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바가지를 들고 오늘이가 하늘의 옥황상제한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이 우물의 물을 다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바가지를 우물물에 대는 순간 우물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자 오늘이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였던 거죠. 문제가 해결되자 시녀는 오늘이를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가서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별당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네가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을 해주고 자기가 갈 곳으로 떠납니다.

자 이 별당 앞에서 별당 앞에 문이 잠겨 있어요. 문지기가 있어요. 오늘이는 내가 이러저러 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했지만 문지기는 나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내 책임은 문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오늘이는 그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정신을 잃다가 다시 또 울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문지기가 그 공간 그 성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이의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부모한테 보고를 합니다. 문지기가 보고를 하니깐 이미 이미 오늘이가 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가서 빨리 문을 열어주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이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회를 하는 거죠. 그때 부모는 내가 우리가 너를 낳고 나서 옥황상제가 갑자기 원천강을 지키라고 우리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늘 지켜보면서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학을 보내서 야광주를 주어서 그 아이를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오늘이한테 이 성을 한번 둘러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가 성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성문의 곳곳을 열어보니까 흥미롭게도 그 어떤 문을 여니까 봄이, 어떤 문을 여니까 여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계절이 모두 그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인데요. 이 박봉춘의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이라고 하는 천상의 공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있는 그런 공간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의 사시사철을 컨트롤하는 주관하는 그런 천상의 공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경을 다 마치고 오늘이가 자기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제가 오는 길에 이러저러한 인물들한테 길을 안내받고 부탁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깐 부모가 대답을 해줍니다. 장상이와 매일이는 맨날 책만 읽고 있는 게 고민인데 부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나무는 맨 윗가지의 꽃을 따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큰 뱀인 이무기는 야광주를 하나만 물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세 개를 물어서 용이 못 된 거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두 개를 뺏어주면 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야광주와 연꽃을 가지면 너는 신녀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이는 자기가 부모한테 들은 얘기를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무기는 용이 되고 연꽃은 만발하고 매일이와 장상이는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는 자기가 받은 야광주 하나는 백씨 부인한테 감사의 인사로 주고 야광주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녀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원천강으로 돌아가서 지상과 이승과 천상을 오가면서 자기 일을 하는 신녀가 되죠. 마침내 그렇게 해서 오늘이는 인간 세상에 다니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절마다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천강본풀이> 박봉춘 본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제기했던 네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원천강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이 <원천강본풀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천강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의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중국의 역사 문헌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실존 인물인 원천강이 사람의 관상도 잘 보고 천문지리 전복 이런 데 아주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조선 이 등지에서 원천강 하면은 뭔가 음양지리에 아주 밝은 인물, 풍수에 능한 인물, 점을 아주 잘 치는 점쟁이 이런 어떤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고려에서 조선을 경유하는 거의 한 1천여 년 동안 이 고려 조선인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은 시각 중에 그 관상, 풍수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전

백성의 상식이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삶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관리를 과거 시험이라는 형태로 채용을 했는데 그 관리 가운데 문과, 문과가 있고 그다음에 음양과라고 해서 음양과라고 해서 실무 관료를 뽑는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임금이 돌아가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어디 무덤을 잡거나 무덤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날 그 장례 의식을 치를 것인가 제사를 어느 날 몇 시에 지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천문지리를 확인하고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 실무 관리들을 뽑는 음양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 항목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음양과의 필수 시험 과목 중에 <원천강오성삼명지남(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바로 이 필수 시험의 과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이미 이런 어떤 필수 시험 과목으로 이렇게 원천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과목이 통용되고 있었으니까 조선시대의 양반들 그다음에 중간 중인 관료들 그다음에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원천강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원천강이 중요한 인물이었고 상징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뜻이죠. 19세기에 1818년에 성주덕이 쓴 <서운관지(書雲觀志)>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원천강이 원천강오성삼명지남 이런 책을 편찬했다. 발단, 귀신, 식신, 녹신 15가지 열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책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성주덕이 서운관이라고 하는 관청 서운관이라는 공관의 유래를 적은 <서운관지>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이라는 책이 조선시대에 실재했고 이것이 중요한 어떤 시험의 과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원천강은 본래는 중국 인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시험 과목에 원천강 이름이 쓰이면서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아는 어떤 점쟁이, 풍수가, 관상가의 상징으로 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원천강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여서 흥미롭게도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신 곳을 할 때 심방들이 원천강본 본풀이라고 하는 무가 작품을 만들어서 구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판본이 서로 원천강에 대한 이해, 해석이 다릅니다. 조술생 본의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가 줄거리를 살펴봤지만 이 이야기는 원천강의 남편에 초점이 있어요. 남편이 어떤 인물이었죠. 역적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역적으로서 국가에 맞서서 성공하지 못한 맞서려다가 실패한 인물이죠.

흔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기장수형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기장수라는 것은 나라를 세울 만한 큰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 아기가 엄청난 영웅으로 태어나는 걸 알고 그 징표가 주로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 있는 것이 상징적인 표징인데 그걸 알고 어린아이를 가족이나 이웃이 살해하죠. 바위로 눌러서 죽이거나 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세울 만한 큰 장수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 주로 아기장수형 영웅 이야기인데 이 원천강 남편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인물을 다루고 있죠. 문학 양식으로 보면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남편이 아니고 부인 원천강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은 원천강이라는 부인 원천강 그 실패한 아기장수 또는 실패한 그 역적의 부인이 왜 원천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기원담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신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 이름을 원천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작품 속에 보면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아라 네 이름이 원천강이니까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때 원천강이나 보고 살아라 할 때는 너는 점쟁이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조술생 버전의 신화에서 원천강은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 안에는 점쟁이가 자기가 근거로 삼는 책 점복서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원천강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조선시대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이라고 하는 실제 원천강과 관련된 책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유래에 가까운 원천강에 대한 그 해석 그리고 이름 짓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박봉춘 본은 아주 전혀 다른 원천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줄거리를 얘기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박봉춘 본의 원천강은 천상에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 작품 속에 곳곳마다 문을 열어보았다, 보니까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두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사계절이 있는 천상의 공간 이것이 박봉춘 본 원천강의 뜻입니다.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술생 본의 이해처럼 점복서라는 이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봉춘 본 텍스트의 마지막에 보면 그로부터 오늘이 인간에 강림해서 절마다 땡기며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등사라는 것은 카피라는 뜻인데 원천강을 등사하니까 원천강은 어떤 자료, 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점복서를 카피하게 했다는 거죠. 왜 절마다 다니면서 그랬을까요? 이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불교의 사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심방이 또는 점쟁이가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신성한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절에서도 점을 쳤으니까 이 진술은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라는 진술은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원천강본풀이> 원천강의 정체는 조술생 본과 박봉춘 본이 공유하고 있는 점복서의 의미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왜 원천강 본은 원천강을 공간으로 설정하고 오늘이와 같은 인물을 새로 창안했는가 하는 거죠. 조술생 본, 박봉춘 본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원천강은 점복서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이라는 책도 있고 원천강이 그런 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죠. 그런데 원천강을 공간이라고 설정한 것은 전혀 어떻게 보면 원래 원천강이라는 인물의 이름에 없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이와 같은 캐릭터는 당연히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죠. 이런 어떤 새로운 질문을 여기서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우리는 다섯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설화 유형 구복여행담이라는 설화 유형입니다. AT 460 461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찍이 19세기에 안티 아르네, 스티스 톰슨이라는 연구자 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르네가 처음에 분류했던 것을 받아서 스티스 톰슨이 전 세계의 설화들을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만들었죠. 분류 체계를 만들면서 안티 아르네의 A와 스티스 톰슨의 T를 갖고 와서

AT 분류 체계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구복여행담이라고 하는 설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구복여행담이라고 하는 설화 유형이 세계적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의 상징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 매일이, 장상이, 연꽃나무, 천지대사, 시녀 궁녀, 백씨 부인 등등 이런 인물들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매일이와 장상이가 결혼을 하고 연꽃나무는 맨 윗가지 꽃을 따는 것 그다음에 천지대사 이무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광주 가운데 두 개를 내놓는 것 그다음에 오늘이와 시녀 궁녀은 서로가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의 고민을 풀어주는 그런 해결 방식이었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매일이, 장상이, 오늘이 사람들 인물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 인물들은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물의 상징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들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 구복여행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적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는 구복여행담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신에게 신을 찾아갑니다. 내 복이 뭐냐 자기 복을 찾아갑니다. 또는 복을 빌기 위해서 떠납니다. 중간에 여러 존재들을 만나죠. 여자도 만나고 노인도 만나고 이무기도 만나고 등등을 만나가지고 다 등장인물들을 만나서 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줬는데 그 존재들이 다 내가 왜 시집을 못 가는지 배나무에 왜 배가 열리지 않는지 꽃이 왜 피지 않는지 아들은 왜 병이 안 낫는지 내가 고생을 하는데 이 짐을 왜 벗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등등을 신한테 물어달라고 다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복여행담인데요.

그래서 신을 찾아가서 신을 찾아가서 답을 구하니까 그 신의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답을 얻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자의 경우에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면 되고 또 여의주를 얻은 남자를 얻어야 되고 노인의 경우에는 배나무 밑에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캐내면 배가 열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천장에 금이 그 부정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든지 또는 부뚜막 돌이 네가 몰랐지만 그게 다 금덩어리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무기의 경우에는 여의주 하나를 총각한테 주면 될 것이다 등등의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원천강본풀이>와 상당히 유사하죠 박봉춘 본. 자 이 주인공은 돌아오는 길에 그 해답을 각각 자기가 만난 존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두 소원을 사실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총각은 자기가 중간 과정에서 얻었던 여의주, 금은보화 이런 걸 얻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에게 고민을 얘기했던 그 여자를 물어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복을 자신의 복을 찾아서 떠난 총각이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는 말하자면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 유형이 구복여행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전승되고 있고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가 팔리어 인도의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불 본생경> 자료입니다. 그게 벌써 3세기 자료고요. 이게 이제 중국 위나라의 혜각 혜각이라는 스님의 설법을 듣고 한문으로 기록한 <현우경>이라고 하는 불경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요. 그리고 이 현우경이라는 경전이 고려 시대에 편찬된 <고려 대장경> 대단한 작업이었죠.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당하는 동안 편찬한 불경이죠. 고려대장경이나 중국의 대장경에도 모두 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였고 그만큼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 이야기가 널리 구전되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널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 이야기를 제주도의 심방들이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서 오늘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창안을 하고 원래 이야기 속에서는 청년으로 등장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로 창안을 하고 그 인물의 행로를 통해서 이 원천강본풀이가 신 곳에서 구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 곳에 참여하는 그 신 곳을 하는 심방. 심방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자각하는 이야기로 자각하는 신화로 재구성한 것이 박봉춘 버전의 원천강본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존재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전되는 민담에서는 별로 그렇게 체계가 있지 않는데 이 무속 신화에서는 이렇게 어떤 체계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이, 장상이 또 앞에 맨 처음 만났던 백씨 부인 같은 캐릭터들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연꽃나무, 천지대사 이무기 연꽃은 식물이고 구렁이는 이무기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식물들은 자연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인간도 자연 속에 있지만 어쨌든 동식물과 구별되는 인간을 따로 설정한 것이죠. 그다음에 옥황상제의 시녀 궁녀라는 인물하고 그다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말하자면 신들을 대표하는 신령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녀의 소속은 원래 천상이고요. 오늘이도 결과적으로 신녀가 되어서 천상과 이승을 오가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신령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 자연, 신령 뭐죠? 결국은 오늘이가 만난 이 존재들은 이 등장인물들은 온 우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원천강본풀이>의 등장인물 나중에 신녀가 된 인물들은 결국은 이 온 우주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어떤 서로 등장인물들의 관계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 오늘이의 문제해결방식과 심방의 운명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장상이와 매일이는 내가 왜 이 성 안에 갇혀서 매일 밤낮없이 책만 읽고 있냐 이런 어떤 얘기를 했죠.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죠. 오늘날 청소년들이 맨날 공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결국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원천강본풀이는 그 행복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의 결연, 결혼 여기에 있

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현실주의적 현세주의라고 할까요. 세속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거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식물들의 경우입니다. 먼저 식물의 경우입니다. 연꽃나무의 맨 윗가지를 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식물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들이 투여된 투사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그 농사 식물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사과나 이런 열매를 맺는 과실수들을 키울 때 솟아주 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일부 말하자면 열매들을 이렇게 끊어 솟아내야 솟아내야 다른 열매들이 훨씬 더 무성해지고 굵어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자연 친화적인 식물 친화적인 해결 문제 해결 방식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지대사 이무기가 내놓은 야광주 두 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무기는 동물을 대표하는데요. 이 동물 짐승들의 경우에는 먹는 게 문제죠. 특별히 이제 혼자만 많이 먹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욕심을 버려야 과욕을 버려야 뜻을 이룰 수 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선물로 주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네이션 증여라고 하는데 그 증여의 원리를 환기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이 동물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와 시녀 또는 백씨 부인과 같은 이 인물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오늘이는 자기가 길을 찾는 과정에서 모든 존재들을 다 도왔죠. 시녀도 도와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녀는 천상의 인물이고 천상의 인물로 지상에 쫓겨난 인물인데 마치 마치 바리데기 신화에서 이승의 문제를 이승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저승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인 구도처럼 이 시녀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니 바가지에 구멍이 뚫렸으면 기우면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지상의 오늘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이는 나중에는 그 신령이 되지만 오늘이는 원래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이와 시녀 궁녀의 관계는 인간과 신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한다 인간과 신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종교적 원리를 환기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신이 위계가 있어서 인간은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신의 뜻대로 인형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도 신도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 수가 있고 인간은 자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상호성, 중요한 어떤 이런 종교적 원리를 이 <원천강본풀이>에 인간과 신의 관계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식을 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그 등장인물들이 이 유니버스 온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 오늘이라는 캐릭터가 활동을 하죠. 오늘이의 문제 해결 방식은 결국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방식이죠. 세계는 결핍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존재들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을 넘어서려면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우주의 비밀 우주의 시크릿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보여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이라는 이

름이 있습니다. 장상이라는 이름은 흔히 과거에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장상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는데 이전 왕후장상이 되어라 또는 장수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출세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제주인들 또는 한국인들의 욕망이 투사된 이름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욕망을 잘 들어주고 기원해 주는 것이 한국의 무속, 무교라고 하는 종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매일이와 오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지어서 불렀던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아 즐겁구나 오늘이여 즐겁구나 금일이여 즐거운 오늘이 행여 아니 저물세라 즐거운 오늘이 저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매일이 오늘 같으면 무슨 시름이 있으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everyday)가 투데이(today) 같으면 매일매일이 오늘같이 좋은 날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는 어떤 노래죠. 자 이런 시조를 보면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에 한국인들이 매일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뭐 상투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생각이 이 주인공들의 이름 매일이와 오늘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 매일이 오늘 같으면과 같은 시조의 노래말이나 관용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매일매일이 오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무속의 현세주의가 투사되어 있는 이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이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행복을 선물하는 여신 이렇게 그 상징성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5. 오늘이, 제주의 바리데기

자 <원천강본풀이>와 함흥 본 <바리데기>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섯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천강본풀이>와 두 텍스트 다 구복여행 화소를 공유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흥 본 <바리데기>를 봤는데 함흥 본 <바리데기>의 어떤 주인공 수왕이가 약물 약수를 찾아가는 동안 여러 인물들을 만나죠.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방아 방아를 짚고 있습니다. 방아 짚는 할머니한테 서천 서역국 가는 길이 어딘가 몰렸더니 아기는 무슨 마음이 그렇게 착한 마음이 가루해서 서천 서역국을 갑니까 하고 물으면서 내가 길을 알려줄 테니까 돌아올 적에 내 죄상을 물어다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내가 왜 이 방아를 짚고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전생에 지어서 이런 얘기죠. 똑같은 구복여행 화소를 함흥 본이 가지고 있어요. <원천강본풀이>도 아까 여러 번 확인했듯이 가지고 있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볼 때 한국은 주로 한반도하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죠. 거기 그 가운데 함경도하고 제주도의 곳과 신화들은 아주 깊은 관계를 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조 신화, 창세 신화를 얘기하면서 함흥 지역의 미륵님, 석가님의 어떤 경쟁 문제하고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 소별왕의 경쟁을 서로 견주어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이 두 지역만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국면에서 함경도의 신화와 제주의 신화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곳과 함경도 곳이 동해안 루트를 타고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또 하나의 자료가 바로 원천강본풀이와 함흥 본 바리데기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바리데기와 오늘이의 어떤 통과 의례 과정이 바로 무당의 무당의 통과 의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은 암시하고 있죠. 무당 또는 제주도의 심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때 무당은 말하자면 저승과 같은 신성한 공간으로 가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다시 갖고 와서 인간들에게 풀어놓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 과정이 신화로서 재현되는 것이 바로 바리데기 신화고 <원천강본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바리데기는 망목굿 신화에 등장하고 오늘이는 신굿 신화에 등장을 해서 곳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인물들의 기능 그다음에 신화의 형태와 동일하다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원천강본풀이와 함흥 본 바리데기의 공통성에서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이를 왜 제주의 바리데기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주에도 망자 천도굿이 있어요. 특히 무혼굿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제주도의 무혼굿에서는 바리데기 신화가 구연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주의 무혼굿에는 생명을 관장하는 저승의 신이 시왕이죠. 이것은 불교에서 온 상상력인데요. 저승에 10명의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처벌을 담당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왕을 맞이하는 절차가 제주도의 무혼굿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왕 신화는 따로 없습니다. 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바로 이런 존재 이런 인물들이 저승에 있는 10명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시왕맞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시왕맞이 굿을 할 때 그 한 과정으로 <차사본풀이>라고 하는 신화를 구연을 해요.

그런데 그 <차사본풀이>의 주인공 이름이 강림인데 이 강림이라는 인물이 인간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요. 이때 강림이는 망자를 이렇게 잘 모셔가는 게 아니고 망자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강림이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됐는가 하면 강림이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염라대왕하고 싸웠어요. 염라대왕하고 맞설 정도로 아주 용감한 인물이어서 재를 또 저승차사로 뽑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뽑혀간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워풀한 남성 신입니다. 따라서 망자 천도굿의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인 바리데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이런 제주도의 굿 상황을 보면 오늘이야말로 제주도 신굿에서 불리는 오늘이야말로 제주의 바리데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복여행 신화소를 공유하고 있고 신화 굿에서 그 기능이 바리데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주의 바리데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역에 바리데기 신화가 존재하지만 제주도에만 바리데기 신화가 전승되지 않습니다. 대신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가 바리데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이야말로 제주의 바리데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주의 바리데기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는 오늘의 문제 해결자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오늘이는 스스로 결핍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죠. 이름도 모르고 태어난 곳도 모르고 그런데 그 결핍을 지닌 존재가 다른 결핍을 지닌 존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이는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신이고 오늘이는 행복한 오늘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는 오늘이를 신궁에서 부르는 제주의 심방들은 바로 오늘이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자 한국 문화의 밑바탕을 흐르는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샤머니즘의 세계 인식의 핵심은 현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속주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원천강본풀이〉가 말하는 현세주의는 부정적인 부귀영화를 탐하는 그런 부정적인 현세주의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려면 나를 버리고 남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 너의 결핍과 상처도 아문다라고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현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는 박봉춘, 조술생 두 가지 구연본에 모두 등장한다. (O/X)

정답: X

2.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의 설화 유형은 ‘구복여행담’이다. (O/X)

정답: O

3.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라는 인물의 행로를 통해 신곳에 임하는 심방의 운명을 자각하게 하는 신화이다. (O/X)

정답: O

4. ‘구복여행화소’는 <원천강본풀이>(박봉춘)에는 나타나지 않는, <바리데기>(함흥본) 고유의 것이다. (O/X)

정답: X

5.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에는 우주의 비밀과 결핍을 넘어서는 ‘비결’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나타난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의 줄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은 홀로 강림들에 솟아난 아이에게 오늘을 잘 버티라는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 ② 연꽃나무는 다른 꽃나무의 꽃을 따서 자신의 가지에 붙이자 꽃이 만발하였다.
- ③ 대사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방법은 야광주 두 개를 버리는 것이었다.

정답: ③

2. 다음 중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의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상이와 매일이의 결혼’은 행복을 ‘결혼’과 연결하는 근원적이고 현세주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
- ② ‘연꽃나무의 윗가지 꽃 따기’는 식물의 속성과 농사법을 환기하는 자연친화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
- ③ ‘오늘이와 시녀궁녀(백씨부인)의 서로 돕기’는 인간과 신령은 상호독립적이라는 종교적 원리를 환기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다.

정답: ③

3. 다음 중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 등장인물 이름의 상징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상이’는 자식이 출세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한국인의 욕망이 투사된 이름이다.
- ② ‘오늘이’는 미래의 행복을 선물하는 여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③ ‘오늘이’는 ‘매일이 오늘 같으면’과 같은 시조의 노랫말의 함축 의미와 그 상징성이 상통한다.

정답: ②

4. 다음 중 ‘오늘이’를 제주의 ‘바리데기’라 부르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복여행 화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신화와 굿에서의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③ 등장인물의 서사적 원천이 같기 때문이다.

정답: ③

5. 다음 중 조술생 본 <원천강본풀이>의 ‘원천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천강의 남편’에 초점을 두면 실패한 아기장수형 영웅의 이야기로 해석된다.
- ② 부인 ‘원천강’에 초점을 두면 원천강의 유래(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된다.
- ③ “원천강이나 보며 살아라”라는 말은 점쟁이의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정답: ③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에서 장상이, 매일이, 백씨부인은 ‘인간’을, 연꽃나무와 천지대사는 ‘자연’을, 시녀·궁녀와 오늘이는 ‘신령’을 상징한다. 즉,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과 등장인물들은 온 ○○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우주

2. <원천강본풀이>는 곳의 종류 중 제주의 ○○에서 구연되며, 이는 현재는 전승이 중단된 본풀이이다.

정답: 신국

3. 한국 문화의 밑바탕은 무속이며, 무속의 세계관은 ○○○○라 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표현된다.

정답: 현세주의

나. 토의(30분)

제주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보고 둘을 비교하여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그 예술적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의해 본다.

다. 과제(60분)

다른 제주도 무속신화를 찾아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 신화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는 글을 써 본다.

〈제9강〉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의 싸움

학습 목표

1. 제주의 무속신앙 속에서 「삼승할망본풀이」를 이해한다.
2.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할망의 대립과 화해를 살핀다.
3. 「삼승할망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의 역대응 관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강의 핵심 요약

제주신화 〈삼승할망본풀이〉를 다룬다. 우선 무수한 신을 모시는 제주도의 문화를 살펴본다. 제주의 곳은 청신, 오신, 송신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과정도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그중 청신 의례의 일부인 불도맞이라는 제차에서 구연되며, 삼승할망이 신이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두 여신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대립을 넘어선 화해와 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대립에서 화해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의 계기는 신삼승할망의 권유이다. 화해의 결과, 인간할망 날뿐 아니라 저승할망 날도 기리게 된다. 여기에는 나쁜 신이더라도 그 신을 달래서 나쁜 것이 인간의 삶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무속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변이형인 「할망본」도 마찬가지로의 경로를 보이며, 화해와 조화가 제주 신화, 더 넓게는 신화 일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가 제주도 신화의 세계상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려면 창세 신화인 「천지왕본풀이」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천지왕본풀이」가 만들어놓은 세계상에서 대별

왕의 저승에는 맑고 청량한 법이 있지만 소별왕이 다스리는 이승은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승에는 삼승할망이 존재하고 저승에는 저승할망이 존재한다. 선악으로 짝을 지으면 「삼승할망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의 역대응 관계가 그려지는 것이다. 이는 한국신화의 음양론적 세계관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화해의 주체는 창세신화의 쌍둥이 남성신이 아니라 여신인 삼승할망이 된다. 인간 세상이 불행으로 가득해도 세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화해의 주체인 삼승할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1. 제주, 만팔천 신들의 섬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의 대립과 화해입니다. 제주도 민속 신화 가운데 <삼승할망본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 신화에서 특별히 본풀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본풀이라는 것은 신의 근본을 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의 제주 말이 본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흔히 제주도는 만 팔천 신들의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관광지 뒤에는 만 팔천 신들의 섬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세계관,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제주도 민속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로 신구간은 옛 것과 새로운 것 사이라는 뜻이죠. 뭐가 하면 겨울에서 봄이 오는 대함과 입춘 사이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새것과 옛것과 새것 사이라고 해서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상에 있던 만 팔천 명의 신들이 모두 천상으로 올라가서 출석을 말하자면 출석을 부르러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천상에서 올라가서 신들의 어떤 그 말하면 점검을 하고 새로운 임무들을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제주도 사람들이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간 사이 일주일 동안은 지상의 어떤 신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에 어떻게 보면 나쁜 신들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주도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이사를 합니다. 집수리를 합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신구간이라는 민속입니다.

과거에 외국인이 와서 찍었던 사진을 보면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 민속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제주도 이사의 20% 이상이 이 시기 일주일 동안 몰려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신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신당인데요. 제주도에에는 제주도 지도상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해안가에 수없이 많은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당500 신당이 500개 있었다 500개는 아주 많다는 뜻이겠습니다마는

당500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당들이 있었고 그 신당들마다 신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신당에 거주하지 않는 두루 존재하는 천상과 지상과 지하에 존재하는 또는 해양에 바다에 존재하는 무수한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 가운데 신들의 이야기 신화가 있는 대표적인 신들이 이런 신들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이름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오늘 강의는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삼승할망본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굿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굿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청신, 오신, 송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굿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적인 의례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바이팅(inviting)하고 엔터테이닝(entertaining)하고 센딩(sending) 일련의 과정 신을 맞이하고 즐겁게 하고 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주도 굿도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과정이 또한 다양한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2. 제주의 큰굿과 불도맞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삼승할망본풀이>가 이 전체 굿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큰 굿의 절차를 이름만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청신 의례의 일부로서 불도맞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불도맞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이 절차 속에 이 제차 속에서 <삼승할망본풀이>가 구연이 됩니다.

큰 굿을 할 때 그 굿에 들어오는 신들을 일일이 소개해서 그 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신들을 그 자리에 맞이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큰 굿은 보통 길게는 두 주일 짧게도 한 주일 최근에는 2박 3일 이렇게 굿이 거행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불도맞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도맞이 절차는 또 이런 다양한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도맞이가 뭐냐 불도맞이는 아이의 출산과 성장을 도와주는 산육신을 모시는 굿. 굿거리를 불도맞이제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산육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의 출산과 성장을 도와주는 신이죠. 흔히 제주도 외에서는 삼신할머니 이렇게 불리는데 제주 말로 그것을 삼승할망 이 신화 속의 삼승할망은 생불할망, 불도 뭐 인간할망 등등의 이름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삼승할망을 맞이하는 굿거리를 왜 하필이면 불도맞이라고 부르는가 맞이하는 것은 맞이한다 웰컴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불도가 뭐냐 불도가 삼승할망이라는 신의 이름이죠. 불도라는 것

은 생명의 씨앗 이런 의미를 사실은 제주도 말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 상징적인 신을 맞이하는 제사, 맞이하는 의례가 불도맞이제인데 바로 생명의 씨앗을 가져다주는 그 상징적인 존재를 다른 말로 삼신할머니 제주 말로 삼승할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불도맞이제는 수록침, <구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 본풀이> 등등의 과정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저 불도맞이제 하나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곳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저 지금 사진 속에 등장하는 저 장면은 저 긴 그 명주 말하자면 긴 옷감을 저렇게 무당이 흔들는데 저것은 바로 아이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길이, 목숨의 길이를 상징하는 저 줄을 흔들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불도맞이제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승할머니가 삼승할망이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삼승할망본풀이>입니다.

3. <삼승할망본풀이>의 줄거리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승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존재는 동해용궁, 서해용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해용왕, 서해용왕 동해용왕과 서해용왕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동해용왕 할머니 뭐 아이가 할머니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이름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다른 말로는 동해용왕 따님아기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데 이 딸이 이 딸이 어려서 부모한테 불효를 합니다.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어머니 가슴을 젓 가슴을 뜯고 뭐 이런 전형적인 어떤 행위 때문에 용궁에서 쫓겨납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쫓겨난 딸이 인간 세상에 어디 나가서 용궁에서 쫓겨나니까 어디 나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직을 줍니다. 생불왕이라는 신직을 주는데 생불왕이라는 존재는 신직은 결국은 아이를 아이를 출산시키고 아이를 임신, 출산시키고 아이가 어렸을 때 질병이 안 걸리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신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신직을 수행해야 되는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와중에 아직도 쫓아내지 않았냐고 아버지 동해용왕이 호통을 치는 바람에 임신을 시키는 방법은 배웠는데 아이를 낳게 하는 출산법은 배우지 못한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옵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무쇠 석함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 갇혀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임박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집에 모셔집니다. 신으로 모셔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한테 아이를 점지해 주고 바로 늙은 임박사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달이 차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될지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출산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아이를 낳게 하는 과정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산모의 겨드랑이를 가위로 이렇게 자르다가 결국은 산모까지 죽습니다. 아이도 죽습니다. 임박사 집에만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각 제주도의 여러 집에서 아이가 죽고 곡소리가 납니다. 자 그 원통함을 하늘에 호소하니까 옥황상제가 안 되겠다. 재로는 안 되겠다. 아이들 인간 세상에 씨가 마르겠다. 다른 삼신할머니가 될 인물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인물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발견된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맹진국 따님아기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맹진국 따님아기의 부모가 이상합니다. 석가여래, 석가모니 불교적인 요소가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개입되어 있는데 어쨌든 석가모니가 나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따님아기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여서 발견되어서 하늘로 불러 올라갑니다. 그 하늘에 올라갈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천지 단절 신화를 할 때 얘기했던 그 줄을 타고 특히 제주도의 노각성 자부줄이라는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의 테스트를 거쳐서 해산법까지 마스터를 하고 삼신할머니 생불왕이 되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동해용궁 따님아기라는 삼신할머니하고 만나게 되죠. 이미 지상에는 동해용궁 따님아기라고 하는 삼승할망이 있는데 새로운 삼승할머니가 내려오니까 옛 것하고 새 것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싸움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서 옥황상제 앞에서 둘이 경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대목에서 이 <삼승할망본풀이>는 <창세 신화>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기의 종목이 경쟁의 종목이 모래밭에 꽃씨를 뿌려가지고 꽃을 피우는 그런 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신화 김쌍돌이 본 창세가에서 세 가지 종목의 내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자면서 꽃을 피우는 내기였지 않습니까. 꽃을 피운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신으로서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 이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모래밭에 꽃을 뿌려가지고 꽃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삼승할망본풀이>하고 <창세 신화>는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내기에서 당연하게도 맹진국 따님아기가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맹진국 따님아기가 뿌린 꽃은 모래밭에서 아주 꽃을 활짝 피어서 번성하고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뿌린 꽃씨는 꽃이 한 송이 쭉 올라오더니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꽃이 돼버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곳 장면은 바로 그 시든 꽃을 만드는 동해용궁 따님아기 삼신할머니인데 옛날 삼신할머니 그래서 구삼승이라고 하는 그 신이 아이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기 위해서 초라한 옷차림으로 아이들을 찾아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곳 과정에서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났습니다. 옥황상제는 동해용궁 따님아기한테는 저승으로 가라 아이의 죽음을 말하자면 주는. 살아있는 아이를 죽음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할망 맹진국 따님아기한테는 인간 세상 이승의 인간할망, 삼승할망이라는 신직을 줍니다. 그랬더니 싸움에서 진 내기에서 진 동해용궁 따님아기 옛 삼신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아이들한테 꽃을 주면 꽃을 피워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주면 나는 그 꽃마다 다 꺾어 가겠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맹진국 따님아기 인간할망, 삼신할머니가 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좋은 마음을 먹는 게 어떠냐 하고 살살 달래줍니다. 달래면서 너도 곳상에서 좋은 음식을 받아먹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마침내 둘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작별의 잔을 나누는 뒤 각각 이승과 저승으로 내려가서 저승할망과 이승할망 인간할망이라는 신직을 차지하는 것으로 <삼승할망본풀이> 신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변형된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할망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이라는 이승과 저승의 두 여신이 아니라 저승에 있는 신의 성격이 남성 신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변이형 변형된 이야기죠.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신국 마누라님이라고 하는 저승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인간 세상에 나오다가 맹진국 할머니를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 서신국 마누라 며느리한테 이 맹진국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게 해줍니다. 아니 그랬더니 서신국 마누라는 맹진국 할머니들의 자손들한테 마마를 줍니다. 맹진국 할머니는 좋은 거를 줬는데 서신국 할머니는 나쁜 거를 줘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왜냐하면 서신국 마누라님이라고 하는 이 남성 신의 정체가 스몰폭스(smallpox)라고 해가지고 천연두의 신이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마마에 걸려서 애들의 목숨을 다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아주 나쁜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마를 주니까 할머니 자손들이 애들이 얼굴이 막 죽지 않으면 얼굴이 열그면서 뒤옹박처럼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참지 못하고 맹진국 할머니도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합니다. 임신을 했지만 아이를 못 낳게 말하자면 산도를 막아버리죠. 그랬더니 서신국 마누라가 애를 못 낳아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며느리가 점을 쳐봅니다. 점을 쳐봤더니 야 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맹진국 할머니가 산도를 막아서 그렇다 그렇다면 맹진국 할머니를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인을 온갖 재물을 차려가지고 할머니한테 보내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고 죄를 빌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얼굴을 본래대로 마마 자국이 안 생기게 잘 낳게 해주면 며느리가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서로 दिल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할머니는 서신국 마누라의 며느리를 해산시키게 되고 실제로 본풀이에 보면 아이를 낳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이런 것이 붙습니다. 그 맹진국 할머니하고 서신국 마누라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나쁜 신이라고 해서 쫓아내고 좋은 신이라고 해서 제사를 혼자 받는 게 아니고 4일, 7일 다시 말하면 4일, 14일, 24일, 7일, 17일, 27일은 할망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에는 맹진국 할머니, 삼신할머니 삼승할망의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9일에는 저승할망의 서신국 마누라님의 제사를 지내고 할망상을 윗자리에 놓는 그런 내력을 쭉 서술함으로써 이 본풀이는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굿을 할 때 이렇게 생불할망, 삼승할망으로 분장을 분한 무당이 무당이 동백꽃 동쪽을 번성꽃이라고 하는데 동백꽃을 들고 따주면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실제로 굿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4. 두 할망의 싸움

자 이 신화를 <삼승할망본풀이>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두드러진 것은 두 여신의 대립입니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두 여신의 대립 상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신의 이름은 적힌 바와 같고요, 신이 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행동 행실은 어떻습니까. 저승할망이 된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부모님한테 불효한 존재죠. 그런데 맹진국 따님아기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웃을 잘 돌보는 선행을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대립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죠.

신이 되는 과정도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부모의 영역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부터 쫓겨나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축출돼서 땅에서 나옵니다. 맹진국 따님아기는 하늘로 승천하죠. 좋고 나쁜 것, 나쁘고 좋은 것이 분명하게 대립되어 있죠. 그다음에 신들의 영역 영역도 한쪽은 저승이고 한쪽은 이승이고 이 저승과 이승 신의 영역에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동 통로는 한쪽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노각성 자부줄이라는 신성한 줄인데 한쪽은 인간의 생명을 가두는 무쇠 석갑이라고 하는 폐쇄된 어떤 공간 이런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으로서의 능력도 저승할망은 부족합니다. 출산법은 그 임신법은 알아도 해산 출산법은 모르고 몰라서 하문을 열지 않고 겨드랑이를 열어서 아이를 꺼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저승할망인 동해용궁 따님아기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마스터한 인물이 삼승할망이 된 맹진국 따님아기인 셈이죠. 신의 옷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당이 굿을 할 때 저승할망 역할을 표현할 때는 아주 초라한 헌옷 아까 하얀 무명옷 같은 걸 입고 삼승할망이 됐을 때는 화려한 그런 새 옷을 입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의 역할에 맞게 상징적인 꽃도 저승할망의 경우에는 시든 꽃이 되어 버리고 다른 말로는 악심꽃이라고 합니다. 악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여서 저승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꽃이니까 그건 악심꽃이라고 불리는 게 마땅하겠죠. 실제로 굿을 할 때 퍼포먼스를 할 때는 역새꽃이라고 해서 역새풀 같은 말라버린 하얀 역새풀을 꺾어와서 그걸 가지고 저승할망의 시든 꽃을 표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승할망은 봄에 피는 겨울을 거쳐서 봄에 피는 제주도의 동백꽃 붉은 동백꽃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번선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뒤에 소개한 할망본의 경우에는 생불할망의 자리는 그냥 맹진국 할머니가 그대로 차지하고 있지만 저승할망 자리에 서신국 마누라님이라고 해서 남성 신. 정체는 천연두의 신 마마의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다 동일하고요. 의미도 동일한데 신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사실 원래 이 <삼승할망본풀이>의 구삼승의 모습 저승할망의 모습은 아이를 일반적으로 아이의 생명을 건어가는 그런 신의 모습이었는데 그 천연두라고 하는 새로운 무서운 질병이 지금은 거의 극복되었습니다마는 무서운 질병이 한반도 지역에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에 퍼지면서 대단히 공포스러운

그런 질병이 바로 그 천연두였거든요. 천연두가 생성되면서 말하자면 서신국 마누라라고 하는 천연두의 신이 이 곳 속으로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삼승할망본풀이>라고 하는 곳을 할 때 그냥 저승할망만 위로해줘가지고 저승할망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무서운 그 존재가 등장했으니까 그걸 서신국 마누라 님이라고 하는 남성 신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바로 그 남성 신인 서신국 마누라를 맹진국 할머니님이 굴복시키고 컨트롤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곳에서 구연을 함으로써 천연두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곳의 변화 과정 속에 이 서신국 마누라의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우리는 두 여신의 대립만을 보면 이 신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반만 이해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대립을 넘어선 화해를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지점에서 그렇다면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5. 두 할망의 화해의 의미

<삼승할망본풀이>는 두 여신이 대결을 통해서 이긴 쪽이 삼승할망이 되는 그런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두 여신이 경쟁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신직을 나누는 신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두 신이 화해를 통해서 협력에 이르는 신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대립에서 화해로 가는 것이고요.

그 변화의 계기는 뭐냐 새로운 삼승할망이 된 맹진국 따님아가기가 구 삼승할머니인 동해용궁 따님 아기한테 우리 좋은 마음먹기 어떠하겠느냐 실제로 곳의 사설이 이러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렇게 나쁜 마음먹어서 애들 생명 잡고 목숨 걸어가지 말고 좀 좋은 마음을 먹어라 곳을 할 때 나만 곳상을 받지 않고 너에게도 상을 받을 인간들의 곳상을 인간들의 제사를 받을 기회를 줄 테니까 그렇게 너무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고 권유하고 위로함으로써 변화의 계기가 생기고 그 결과 두 여신이 서로 악수를 하고 술잔을 나누는 화해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실제로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인간할망의 날과 저승할망의 날을 매월 4일, 7일 매월 9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쁜 신인 저승할망한테도 곳상을 드립니다. 제삿상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서 파워를 힘을 가지고 눌러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나쁜 신이라고 신이라도 살살 달래서 그 나쁜 것이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방법이 무속의 세계관이 고 곳의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신국 마누라님 마마신이 등장하는 경우도 앞에서 살폈듯이 마찬가지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가 <삼승할망본풀이> 더 나아가서

제주 신화 또는 신화 일반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승할망으로 분한 무당이 그런 초라한 소복 차림의 하얀 옷을 입고 역새꽃을 들고 굿을 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할망의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파안 대소 웃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삼승할망본풀이> 제주 신화의 어떤 굿의 형식, 굿의 구조, 굿의 메시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제주 창세신화와 <삼승할망본풀이>의 관계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삼승할망본풀이>는 그냥 삼승할망 이야기만 하지 왜 생불할망과 저승할망이라는 두 여신의 내력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야 될 필연적인 사정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뒤에 또 덧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답을 좀 찾아보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더 질문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큰 굿의 일부로 구연되는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 신화의 세계상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가 아까 제주도의 큰 굿이 어떤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구연되는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를 <삼승할망본풀이>는 가지고 있는가 자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의 이 이승과 저승에서 아이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승과 저승에는 삼승할망, 저승할망 말고 다른 신들 다시 말하면 이 삼승할망, 저승할망의 상위에 있는 위에 있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 세상을 전체를 다스리는 신 그 신이 떠오르고요.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창세 신화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은 누구이며 그 두 신과 그 신들과 이 두 여신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삼승할망본풀이의 더 깊은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제주의 창세 신화 천지왕본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지왕본풀이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최고의 신이죠. 세계를 창조한 최고의 신이고 도교의 옥황상제 뭐 이런 불교의 석가모니 뭐 이런 무속에서요. 그런 신들과 같은 위계에 있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미 하늘과 땅이 개벽을 해서 천지왕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하늘의 해와 달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천지왕이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함경도의 김쌍돌이 본 <창세가>에서는 해와 달의 숫자를 미륵님이 직접 조정을 했어요. 미륵님이 해와 달을 하나씩 따서 그걸 가지고 별을 만듭으로써 그 하늘의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다

른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상에 내려온 천지왕은 지상에 총맹부인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천지의 결합으로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중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총맹부인이 천지왕을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해야 되는데 집에 쌀이 없어서 이웃에 수명장자한테 쌀을 빌리러 갔는데 이 마음씨 나쁜 수명장자가 돌이 섞인 쌀을 빌려줬습니다. 거기에 화가 난 천지왕이 벼락을 내려서 수명장자를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아들과 딸은 뭘 하늘의 솔개, 벌레 이런 존재로 만드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총맹부인이 천지왕 하늘로 올라가는 천지왕을 붙잡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천지왕이 박씨 두 알을 남기고 올라가죠.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박씨를 심어서 나를 찾아오게 하라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누구냐 묻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줄이 하룻밤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서 마치 재크와 콩나무처럼 그 박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천지왕을 만나게 되죠.

자 이 천지왕으로부터 두 형제가 거대한 크기의 활과 화살을 받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두 개 있어서 인간의 삶이 힘든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일종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죠. 그래서 해를 쏘아서 셋별로 만들고 달을 쏘아서 어시렁 별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함홍의 창세 신화 김쌍돌이가 구연했던 <창세 신화>와 다른 점은 여기에는 명사수 활쏘기라고 하는 신화적 요소가 더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의 해와 달을 정리하고 나서 아버지가 형인 대별왕한테는 네가 인간 세상 이성을 다스려라 동생한테는 저승을 다스려라 이렇게 맡겼는데 동생이 불만을 품고 나도 이성으로 가고 싶다 하고 나서자 어쩔 수 없이 이성과 저승을 가르기 위해서 두 형제한테 시합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것이 김쌍돌이 <창세가>에도 등장했던 수수께끼 시합이죠.

여러 가지 수수께끼 시합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나무는 평생 이파리가 안 지고 어떤 나무는 이파리가 지느냐 왜 동산의 풀은 자라지 못해 짧고 구렁의 풀은 잘 자라 길어지느냐 뭐 이런 퀴즈가 오고 가던 차에 결국은 이 모든 수수께끼에서 동생이 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동생인 소별왕이 그러면 꽃 피우기 내기를 하자. 자 이 지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 앞에 섰던 맹진국 따님아기와 동해용왕 따님아기도 모래밭에 꽃 피우기 시합을 했죠. 자 무속 신화에서 꽃을 피우는 내기 꽃 피우기 내기는 대단히 중요한 신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명을 좌우하는 능력을 그 꽃 피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창조자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봄에 꽃을 피우듯이 꽃을 피울 수 있어야 창조자로서 신으로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자 여기에서도 시합을 합니다. 형의 꽃이 피고 자기 꽃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잠자면서 잠을 자는 내기를 해요. 그래서 형이 쿨쿨 잠에 드니까 몰래 잠을 자는 척하고 있다가 동생인 소별왕이 형의 꽃을 훔쳐서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을 합니다. 석가님의 형상하고 똑같죠. 김쌍돌이 본 <창세가>의 석가님의 형상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생 소별왕이 이성을 차지하게 되고요. 형 대별왕이 저승을 차지해서 저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기 전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 대별왕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설운 아우 소별왕아 이승법이랑 차지하여 들어서라마는 인간 세상에 살

인 역적이 많으리라 검은 도둑이 많으리라. 남자 자식은 열다섯이 되면 자기 아내 놓아두고 남의 아내 엿보는 이가 많을 것이 많으리라 여자 자식도 열다섯이 넘어가면 자기 남편 놓아두고 남의 남편 엿보는 이 많으리라 이런 말하자면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퍼부어 놓고 대별왕은 저승으로 떠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죠. 살인, 역적 그다음에 말하자면 도둑 그다음에 15살 넘으면 서로 서로 다른 남자 여자를 탐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인간 세상에는 끊임없이 연출된다는 것이 대별왕의 경고였습니다. 반대로 대별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저승 나는 저승에 가서 저승의 법도를 저승의 법칙을 만들 것이다 저승의 법칙은 어떤 거냐 맑고 청량하다. 이것은 이승과 완전히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악으로 가득 찬 소별왕의 세상에 제주 신화의 전체 구도에서 보면 <천지왕본풀이>라고 하는 제주의 어떤 전체 세계상이 있어요. 천지왕본풀이가 만들어 놓은 제주의 세계상 이승은 소별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 소별왕이 다스리는 이 인간 세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바로 그런 가득 찬 세상에 이승에 삼승할머니, 삼신할머니가 존재한다 이게 <삼승할망본풀이>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7. 이승의 소별왕과 삼승할망의 꽃피우기

그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창세 신화에 따르면 저승은 대별왕이 있고 이승은 소별왕이 있습니다. 각각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들이죠.

그런데 좋은 대별왕이 있는 저승에 나쁜 저승할망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있다고 <삼승할망본풀이>는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나쁜 소별왕이 다스리는 인간 세상의 이승에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좋은 착한 삼신할머니 맹진국 따님아기가 있다고 제주도 신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대응이 되는 거죠. 선악의 관계로 대응을 시켜보면 대별왕은 삼승할망과 소별왕은 저승할망과 짝을 이뤄야 맞는데 이것이 서로 짝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엇갈려 있지 이거를 나는 역대응 관계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대응 관계는 뭘 말하는가 하면 대별왕이 맑고 청량한 법이 있다고 하는 좋은 저승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거둬가는 저승할망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대별왕이 아주 모든 살인과 도둑이나 이런 역적이 많은 이 나쁜 이승의 소별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승할망과 같은 좋은 여신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일까요. 자 앞에서 몇 차례 지적했던 이 음양론의 문제와 이 역대응 관계는 서로

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양의 관계 속에서 음과 양은 이분법적으로 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 속에 음의 요소, 음 속에 양의 요소가 섞여 있는 채 서로 운동하는 관계라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음양론적인 세계관이 한국 신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제주도의 신화 <천지왕본풀이>뿐만 아니라 <삼승할망본풀이>에 말하자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으로는 저승의 그 양의 부분에 이를테면 그 대별왕이란 존재가 있으면 그 대별왕 안에 저승할망이라고 하는 음의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음의 존재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소별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승 안에 삼승할망이라고 하는 좋은 다시 말하면 양의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삼승할망본풀이라고 하는 여신 신화에 사실은 숨어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음양론의 신화적 표현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다른 역대응이라고 하는 그 대별왕, 소별왕의 구도하고 저승할망, 이승할망이라고 하는 두 신들의 쌍의 역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응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 신화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삼승할망본풀이>를 필두로 하는 제주 신화가 말하는 그 대립적인 두 신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주체 그 주체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 신화>에 나타난 쌍둥이 남성 신 줌 전에 말씀드렸던 대별왕, 소별왕 사이에는 싸움만 드러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죠. 둘 사이에 서로 손잡고 화해해서 너는 이승으로 가자 나는 저승으로 가마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경쟁 과정에서 결국은 형을 속인 형을 속인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함으로써 대별왕은 저승으로 밀려나는 관계가 되고 그 과정에서 대별왕이 말하자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기는 식으로 그 두 쌍둥이 신의 대립 관계가 훨씬 더 잘 드러나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삼승할망본풀이>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주신화 체계에서 이승과 저승의 대립을 갈등으로 가득 찬 이승의 세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신은 여신 삼승할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승할망은 싸움을 걸어오는 저승할망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좋은 마음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지왕본풀이>라고 하는 그 <창세 신화>의 창조신들이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놓은 이승과 저승의 대결 관계를 협조 관계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면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신들 사이의 역대응 관계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누가 들고 있느냐 그것은 삼승할망이 들고 있다. 삼승할망은 여신이고 여신 삼승할망이야말로 화해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신화들을 살펴보면 특히 여성 신들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신들이 대단히 두드러질 뿐 아니라 여성 신들이 대단히 능동적으로 활약하는 신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농경신인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와 같은 여신 그리고 제주도의 유명한 신당인 송당의 여신 백주또라고 하는 여신 이 등등의 여신들을 보면 이 여신들의 행동 양상이 대단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에요.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관계 속에서 남성 신에 의해서 억압당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신 여성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제주도 신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적인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도 사회 제주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녀의 관계 그 다음에 여성의 위치 이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다른 한반도 지역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말하자면 주체적인 가정 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가족의 어떤 가족 구성의 실상, 가족 내에서 여성의 위치라는 실질적인 모습이 제주도 신화에 반영이 되어서 대단히 주체적인 여신의 형상이 창안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 맹진국 따님아기의 능동적인 형상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든 꽃을 피우는 능력 밖에 없는 소별왕 혹은 꽃을 피울 능력이 없는 석가님이 다스리는 인간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지속되는 것은 모래밭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삼승할망 화해의 주체인 삼승할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삼승할망본풀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여신 신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신이 여전히 제주도 사회에서 살아 있는 것은 예컨대 오영순 씨와 같은 제주도의 그 연극배우죠. 연극배우가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삼승할망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승할망 이야기가 삼승할망이 꽃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과 수명을 지켜주는 그런 여신이기에 때문에 이 삼승할망의 이야기를 지켜주고 아이들과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제주도 사회에 여전히 삼승할망이라는 존재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삼승할망의 신화는 제주도의 곳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연극적인 공연을 통해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삼승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계를 살고 있죠. 한편으로는 팬데믹,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속 신화는 그것을 석가님, 소별왕이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죠. 바로 그렇다면 그런 21세기의 모래밭에서 번성꽃이라는 꽃을 피우는 삼승할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맹진국 따님아기는 과연 누구인가 <삼승할망본풀이>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삼승할망본풀이>(안사인 본)에서 옥황상제는 동해용궁따님애기에게는 인간(삼승)할망, 맹진국따님애기에게는 저승할망의 신직을 준다. (O/X)

정답: X

2. <할망본>(女巫, 고술생 연구본)에는 4, 7일이 할망날이 된 유래, 마누라상보다 할망상을 윗자리에 놓는 내력이 진술되어 있다. (O/X)

정답: O

3. <삼승할망본풀이>는 두 여신의 대결에서 승리한 쪽이 이승의 삼승할망이 되는 신화이다. (O/X)

정답: X

4.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은 제주 창세신화의 동생과 형에 역대응된다.(O/X)

정답: O

5. 제주신화의 삼승할망은 모래밭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화해의 주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삼승할망본풀이>에 등장하는 두 할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승할망은 바다(용왕)에, 삼승할망은 하늘(석가)에 대응된다.
- ② 저승할망은 시든꽃(억새꽃)을, 삼승할망은 번성꽃(동백꽃)을 상징꽃으로 한다.
- ③ <할망본>에서 저승할망은 맹진국할마님, 삼승할망은 서신국마누라님으로 나타난다.

정답: ③

2. 다음 중 <삼승할망본풀이>에 등장하는 두 할망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계 변화의 방향은 ‘화해 → 대립 → 화해’의 순환으로 나타난다.
- ② 관계 변화의 계기는 ‘좋은 마음’을 먹자는 신삼승할망의 권유로 나타난다.
- ③ 관계 변화(화해)의 결과는 인간할망날, 저승할망날로 나타난다.

정답: ①

3. 다음 중 <삼승할망본풀이>와 제주 창세신화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창세신화의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을 살핌으로써 <삼승할망본풀이>의 두 여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② 창세신화의 도입부와 결말부를 비교함으로써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창세신화의 이승과 저승에 대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삼승할망본풀이>의 이면적 주제를 유추할 수 있다.

정답: ①

4. 다음 중 <삼승할망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별왕의 세상에 삼승할망이 있다는 것은 두 본풀이의 역대응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② <천지왕본풀이>의 쌍둥이 남성신들은 화해와 조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 ③ 두 본풀이의 역설적 관계를 ‘삼승할망’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②

5. 다음 중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승과 이승의 대립, 갈등이 만연한 이승의 세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신이다.
- ② 저승할망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위로를 받고 '좋은 마음'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신이다.
- ③ 창조신이 적대적으로 만들어놓은 이승과 저승의 대결 관계를 협조 관계로 변형시켰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삼승할망본풀이>는 저승할망과 삼승할망이라는 두 여신이 ○○를 통해 협력에 이르는 신화이다.

정답: 화해

2. 제주신화 체계에서 갈등으로 가득 찬 이승의 세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라 할 수 있다.

정답: 삼승할망

3. <삼승할망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는 소별왕의 세상(이승)에 삼승할망이 있다는 ○○○○의 관계를 보인다.

정답: 역대응

나. 토의(30분)

한국의 속담과 수수께끼를 찾아보고, 자신의 나라에 비슷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그 성과를 토의한다.

다. 과제(60분)

한국의 전설과 민담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자유롭게 글로 써 본다.

〈제10강〉

한국신화와 유라시아신화의 관계

학습 목표

1. 한국 신화를 유라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2. 백조처녀 네트워크를 통해 신화의 역사적 변화와 한국 사례의 특수성을 파악한다.
3. 명궁 네트워크를 통해 신화의 역사적 변화와 한국 사례의 특수성을 파악한다.
4. 신데렐라 네트워크를 통해 신화의 역사적 변화와 한국 사례의 특수성을 파악한다.

강의 핵심 요약

‘한국 신화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다룬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문화가 이동하고 교류되었다. 서로 비슷한 유사신화들이 그러한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유라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 신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백조처녀 네트워크이다. 유라시아 전역의 다양한 백조처녀 이야기를 통해 신화의 역사적 변화를 추정하면, 동물혼 모티프의 시조신화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기원과 의례라는 맥락이 사라지며 민담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고니처녀가 유라시아의 문화 유전자(meme)였으며, 한반도가 유라시아와 이야기 네트워크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천상시련극복형이 가장 널리 전승된다는 한국의 특수성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명궁 네트워크이다. 유라시아의 명궁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신화의 역사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활쏘기 주술에 자연재해의 해결, 인간사회의 갈등 해결이라는 두 가지 국면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한국, 특히 제주도에서 신화소를 변형하여 명궁 영웅을 조상신으로 만들었다는

특수성도 알 수 있다. 명궁과 문화 유전자에 대한 한국인의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신데렐라 네트워크이다. 신데렐라 네트워크에서는 뼈에 대한 수렵사회의 사유를 바탕으로, 신화가 신데렐라 민담으로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콩쥐팥쥐의 특수성 역시 알 수 있다. 이는 남방과 북방의 두 문화의 종합판이 한국의 콩쥐팥쥐라는 점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1. 한국신화와 유라시아 신화의 관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 신화와 유라시아 신화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국의 신화 강의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강의는 그동안 했던 강의를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신화를 이해할 때 유라시아 신화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하나의 대륙은 오늘날 국가와 민족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덩어리였죠. 이미 석기 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한 6개의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 문화들이 이동하고 상호 교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화적으로 유라시아는 하나의 큰 권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 가운데 서로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사 신화라고 합니다. 유사 신화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 유사 신화들이 결국은 개인과 집단의 이동과 교류 이걸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견해들이 한국 신화를 이해하는데 유라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 신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긴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서 이전 강의에서 몇몇 사례들을 거론한 바가 있죠. 창세 신화 얘기하면서 미륵님과 석가님의 그 경쟁과 협력을 해석하면서 중앙아시아 알타이 지역의 <월젠 에를릭 신화>를 끌어온 기억이 날 겁니다. 양자 사이에 그 꽃 피우기라고 하는 모티프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두 신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유사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조명하에 이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바리데기 신화를 해석하면서 바리데기 신화의 어떤 저승 여행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타타르족의 쿠바이코나 만주의 니산 샤먼의 저승 여행담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한 바도 있죠. 그리고 건국 신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건국 신화인 고조선의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 웅녀 이야기. 곰 이야기를 어원키나 니브히족 나아가서 우데게이족의 곰 숭배, 곰 기원 신화의 맥락에서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신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라시아 신화는 대단히 긴요한 비교 자료

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 신화와 유라시아 신화 한국의 이야기들과 유라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사례(1): 백조처녀-선녀와 나무꾼 네트워크

그 첫 번째 사례가 ‘백조처녀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Swan Maiden Tale’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유명한 러시아의 발레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발레를 즐겨 감상하는데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백조 이야기도 이 백조처녀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한국에 <나무꾼과 선녀>라고 하는 민담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나무꾼 총각이 자기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못 했죠.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쫓겨 쫓기는 사슴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뒤에 포수가 따라왔는데 사슴을 자기 그 나무 더미 위에 숨겨줘서 목숨을 구해주죠. 사슴이 그 보답으로 나무꾼 총각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나무꾼 총각은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죠. 많은 경우에 금강산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금강산의 못에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니 목욕하러 내려온 선녀들의 날개옷을 감추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 나무꾼이 세 명의 선녀가 연못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을 때 막내의 날개옷을 숨깁니다. 언니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옷을 잃은 막내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나무꾼이 나타나서 그 선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전에 사슴은 이미 금기, 터부를 나무꾼에게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절대로 돌려주지 말라. 그런데 아이 둘을 낳았을 때 날개옷을 돌려줍니다. 방심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녀인 선녀가 그 아이들한테 달래서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내 엄마 옷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려줬다라는 여러 가지 버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선녀는 자기가 낳은 아이 둘을 데리고 양 겨드랑이에 끼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아이들과 아내를 잃은 나무꾼은 슬픔에 잠긴다 절망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 유형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는 그 외에도 다른 유형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변이형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떠난 선녀를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형 이게 주요한 변이형입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갔을 때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제시하는 다양한 테스트를 모두 다 극복하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하늘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에서 장닭과

같은 동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고 죽은 나무꾼의 시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가 동반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변이형들이 존재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국에 널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민담의 유형은 천상 시련 극복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에는 백조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가 한국 자료만 가지고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부랴트라고 하는 종족이 있고 그 부랴트족은 이런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부랴트 공화국이 있죠. 울란우데가 중심지인데 그 바이칼 호수변에 있습니다. 그 이 구전 자료에 보면 어떤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갔다가 호수에 백조 세 마리가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백조를 따라가 봤더니 백조가 물 위에 내려오자 자기 날개의 깃 그렇죠. 날개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 여자가 되어서 목욕을 하고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백조들은 천신 부랴트족들이 에세게 마란이라고 부르는 천신의 딸들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래서 그중에 한 마리의 깃옷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을 감춰버립니다. 깃을 잃은 백조는 다른 자매들과는 달리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남은 여자를 붙들어서 집으로 가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어떤 버전을 보면 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올가미를 던져서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뭐 아까 한국 이야기에는 두 명이었는데 여기는 6명이나 태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주 몽골의 소주가 유명하죠. 독한 소주를 빚어가지고 남편에게 먹였고 취했을 때 자기 깃옷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취한 김에 사냥꾼은 옷을 내어줬죠. 그 순간 바로 아내는 자기의 본모습인 백조로 변해서 연기 구멍으로 달아납니다. 그 몽골이나 이런 부랴트족과 같은 이 지역 유목민들의 가옥 형태가 게르라고 하는 거죠. 그 게르는 중간에 바람구멍, 연기구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르 안에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바로 그 구멍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막내 딸 작은 딸이 소주를 이렇게 소주를 내리려면 불을 지펴가지고 그 떨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걸 소주를 곤다고 하죠. 불을 지피니까 손이 시커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날아가는 엄마 백조의 다리를 붙잡았죠. 그래서 백조는 온몸이 하얀데 그 발목만 까맣졌다는 것입니다. 그 날아가던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새달이 시작되면 너는 늘 나한테 마유 말쑤하고 차를 따라주고 또 붉은 담배를 뿌려달라 말하자면 매달 매달 백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에세게 마란의 딸인 그 백조로부터 모든 바이칼 지역의 부랴트인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상의 천신의 딸인 백조가 지상에 와서 지상의 인간 사냥꾼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자녀들로부터 부랴트인이 시작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백조는 부랴트인들의 그 어머니죠. 기원에 해당하는 시조에 해당하는 존재고 따라서 자신들의 시조인 백조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늘 이 백조들을 위해서 술을 뿌리고 차를 던져주고 담배도 뿌리면서 부랴트인들은 지금도 의례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랴트족 기원 신화를 보면 이 신화가 <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하고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는 백조만 등장하지 않지 백조가 선녀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지 서로 깃옷을 숨겨서 결혼을 했다가 분리가 되는 그 구조는 이야기 구조는 동일하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뭐 당연히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추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시조 신화입니다. 여기에도 청년 인물이 남성이 나오는데 청년 장수가 전쟁을 하다가 그 기병을 이끌고 고비 사막을 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몽골의 북쪽에 몽골의 이 서남쪽인가요. 그쪽에 고비 사막이 있고 그 건너 쪽에 카자흐스탄이 있죠. 나중에 식량도 모자라고 물도 떨어지고 병도 나고 해서 대다수의 그 병사들이 고비 사막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 장수도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죠. 바로 그때 백조가 날아왔습니다. 백조 한국말에서 백조라고 하는데 흰 새라는 뜻에서 백조라고 하는데 원래 한국 고유에서는 고니라고 합니다 고니. 고니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고니가 흰 고니가 날아와서 샘물가로 이 청년 장수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증도 씻고 상처도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지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자기를 살려준 백조였던 것이죠.

자 이 여자하고 청년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카자흐였다는 거죠. 자 이 카자흐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카자흐의 세 아들이 점점 늘어나서 카자흐족의 큰 삼대에 그 종족 집단을 형성했다는 것이 이 구전 신화입니다. 이 얘기 역시 카자흐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전되는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원에 바로 백조가 있습니다. 이 역시 ‘Swan Maiden Tale’의 계보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원래 백조처녀 이야기는 다양한 유라시아 민족들의 기원 신화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 백조라는 상징적인 동물은 시조 신화의 어떤 그 주인공 시조에 해당하는 동물이었다.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흔히 토tem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다 건너 일본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바로 이 유사한 이카고족의 시조 신화가 결국은 한반도를 경유해서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오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카고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이카고군의 요고 마을에 이카고라고 하는 작은 강이 있고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에 8마리의 백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죠. 이카도미라고 하는 청년이 백조들을 보고 기이해가지고 거기서 달려가 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닐까 해서 가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개를 보냅니다. 자기의 심복인 흰 개를 보내서 옷을 훔쳐오게 하죠. 다른 그 카자흐스탄이나 부랴트족 이야기에 없는 개가 등장하는데 그 개를 시켜서 날개옷을 훔쳐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8명의 말하자면 백조 가운데 막내 것을 감추죠. 그래서 나머지 일곱 언니들은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는데 막내는 올라가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지상의 백성이 되어 버렸고 이 남은 여자하고 이카고가 이카도미가 결혼을 하죠. 그 목욕을 했던 천녀가 목욕을 했던

그 물가를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가미우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각각 아들 딸 둘을 낳았죠. 그들의 이름이 뭐 오미시루, 나시도미, 이세리히메, 나세리히메 뭐 등등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들이 이카고 집안의 조상들이 되었다라는 얘깁니다. 바로 이것은 이카고의 시조 신화 그 시조 신화에 천상의 천녀인 백조가 등장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부랴트족의 시조 신화, 카자흐족의 시조 신화하고 같은 계보에 속한다라고 충분히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 뒤에 이제 날개옷을 찾아 입고 그 여자는 천녀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이카도미 혼자 쓸쓸하게 한탄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죠. 중국 문헌에도 4세기 무렵에 간보라는 인물이 편찬한 수신기라고 하는 책에도 모의녀 털옷을 입은 여자 뭐 이런 뜻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 강서성의 선녀호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넓고 크고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바로 이 중국의 백조처녀 이야기는 이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장현 신유현이라는 곳에 어떤 남자가 밭에서 밭에서 여자를 봤어요. 예닐곱 여자가 있었는데 모두 털옷을 입고 있어서 이게 새일까 새가 아닐까 그래서 기어가 봤더니 여자들이 털옷을 벗어놓고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훔쳐가지고 감춥니다. 그리고는 새들 앞으로 나가자 전부 다 날아서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한 마리만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국 털옷이 없어서 앞뒤 전부 맥락은 생략돼 있습니다마는 털옷이 없어서 못 날아갔던 거죠. 바로 그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서 세 딸을 낳았다는 거죠. 나중에 그 엄마가 딸을 시켜서 아버지한테 묻게 했죠. 옷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옷이 찢어미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딸들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하는 짤막한 기록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문자로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부랴트족,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일본의 이카도미 설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하고 같은 계보에 충분히 놓여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유라시아 지역의 몇몇 자료들만 살펴봤습니다마는 유라시아 지역의 백조처녀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네트를 이루면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아 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화의 역사적 변화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초의 이 토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동물혼 모티프를 신화소를 가지고 있는 시조 신화의 모습이 원래 백조처녀 이야기의 원래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랴트족이나 카자흐스탄 이야기 나아가서는 일본의 이카도미 이야기에서 신화에서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입에서 입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신화가 가지고 있는 기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원을 지지해주는 의례, 제사라고 하는 그 맥락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신화는 신화로 전승되지 못하고 그냥 흥미로운 옛날이야기로 변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신성한 동물이었던 천신의 딸 백조는 인간적인 형태로 변형됩니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바로 선녀로 변

하죠. 그것은 아마도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교에 의해서 천상에 옥황상제가 있는 그리고 옥황상제를 모시는 여성인 선녀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상상적으로 형성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천상에 있는 선녀 이렇게 변형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이 신화적 맥락을 잃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신화적 맥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백조와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가 결국 아이를 다 데리고 하늘로 백조가 원상복귀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남자는 쓸쓸하고 슬퍼졌다 결연에 실패한 이야기로 이렇게 변형되었다라는 거죠. 기원담의 경우에는 그렇게 분리되었지만 남아 있는 아이들이 바로 어떤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화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쓸쓸한 결연 실패 이야기로 변형되는 경우는 민담적으로 변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은 그 자기 아내와 아이가 천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식들과 아내를 잃은 어떤 청년의 쓸쓸한 결말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청년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들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덧붙으면서 이야기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이야기 형태로 변형되는 자료들도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고니치녀 swan maiden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라시아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체의 어떤 문화적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밭이다, 문화 유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유라시아 대륙의 코트머리에 있는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이야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키다. 이 얘기는 결국은 한국의 이야기들, 한국의 신화를 이해하려면 유라시아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바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공통성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례는 유라시아 다른 지역 사례들과 좀 다른 지점도 있구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아주 흔하게 그리고 제일 많이 발견되는 선녀 나무꾼 이야기의 천상 시련 극복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맥락인가 하면 앞에 이제 맥락은 앞에 이야기는 똑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에 보면 쪽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11번째 단락이 되면 옷을 입은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다시 그 노루가 나타나고 두 번째 도움을 받아요. 이제 하늘에 올라간 선녀가 그 연못에 내려오지 않고 물을 퍼 올려서 하늘에서 바가지로 퍼서 하늘에서 목욕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물을 길는 바가지가 천상에서 내려올 때 그 줄을 타고 올라가서 아내를 자식을 찾아가라 이렇게 노루가 정보를 제공하죠.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서 그 옥황상제의 사랑을 지상의 사위가 받는데 바로 하늘에 있던 언니들이 구박을 해요. 언니들이 구박을 해요. 그래서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시합이 벌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경쟁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무기의 눈에 박힌 화살을 빼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고양이 나라, 쥐 나라에 가서 고양이 왕과 쥐 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 통천관 크라운을 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일련의 테스트가 천상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것들을 천상에서 이 지상에서 올라간 나무꾼이 다 해결해요. 왜 해결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결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상에서 살 때 자기가 도와줬던 동물들 고양이나 쥐 이 동물들이 보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늘에서 훌륭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천상 시련 극복형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제일 널리 전승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들이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적 심성, 집단 무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간해서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려고 한다. 이런 어떤 집단성이 있는데 이런 집단성이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Swan Maiden Tale’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저 끝에 있는 한국에 전승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유형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3. 사례(2): 명사수 메르겐-예-주몽-작제전-왕장군 네트워크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궁(名弓)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활을 잘 쏜다는 얘깁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명궁이 바로 고구려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주몽입니다.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에 인용되고 있는 그 <구삼국사>, <고구려 본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금와왕의 궁궐에 있던 유희가 결국은 알을 낳았고 알 속에서 한 아이가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한 달이 안 됐는데도 말을 아주 그냥 유창하게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누워 있으면서 엄마한테 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위해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유희가 대나뭇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워서 이 주몽이 베 짜는 물레 물레 위에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를 쏘아서 화살로 맞췄다는 거죠.

자 이 부여 부여는 이제 고구려 이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는 부여의 계통이고 부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이를 일러서 주몽이라고 하였다. 바로 주몽이라는 고구려 건국자의 이름의 내력에 명궁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자료에 보면 뭐 추모라는 이름도 나오는데요. 주몽, 추모 이름에 이름이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명사수에 흔히 붙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 뒤에 성장해서 금와왕의 아들들하고 늘 경쟁을 했는데 사

냥을 늘 나가면 예를 들어서 왕과 아들을 따르는 40명의 궁수들이 겨우 사슴 한 마리 잡는 데 비해서 주몽은 혼자서 여러 마리를 잡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그 금와왕의 아들들이 나중에 저게 위험 요소가 될 거다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 이것도 결국은 주몽의 명궁으로서의 능력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고구려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건국자 주몽은 이 명궁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궁의 이야기는 사실은 주몽의 명궁으로서의 어떤 능력은 주몽이 이 금와왕이 있던 북부여를 탈출할 때 두고 왔던 자신의 아내가 낳았던 유리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능력이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활을 잘 쏘어요. 길에 가는 여성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데 활을 쏘아가지고 그 물이 장난처럼 활을 쏘아서 그 항아리에서 물이 새니까 뭐라고 욕을 하니까 다시 활을 쏘아가지고 그 항아리의 물구멍을 맞춰서 막을 정도로 그런 어떤 명사수 명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런 능력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신라, 고려 이렇게 이어지는데 신라의 거타지와 같은 명사수가 명궁이 있었습니다. 거타지는 신라 진성왕 때 나오는 인물인데 진성왕의 막내아들 막내아들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바다에 바다에 해적들이 있어서 활 잘 쏘는 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50명을 데리고 갔는데 곡도 오늘날 백령도라고 합니다. 이 곡도에 갔는데 풍랑이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발이 묶였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점을 쳤더니 이 백령도에 신령스러운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문제가 해결된다 제사를 지냈더니 어떤 노인이 물속에서 나타났던 거죠. 용신 물의 신인데 그러면 너희들 일행 가운데 활을 잘 쏘는 사람 하나만 이 섬에 남겨놓고 떠나라 그 활 잘 쏘는 명사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뽑힌 인물이 거타지였습니다.

배는 순풍을 받아서 떠나고 이 거타지한테 이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서해 신이다. 내가 근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어떤 중이 해가 뜰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문을 외우면 외우면서 내가 있는 연못을 세 바퀴 돌면 우리 우리 부부 자식들이 모두 힘을 잃고 물 위에 둥둥 떠오른다 그러면 그 중이 우리 자식들 식구들의 간, 창자를 빼먹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괴롭고 다 죽고 우리 부부하고 딸만 남았다 딸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거타지가 말하죠. 활 쏘는 일이 저의 장기입니다. 바로 거타지가 명궁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타지는 자신의 장기를 가지고 그 삼일승을 활로 쏘아서 잡고 쏜 것은 중이었는데 인간인 중이었는데 떨어진 거를 보니까 늙은 여우였다는 거죠. 아주 악신 나쁜 신이 중의 모습으로 수신 서해의 신을 아주 괴롭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타지가 그 보답으로 보답으로 서해 용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거타지의 명궁으로서의 능력이 거타지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고려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작제건이라는 인물로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작제건은 누구인가 하면 고려를 세운 인물이 왕건이죠.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고 용건의 아버지가 작제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작제건이 얼마나 명궁이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충명하고 힘이 아주 신과 같았는데 특히 활쏘기가 아주 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남기고 간 활과 화살을 작제건이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백발백중이었고 신궁이라고 불렀죠. 그 작제건이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라고 어머니한테 묻고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는 당나라의 숙종이라는 왕이다라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는 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거타지 이야기에서와 똑같이 풍랑을 만나서 나아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점을 쳐봤더니 배 안에 고려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결국 작제건이 제비에 뿔혀서 작제건이 활과 화살을 들고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몸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아래에 있는 바위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서해 용왕이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바로 그 부탁을 받아서 작제건은 작제건은 이 서해 용왕이 자신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서해 용왕을 도와서 그 적을 활로 쏘아서 죽이죠. 쏘고 활로 쏘고 봤더니 역시 늙은 여우 늙은 여우 대단히 사악한 신이었던 거죠. 그 노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 작제건을 궁궐로 맞이해서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실은 작제건은 당나라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인 천자 당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이었죠. 만나는 것이었죠. 근데 작제건은 그러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라로 돌아가서 왕이 되고 싶다. 근데 그 용왕이 당신은 왕이 될 수 없고 그 대신 당신의 아들 용건 그 다음에 왕건이 돼야 그 세 번째 건 자를 쓸 때가 돼야 새로운 왕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그 대신 작제건은 그 보답으로 용왕의 딸 저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결혼을 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에서도 결국은 작제건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명궁이었다라는 얘기죠.

고구려의 주몽, 주몽의 아들 유리 그다음에 신라의 거타지, 고려의 작제건은 모두 다 명궁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에 공적을 세운 영웅들이었던 것이고 이 명궁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전통이 쪽 고려까지 사실은 이 신화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고려만이 아니고 조선시대까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성계 역시 명궁으로 널리 실제로 명궁이었다라고 널리 그 능력이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명궁의 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한반도 한국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몽골에 에르히 메르겐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명사수 명궁이 등장합니다. 에르히 메르겐은 뭘 했느냐 자 천상의 해를 정리를 합니다. 하늘에 해가 7개가 떠올라 가지고 엄청나게 가뭄이 심해서 인간과 초목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에르히 메르겐이란 영웅이 등장을 해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개의 태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갑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저 해를 해결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에르히 메르겐은 맹세를 합니다. 내가 7개를 다 못 떨어뜨리면 손가락을 베어버리고 사내 대장부라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물도 풀도 못 먹는 동물이 되어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에르히 메르겐이 활을 쏘기 활로 해를 쏘기 위해서 출발해가지고 6개 7개 가운데 6

개를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떨어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을 때 마침 제비가 한 마리 앞을 날아갔어요. 화살이 날아가서 제비의 꼬리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비 꼬리가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태양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화가 난 메르겐은 제비를 죽이려고 제비를 쫓았습니다. 제비를 쫓아갈 때 이번엔 말이 맹세를 합니다 말이. 내가 저 제비를 못 쫓아가면 내 다리를 잘라서 들에 버려라 그러면 내가 쥐가 돼가지고 날쥐가 되어가지고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메르겐처럼 메르겐이 타던 말도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제비를 다 쫓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 몽골 이야기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맹세대로 그래서 메르겐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풀도 안 먹는 마르모트로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물로 변해서 영웅이 구멍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저녁에나 돼야 마르모트가 구멍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 실제로 그 마르모트는 앞에 앞발 사람으로 보면 손이 손가락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엄지가 없어요. 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물의 특성에서 이 이야기를 유추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죠. 자신의 맹세 때문에 에르히 메르겐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메르겐이 7개 가운데 6개를 쏘아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오늘도 해는 메르겐의 추격이 두려워서 늘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도망가는 것이고 그래서 밤낮의 순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몽골의 영웅인 명궁 에르히 메르겐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세 신화의 계보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 신화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의 숫자를 조절하는 그 영웅들 실제로 함흥의 창세가에서는 미륵님이 해와 달을 하나씩 따가지고 꽃을 따듯이 따가지고 별로 만드는데 제주도 신화의 대별왕, 소별왕은 거대한 활과 화살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가지고 떨어뜨려서 그걸로 별을 만들죠. 바로 이 제주도의 이야기가 이 몽골의 이야기하고 같은 깊은 네트워크를 사실은 또 가지고 있죠. 에르히 메르겐도 활쏘기를 통해서 해의 숫자를 조절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명사수 명궁의 능력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데 말하자면 사용되는 거죠. 앞서서 고구려의 주몽과 그 계보에 속하는 영웅들의 경우에는 그 명궁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거나 왕권을 지키거나 뭐 이런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 창세 신화의 계보 속에 있는 몽골의 에르히 메르겐의 이야기는 자연의 재해 두 개의 태양으로 두 개의 달로 상징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는데 명궁의 능력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중국의 그 문헌 자료 속에도 등장하는데 예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명궁이 있습니다.

이건 상상화인데요. 예가 까마귀로 상징되는 해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그림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회남자라는 문헌에 보면 요 임금 때 10개의 해가 나란히 떠올라서 별을 시들게 하고 초목을 죽이니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다. 에르히 메르겐 이야기의 첫 대목하고 유사하죠. 자 계유, 착치, 구영 등등 이것은 모두 괴물들인데요. 이 괴물들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임금이 예라는 영웅을 시켜서 이 괴물들을 다 죽이고 활을 쏘아서 10개의 해를 정리를 했다 바로 그랬더니 만백성이 다 기뻐해서 요를 천자로 추대했다 이렇게 해서 천하의 평원에도 산곡에도 가까운 곳에도 먼 곳에도

도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회남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좀 다르죠. 같은 명궁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에르히 메르겐이나 주몽의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이 명궁 옆에 명궁 위에 천자라고 하는 요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있어요. 요의 명에 따라서 예는 천상의 해들을 해결을 하죠. 다시 말하면 천상의 해를 해결함으로써 만백성의 기쁨을 얻었고 그걸 통해서 요가 천자로 추대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왕권 신화인데 왕권 신화인데 그 요가 천자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명궁인 예가 말하자면 신하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자료 속에서는 마치 해가 10개가 다 떨어뜨려진 것처럼 다 죽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다른 자료들 구전 자료들이나 다른 문헌 자료에는 예가 예가 9개만 떨어뜨리고 한 개는 남겨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에 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가 명령을 내려놓고 예가 하늘의 해를 하나씩 떨어뜨리니까 해를 다 떨어뜨릴까 봐 걱정한 요가 예의 그 화살통에서 화살을 하나 숨깁니다. 화살 하나 그래서 결국은 9개의 해만 떨어뜨리고 한 개는 남았다. 그래서 천상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 예의 신화에 대해서 그 사라 알렌과 같은 미국의 중국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신화 예의 해 쏘기 신화는 중국의 고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 이전에 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상은 10개 부족으로 연합된 연합체 성격의 국가였고 그거를 통일한 것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때 10개의 태양은 바로 상의 10개의 부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거를 예가 다 떨어뜨리고 하나만 남겨 놓았던 것은 바로 주에 의해서 과거의 10개의 부족들이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을 감추고 있는 신화다. 바로 그 상징으로 요라는 상상적인 성인을 이 신화로 신화 속에 등장한 것이 이런 자료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보면 주의 중국의 이 명궁의 신화의 경우에는 또 다른 맥락 속에 이 명궁 신화소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주도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그 무속 신화 가운데 <군웅본풀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군웅본풀이>. 군웅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명궁인 왕장군이 등장하는데 왕장군은 원래 나무꾼 나무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초립동이라고 조그만 갯을 쓴 아이가 찾아와서 내가 동해용왕의 아들인데 동해용왕하고 서해용왕이 싸우는데 매번 밀려서 힘드니까 장군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왕장군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데 바닷물은 무섭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 등에 업혀라 그래서 등에 업고 용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왕의 도움을 부탁을 받고 두 용왕이 싸울 때 서해용왕을 활로 쏘아가지고 죽입니다. 자 그 보답을 동해용왕이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초립동이 옆에서 그 왕 옆에 있는 이런 그 통 연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연갑 속에는 바로 이 용왕의 딸이 있었던 거죠.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고 큰 부자로 살다가 그 용왕의 딸은 나중에 용궁으로 돌아가 버렸고 지상에 남아 있던 왕장군과 세 명의 아들이 나중에 군웅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 무속 신화, 제주도 곳에서 진행되는 <군웅본풀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주도 곳에서 이 <군웅본풀이>를 연행을 할 때는 제주도의 신방이 저런 그 군사, 군인의 복장을 하고 활과 화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

을 하죠. 바로 이 <군웅본풀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몽에서 시작되어서 유리, 거타지, 작제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명궁 이야기가 제주도에 와서 오늘날도 <군웅본풀이>라고 하는 명궁의 이야기로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사례가 됩니다.

자 이 유라시아 지역의 명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화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수렵문화의 산물이죠. 수렵문화의 산물이면서 이것은 원시적 주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나 이런 유라시아 지역의 풍습들 가운데 가뭄이 아주 심하면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활을 쏘는 그런 어떤 그 주술적인 민속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것과 이 명궁 신화는 깊은 관계가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과거의 민속과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쏘기 주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재해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인간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자연재해를 해결한 이야기가 에르히 메르겐의 이야기였다면 인간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를 설립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대개 고구려 주몽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중국의 예나 작제건의 이야기 이 속에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더 더 나아가서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한국 사례의 특수성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선녀와 나무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도 확인할 수 있다. 신화소의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신화가 창안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좀 전에 봤던 제주도의 <군웅본풀이>와 같은 무속 신화에서 명궁이 바로 조상신으로 이렇게 모셔진다는 거죠. 우리 조상 가운데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명궁이 있었고 그 명궁인 조상신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제주도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조상신의 신화, 수호신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그런 특수한 사례들이 한국 특히 제주도에서 확인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명궁 주몽과 그런 유전자의 문화적 유전자 밭에 대한 한국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도 좀 전승되고 있어요.

양궁이 있고 양궁은 지금 올림픽 여러 체육 행사들의 중요한 종목이고 한국 양궁은 세계 제1위죠 제1위입니다. 한국엔 국궁이 있고 양궁이 있어요. 국궁은 전통적인 활이고요. 양궁은 말대로 서양에서 개량되어서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게 게임으로 올림픽 경기로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양궁은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활 잘 쏘는 민족이었어 실제로 그랬는지와 상관없이 그런 신화와 이야기 속에 명궁의 전통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문화적 그런 어떤 유전 문화적 유전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런 활쏘기 능력을 오늘날도 발휘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라시아 명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 사례(3): 신데렐라-콩쥐팥쥐-섭한 네트워크

세 번째는 ‘신데렐라 네트워크’의 사례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제시된 자료는 바로 독일의 유명한 그림형제가 정리한 19세기 <재투성이 소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 재투성이가 재를 씻고 황금 신발을 신자 그게 꼭 맞아서 결국 이 왕자는 자기가 춤을 추었고 자기가 간절하게 찾던 그 소녀가 바로 이 소녀임을 깨닫고 그를 신부로 맞이하죠. 그런데 그 왕자의 신부가 되는 데 실패한 두 배다른 언니는 그래도 뭐 자기도 공을 쌓으려고 자기 재투성이 막내 소녀 동생을 따라서 교회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다가 갔는데 바로 그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두 언니의 눈을 쫓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로 두 언니는 평생 장님으로 살았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원래 그림동화의 재투성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프랑스로 가고 하면서 이런 어떤 불행한 결말이 상당히 지워지고 미화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죠. 자 그런데 그런데 한국에 <콩쥐팥쥐>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한국의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보면 어머니가 죽은 뒤에 계모가 자기가 낳은 딸 팥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계모가 온갖 구박을 합니다. 전처의 딸인 콩쥐를 구박해요. 그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무로 만든 호미 호미는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로 만든 호미를 주고 밭을 매라고 합니다. 밭을 맬 수가 없죠 호미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조력자로 나타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 소예요. 흥미롭게도 이 검은 소가 새 호미를 마련해 줍니다. 밭도 대신 매줘요. 자기 몸속에서 이런 것들을 꺼내서 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시켜요. 뭐 밭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그다음에 벼를 찢어라 그다음에 삼을 삶아라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베를 짜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 검은 소의 도움으로 이 콩쥐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님의 잔치에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리죠. 신발 한 짝을 그리고 결국 그 원님은 원님이라고 하는 원님은 관리죠 관리. 원님이 결국은 그 신발의 주인공을 찾아서 콩쥐하고 결혼을 해요. 자 그런데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질투가 난 팥쥐가 콩쥐를 유인을 해가지고 연못에 떠밀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바로 콩쥐인 양 행세를 하면서 원님과 살아요.

자 그 죽은 연못에 빠져 죽은 콩쥐는 물 위에 연꽃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환생을 합니다. 그 연꽃을 아름답다고 여겨서 그 원님이 그걸 꺾어다가 집에 문에다가 걸어놓는데 그 연꽃이 사람이 드나들면 원님이 드나들면 활짝 웃는데 콩쥐가 팥쥐가 지나가면 팥쥐의 얼굴을 할퀴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화가 난 팥쥐가 연꽃을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불씨를 얻으러 왔던 이웃 할머니가 아궁이를 뒤지다가 아궁이에서 불씨를 뒤지다가 아궁이 속에 구슬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구슬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그 구슬이 콩쥐로 다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콩쥐로 환생을 한 구슬에서 콩쥐로 환생을 한 이 콩쥐가 다시 원님과 만나서 재회를 하고 그 숨겨진 사정을 알게 된

원님이 팔쥐를 죽이죠. 근데 팔쥐를 죽여서 자기 어머니 계모한테 보내는데 어머니한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팔쥐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음식 짓갈이라고 하는 짓갈이라고 하는 발효 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어머니가 그걸 먹고 맛있다고 먹고 먹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 딸의 시신인 것 죽음인 거를 발견하고는 그 어머니도 놀라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국의 유명한 <콩쥐팍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찍부터 <콩쥐팍쥐>라고 하는 영화로 1960년대에 만들어지고 근래에는 <장화홍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런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콩쥐팍쥐> 이야기가 그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대단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콩쥐팍쥐>를 ‘한국의 신데렐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 네트워크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가 바로 중국에 있는데 이게 중국의 <섭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9세기인데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거죠. 우리가 그림형제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19세기가 가장 이른 시기인데 이 자료는 그 이전에 1천년도 더 일찍 중국 문헌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학자들은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천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유라시아 대륙이 두루 공유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하게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이 이야기에 보시면 이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그렇게 그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던 여자 아이가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 우물에서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아주 신비하게 생긴 물고기를 좀 잡아다가 자기 방에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길렀는데 그 물고기가 너무 잘 자라서 그릇에 키울 수 없어서 이제는 그거를 연못에다가 그 물고기를 길렀고 그 물고기한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이 섭한이 올 때마다 머리를 내밀고 먹을 걸 받아먹었지만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섭한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계모가 애를 그 섭한을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물을 길어오게 하고 그 사이에 이 어머니가 계모가 섭한의 낡은 옷을 자기가 입고 섭한처럼 흉내를 내서 우물에 이렇게 갔더니 물고기가 머리를 내미는 것을 보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잡아 먹어버린 거죠. 너무 맛있게 먹어버리고 그 뼈를 그냥 거름 속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죠. 섭한이 그걸 보고 너무 슬퍼서 보이지 않아서 울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산발을 한 여자가 내려와서 그 물고기에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죠. 뼈만 남았다. 근데 뼈를 갖다 네가 가져다 두고 빌면 빌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섭한이 뼈를 갖다 놓고 빌었더니 물고기의 뼈를 갖다 놓고 빌었더니 거기에 뭐 금도 나오고 구슬도 나오고 옷과 음식이 다 나눠 갖춰졌다는 거죠.

자 그다음의 대목은 바로 마을의 축제가 있고 그 축제에 자기 딸들이 참여하느냐 못 참여하느냐 그 얘기가 뒤에 이어지고 바로 이걸 신데렐라 이야기의 전형적인 어떤 그 이야기 화소 화소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신발 모티프가 있고요. 신발 모티프가 있고 신발을 잃어버리고 그 신발을 주운 타한이라는 나라의 왕이 그 신발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전전하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 뒤에 신발이 딱 맞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섭한이어서 섭한을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왕비로 삼았다는 이야기 그 뒤에 그 뒤에 그 계모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도 보면 이 <섭한>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어떤 학자들은 섭한의 그 이름 발음 자체가 신데렐라의 신데하고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중국 소수민족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섭한> 이야기가 조사된 지역이 중국의 남부 지역 지금 베트남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중국의 소수 종족 가운데 좡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전하는 자료 가운데 따자와 따룬 예쁜이와 곰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나 유사해서 바로 <섭한>이라고 하는 그 문헌 기록은 이 따자와 따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섭한> 이야기하고 따자와 따룬의 이야기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도 나타나고요. 몇몇 <섭한> 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 모티프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등장하지 않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서 살필 겨를은 없고요. 제시된 자료를 잘 한번 읽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데렐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데렐라 얘기는 몇몇 사례만 들었습니다마는 중국의 소수민족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유라시아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신데렐라 이야기는 대단히 넓게 전승되고 있죠. 심지어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학자들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조사된 자료들은 나중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변형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퍼져 있었던 원래 자료는 신데렐라는 원래 유라시아 대륙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한반도의 장화 아니 <콩쥐팍쥐>. <콩쥐팍쥐>가 나중에 <장화홍련>이라는 소설로도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역시 신화의 역사적 변화를 일차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희생 동물의 뼈 그 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렵사회의 일반적인 사유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니브히족의 곰 사냥 얘기를 하면서 곰의 뼈를 통해서 새로운 곰들이 재생 증식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렵사회의 뼈에 대한 관심과 뼈에 대한 사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신데렐라 신화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 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섭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의 뼈 물고기의 뼈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엄마로 상징되는 그 존재가 뼈로 변형이 됐고 뼈 속에서 뼈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다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재투성이 소녀 독일의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보면 그 말하자면 엄마 죽은 엄마 죽은 엄마를 죽은 엄마를 무덤에 묻고 그 죽은 엄마의 무덤에 아버지가 가지고 온 개암나무를 이 재투성이 소녀가 심죠. 그러면 그 개암나무가 이 재투성이 소녀한테 옷과 황금 슬리퍼 같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엄마의 무덤 무덤 속에 있는 엄마의 뼈가 엄마가 그것을 사실은 준 거죠. 좡족의 따자와 따룬 이야기에서도 그 마을의 무녀가 엄마를 죽이고 자기가 엄마 행세를 하는데 엄마를 소로 변신시켰고 나중에 소를 죽이는데 그 소의 뼈가 결국은 옷과 금신발 이런 걸 줍니다.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 속에 보면 뒷부분에 후반부에 보면 연꽃이 불로 변하고 불 속에서 구슬이 나오고 구슬이 콩쥐가 되는데 바로 불 속에 연단이 되어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물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뼈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든 구슬이든 구슬은 나중에 불교에서 또는 문화 속에서 여의주가 되는데 뭐든지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랜 어떤 상징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데렐라 네트워크 속에 말하자면 깔려 있다는 거죠. 뼈 그리고 불 재투성이 소녀는 늘 아궁이 옆에 있고 그 아궁이는 저승과 통하는 통로고 바로 그 재투성이 소녀로부터 어떤 뭔가가 증식되는 이야기 이런 맥락이 재투성이 소녀 신데렐라의 배후에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뼈와 불 이런 재생의 모티프를 통해서 결국 신데렐라 이야기가 신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신데렐라,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가 결국은 신화에 기원을 두고 있으면서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비교를 통해서 한국 <콩쥐팥쥐>의 특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콩쥐팥쥐>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게 검은 소라고 하는 거고 검은 소가 모든 걸 도와준다는 것이 농경문화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감사가 팥쥐를 죽여서 어머니한테 젓갈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 아주 끔찍한 복수담은 한국의 <콩쥐팥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지역에도 이 비슷한 젓갈 모티프가 전승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유라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의 남쪽 루트와 북쪽 루트가 있는데 그 남북의 루트의 어떤 이야기 요소들이 한반도에서 집약이 되어서 한국의 신데렐라인 <콩쥐팥쥐> 이야기가 형성되었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널리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국신화가 갖는 위상

오늘 강의를 전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세 개의 사례들도 주마간산 격으로 검토해 본 바지만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신화 그다음에 <형제 갈등 신화>, <오누이 힘내기>, <손 없는 각시>,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나 뭐 이와 제주도의 <삼공본풀이> 등등 다양한 사례들로 더 확장을 해서 한국 신화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한국 신화는 한국 신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한국 문화의 심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의 심층이 유라시아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국의 신화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한국 신화를 여러 유라시아 민족의 문화가 지

닌 신화와 비교해서 서로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와 신화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한국의 신화 전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한국에서 널리 전승되는 <선녀와 나무꾼> 민담은 천상시련극복 유형의 설화이다. (O/X)

정답: X

2. 몽골의 '에르히메르겐' 신화는 명궁 신화소를 공유한 이야기로, 활쏘기를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O/X)

정답: O

3. 유사신화(Parallel myths)는 집단의 이동과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O/X)

정답: O

4. 한국의 신데렐라 <콩쥐팍쥐>에서 콩쥐의 발매기를 도와주는 '검은 소'는 농경 문화의 상징이다. (O/X)

정답: O

5. 한국의 신데렐라 <콩쥐팍쥐>에서 콩쥐의 발매기를 도와주는 '검은 소'는 농경 문화의 상징이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유라시아 백조처녀 네트워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라트족 등의 시조신화에서 나타나는 동물혼(動物婚) 신화소를 통해 신화의 역사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 ② 백조와의 결연 실패나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등 민담으로 변형되는 ‘신화의 민담화’가 나타난다.
- ③ 한국 사례에서는 신화소의 변형과 확장 없이 전승되어 그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2. 다음 중 ‘유라시아 명궁 네트워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활쏘기는 수렵문화의 산물이면서 원시적 주술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 ② 활쏘기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③ 고구려 명궁 주몽과 그 문화적 유전자에 대한 집단적 믿음이 오늘날 한국 양궁에도 남아있다.

정답: ③

3. 다음 중 ‘유라시아 신데렐라 네트워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희생동물의 뼈와 재생이라는 수렵사회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뼈와 불, 재생(증식) 모티프를 통해 신데렐라 민담이 신화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한국 <콩쥐팥쥐>와의 비교를 통해 ‘신(신발)’을 두고 간다는 <콩쥐팥쥐>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4. 다음 중 ‘천상시련극복형’에 반영된 한국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국에서 전승되는 <콩쥐팥쥐> 민담이 속하는 유형이다.
- ② 남녀 간의 애정보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더 중시하는 한국 설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려는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5. 다음 중 '유라시아 백조처녀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설화는?

- ① 일본 - 〈이나바의 흰토끼〉
- ② 중국 - 〈모의녀〉
- ③ 한국 - 〈선녀와 나무꾼〉

정답: ①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거타지, 고려의 작제건은 모두 ○○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에 공적을 세운 영웅들이다. 이는 유라시아 ○○ 네트워크와도 상통한다.

정답: 명궁

2. 한국의 〈콩쥐팍쥐〉, 중국의 〈섭한〉, 좡족의 〈따자와 따룬〉은 유라시아 ○○○○ 네트워크에 속하는 설화들이다.

정답: 신데렐라

3. 한국 문화의 심층은 ○○○○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신화와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신화와 문화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정답: 유라시아

나. 토의(30분)

한국신화는 왜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여러 민족과 국가의 신화들과 비슷한가, 그 이유에 대하여 토의해 본다.

다. 과제(60분)

비교신화학적 시각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민족의 신화와 유사한 한국신화를 찾아 비교하여 같고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논문을 쓴다.

| 참고자료 |

<제1강>

-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 조현설,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 신화』, 한겨레출판, 2014.

<제2강>

-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제3강>

- 조현설,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11, 한국구비문학회, 2000.
- 조현설,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 오세정, 「대홍수와 목도령에 나타나는 창조신의 성격」,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제4강>

- 조현설, 「천자단절신화의 아시아적 양상과 변천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13, 민족문학사학회, 1998.
- 이유진, 「천지단절 신화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19, 중국어문학회, 2002.
- 임현수, 「중국 고대 절지천통 신화 재고」, 『종교문화연구』 19,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2.

<제5강>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2000.
-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제6강>

- 조현설, 「웅녀 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조현설, 「근대계몽기 단군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2004.

<제7강>

- 조현설, 「바리데기와 무의 윤리」, 『국문학연구』 37, 국문학회, 2018.
- 이경하, 『바리공주/바리데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제8강>

-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학』 23, 남도민속학회, 2011.
- 허남춘, 「원천강본풀이의 시공간적 의미와 사유체계」, 『한국문학연구』 6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 신호림,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신격의 특징과 의미」, 『어문연구』 5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제9강>

-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2011.
- 강새미, 「여성의 내적 갈등과 자기통합적 치유과정으로 본 삼승할망본풀이 연구」, 『구비문학연구』 61, 한국구비문학회, 2021.

〈제10강〉

- 공원국, 『유라시아 신화기행』, 민음사, 2014.
- 자자와, 「공쥐팔쥐 설화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